현대불교

제 800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2010년 9월 8일 수요일 (음력 8월 1일 · 불기 2554년 · 주간)





사찰음식 불교한류 첨병

조계종, 사찰음식 세계화 · 대중화 나섰다

뉴욕서 '한국 사찰음식의 날'(9.20)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상품으로 템플스테이를 꼽았다. 사찰에는 수천 년을 이어진 한국불교 고유의 역사와 문화가 간직돼 있기 때문이다.

템플스테이와 함께 주목받기 시작한 한국불교 문화가 있다. 사찰음식이다. 사찰음식이 주목받는 이유는 최근 웰빙, 로하스, 친환경, 생태주의 등의 영향으로 채식이 각광받기 때문만은 아니다.

사찰음식전문가 선재 스님은 "사찰음식은 단순한 건강식에 그치지 않고 지혜를 증장시켜준다"고 말한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9월 20일 미국 뉴욕에서 '한국사찰음식의 날'을 개최한다. 행사에는 현지의 각국 언론인 250여 명이 초대돼 한국 사찰음식과 한국불교문화를 체험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한국사찰음식연구회 회장 적문 스님과 선재 · 대안 · 우관 · 정관 스님 등 국내의 사찰음식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발우공양 시연 등 한국불교문화 전통과 가치가 구현된 프로그램에 법고무, 한국 전통차 시연 · 시음 등 문화중심 프로그램을 더해 오감만족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계종 문화부장 효탄 스님은 행사에 앞선 1일 서울 인사동 모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의 사찰음식전문가 스님들의 노하우를 살려 불교문화를 알릴 아이템으로 사찰음식을 선정해 국제무대에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스님은 "'한국사찰음식의 날' 행사를 통해 한국의 사찰음식을 미국사회 내 오피니언 리더 그룹에게 선보이면 한국불교문화에 대한 우호적인 정서 확산과 함께 서구사회에 불고 있는 불교열풍을 한국불교에 대한 관심으로 무리 없이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내비쳤다.

조계종 기획실장 원담 스님은 "'한국사찰음식의 날' 행사는 조계종과 한국불교의 브랜드 및 이미지 확산을 통한 불교적 한류(韓流)를 확산시킬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면으로 계속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음악이 있는 곳에 상상밴드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9월 1일 복지관내 강당에서 '상상밴드 창단식'을 개최했다.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참여한 '상상밴드'는 음악이 있는 종로구를 만들기 위해 결성된 밴드로, 종로구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 노장의 열정과 저력을 보여줄 계획이다. 박재완 기자

자연공원 내 건축불사 쉬워진다

여야 자연공원법 개정안 발의… 문화유산지구 신설

조계종 "요구 수용 환영"
무분별한 건축불사 우려

자연공원에 사찰소유지를 강제 편입시켜 문화재 관리 및 사찰 수행환경 등을 침해해 온 자연공원법이 불교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과 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갑)은 8월 31일 각각 대표발의해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호영 · 강창일 의원은 "현행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을 공원자연보존지구 · 공원자연환경지구 등 생태계 보전 위주로 용도지구를 규정해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등의 발전을 초래하고 있다"며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밝혔다.

두 의원은 개정법률안에서 자연공원 내 사찰 경내지 중 문화유산 보전 등에 필요한 지역을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케 했다(안 제18조제1항제6호 신설). 전통사찰의 의견을 수렴해 문화재 관리행위와 전통사찰 불사를 가능케 했을 뿐만 아니라(안 제18조제2항제6호 신설), 공원관리계획 수립 시에도 전통사찰의 의견을 묻도록 했다(안 제17조의3 및 제71조제1항 후단 신설). 또, 문화재관람료 민원 해결을 위해 공원문화유산지구입장료를 신설 · 징수할 수 있게 했다(안 제37조제2항 및 제42조제2항 단서 신설).

이에 대해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9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자연공원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조계종 기획실장 원담 스님은 "부족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이제라도 종단의 요구를 수용해 자연공원 내 문화재와 전통사찰이 갖는 역사문화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자연공원 정책을 도입키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시 그동안 자연공원 내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제약을 받던 사찰의 불사가 무분별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시민단체 등과 갈등을 빚어온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대신할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징수의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도 과제로 남았다.

원담 스님은 "종단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후손들에게 지속될 수 있도록 환경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사찰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종단 내 불사관리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인터뷰 4면

조동섭 기자

"사찰문화재는 공공문화유산"

연사연 국고 예산지원 변화 촉구

일부 개신교 단체 등이 불교계에 지원되는 국고 예산이 종교편향이라며 문제를 제기하는 가운데 연경사회문화정책네트워크이 보도자료를 통해 정당한 예산집행을 촉구했다.

연경사회문화정책네트워크(이하 연사연)는 9월 2일 '2010년 9월 정기국회를 맞이하여 불교문화유산의 보존관리 정책과 예산지원에 대한 심도 있는 변화를 촉구한다'는 제하의 자료를 발표했다.

연사연은 "사찰은 종교단체이지만 국가에 의해 문화재 혹은 사적으로 지정돼 있어 종교단체 이전에 대한민국의 전통문화유산이며 공공문화유산"이라며 "불교문화유산의 관리는 궁능처럼 면단위 지원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사연은 "템플스테이 예산도 면단위 지원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교계가 정부 요청에 의해 100여 사찰에서 시설개선자금을 받아 숙소 등을 현대화했으나 현재에는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당 2~3억원 예산만을 받고 있다는 것.

연사연은 "템플스테이 활성화와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문화재 유물의 유지보수에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면단위로 유지 · 관리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종합적인 문화유산관리 정책으로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박준수의
그림 법구경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알려고 하지 말라

언제나 항상
스스로 자신을 반성하며
올바른지 그른지를
알도록 하라



14 15 간화선 세미나 수불 스님
간화선 수행이 한국불교의 기복적이고 비불교적인 행위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불교의 새로운 대안이라는 점을 명심해서, 간화선과 화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참의심을 불러일으켜…

3 유신론 6.교육
9 현장 세대공감 운동회
16 강의실 중용과 정치
19 문화 불미전 수상작 전시회

몸도 패철 마음도 패철 ·인·생·대·전·환·
단기출가 30일 50일 100일
삼매체험 참선집중수련 5일
산사의 다이어트 ·감식·보식·무·
참선 단식
아기 손잡아 일으켜 세우듯 이끌어주는 간화선체험
다이어트1일최고3kg 고혈압 당뇨 피부 해독 면역성 노화방지 아토피 생리연장 금연 금주 요요현상제로
추석연휴 4박5일, 9월 19일~23일, 매월 청소년 대학생 일반
인 턴 사 원 모 집
(참선전문도량에서 수행 전법업무에 기여하고자하는 분)
一. 분 야 1. 기획, 관리직 : 0명 2. 아르바이트(대학생) : 0명
※ 산사(참선도량)에 머물고자하며, 참선도량의 업무에 기여하고자 뜻이 있는 분(기획업무 유경험자 우대, 전법에 뜻이 있거나 수행업무를 익혀 기여하고자 하는 분), 연락바랍니다
활인선원 원명선원 ☎1644-5266 네이버카페 활인선원 ▼ 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여래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찬덕불교가 개발한
영구위패
LED 인등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아름다운 등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 (사찰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영가등 종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1. 내열 ABS
내열특성 : 연화점온도가 100-120 ℃로 우수한 내열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화점이란 (물질이 가열하여 변행되는 온도)
충격특성 : 내열성과, 내충격성 등의 물성 발란스가 우수하다.
2. 경제성 비교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3. 기존 전구에 비해 잘 깨지지 않는 재질의 커버적용으로 파손의 위험이 적다.
4. 발열이 적어 기존 전구처럼 뜨겁거나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5. 전기료가 절감 되고 교체하는 번거로움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승려교육 개선 순조로운 진행

기본교육기관 조정, 승가대학원 설립 등에 신청 쇄도

조계종 교육원이 추진 중인 승려교육개선 사업이 동국대와 전국선원수좌회와의 일부 협의되지 못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9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승가대학 교과목 개편 시행 및 각종 승가대학원 설립 추진에 대한 중간 브리핑'을 개최했다.

상반기 동안 10여 차례의 공청회 등을 진행하면서 진통을 겪어왔던 기본교육과정 교과목 개편과 관련해 수덕사 동화사 불국사 해인사 쌍계사 범어사 송광사 운문사 봉녕사 등 9개 사찰이 참여를 희망해 왔다.

교육원은 이들 9개 승가대학에 대해 9월 한 달 동안 학인 수, 교직원 수, 교육시설 등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을 심사해 적정 수의 승가대학을 선정해 지원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승가대학원 설립에는 동화사 해인사 송광사 운문사 봉녕사 등 5곳이 '율학 승가대학원'을, 범어사, 백양사, 유마사 등 3곳이 '선학 승가대학원'을 동화사, 송광사, 운문사, 봉녕사 등 4곳이 '한문불전 승가대학원'을 신청했다. '특정교학 승가대학원'에는 쌍계사가 범패를, 실상사가 화엄학을, 관음사가 정토학을, 운문사가 교직자 양성을 주제로 신청했다.

다만 '초기불교 승가대학원'을 희망하는 사찰이 없어 교육원은 사찰 지정을 통해서라도 학문의 균형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장 법인 스님은 "교육관련 법령을 정비해 사찰 승가대학 뿐만 아니라 중앙승가대학, 동국대 불교대학 등 모든 기본교육기관이 준수하도록 하겠다"며 "기준에 미달하는 승가대학은 유예기간을 두고 기준에 부합되도록 유도하되, 지속적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기본교육기관 지정 취소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원의 승려교육개선안에 대한 일선 사찰의 호응과는 별도로 동국대 불교대학과 기본선원과의 협의는 지속적으로 논의돼야할 과제로 남았다.

법인 스님은 "교육원은 동국대에 종단 기본교육 교과목 내용을 불교대학 교과과정에 반영할 것과 수행관에 수행관장을 상주시켜 수행관 생활 등에 '청규'를 제정해 시행할 것을 요청한 공문을 1일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기본선원 운영과 관련해 전국선원수좌회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기본선원 문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기본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릴 수있는 방향으로 모색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교육원은 (가칭)불교영어학교와 관련해 10월까지 설립 기관 선정, 12월까지 교육내용과 교수진 확정 등을 거쳐 2011년 3월 개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조동섭 · 노덕현 기자

자승 스님 방미 반기문 UN사무총장 면담 예정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해 9월 14~22일 미국을 방문한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이번 방미는 제33대 집행부의 종단 발전 4개년 계획의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인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국제 포교 네트워크 강화'와 '사찰 음식 대중화', '해외 특별 교구 설립'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스님은 15일 LA, 18일 뉴욕에서 두 지역 사원연합회를 중심으로한 현지 사찰 주지와의 간담회와 법회를 시작으로 방미 일정을 시작한다.

20일 뉴욕에서는 '사찰음식의 날'을 맞아 외국인에게 사찰음식을 소개하고 체험케 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17일 예정된 반기문 UN사무총장 면담에서 자승 스님은 △종교간 공동선 실현을 위한 국제 포럼 개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UN 역할 주문 △UN의 위기국가 어린이 돕기 사업에 조계종 참여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팔공산 역사탐방길 걷기대회 대구불교방송(사장 허운)은 대구시, 동화사와 함께 8월 28일 대구 동화사 인근에서 '팔공산 역사탐방길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대구 시민 등 5000여 명이 참가해 오전 9시 30분 동화사 집단시설지구에서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초조대장경 봉안 사찰이었던 부인사까지 왕복 4킬로미터 코스에서 진행됐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개신교 불교 폄훼행위 본격 대응

동화사,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 발족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개신교의 불교 폄훼행위와 관련해 대구 동화사가 교구의 역량을 결집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대구 동화사(주지 성문)는 8월 27일 경내 설법전에서 교구종회를 열고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비대위는 최근 대구기독교총연합회가 팔공산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을 특정 종교에 대한 편향 지원이라며 왜곡 조작하고, 동화사 등 불교계를 모욕하는 동영상을 배포한데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종교차별 신고센터'를 개설키로 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생활 속 참선수행 프로그램
한마음공생실천과정
나로부터의 시작
내 마음에 엄청난 보배가 있음을 믿고
그 자리에 일체 경계를 놓아 나가는 과정을 통해
마음 속 보배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
마음공부입니다.
교육일정 및 신청방법은 www.hansi.org 참조

고불총림 지위 종회 이관키로

법규위, "민감한 사안"… 양측 공방

조계종 법규위원회가 백양사 고불총림의 총림 지위의 정당성을 묻는 청구건을 본안 상정했다. 하지만 안건은 "사안의 방대성과 민감성을 고려해 법규위 회의에서 세밀히 논의한 후 종회에 이관하자"는 법규위원 다수의 의견에 따라 종회에 바로 상정하지 않고 차기 법규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조계종 법규위원회(위원장 성천)는 8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65차 회의를 열고 의연 · 무공 스님이 청구한 '백양사 고불총림 유지의 종헌종법 위배 심판청구'건 예비심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법규위원 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예비심사는 청구인인 중앙종회의원 의연 스님과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이 각각 법규위원들에게 소명 · 질의응답한 후 법규위원들이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청구인 의연 스님은 "방장스님이 주지 시몽 스님을 일방적으로 임명하자, 대중들은 총림은 개인 절이 아니라는 충언을 방장스님에게 전달하기도 했다"면서 "방장스님이 절 살림살이에 부적절하게 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과 방장 수산 스님의 상좌인 만당 스님(총무원 기획국장)은 "총림 지정은 총무원장의 제청으로 종회에서 가부가 지정된다. 조건부 지정이 되면 총무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하게 된다. (고불총림 지정이) 조건부 지정이었다면 총무원장 제청을 수정 · 요청했어야 한다"며 "1996년 당시 백양사의 고불총림 지정은 조건부 지정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법규위원회의 이날 결정으로 고불총림의 총림 지위에 관한 최종 심판은 종회에서 있게 됐다. 하지만 9월 6일 제14대 마지막 임시중앙종회가 아닌, 제15대 중앙종회에서 다뤄지게 됐다.

조동섭 기자

■ 한국사찰음식의 날

1면에서 이어짐

조계종 문화부는 '한국사찰음식의 날' 행사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한국불교 문화가 세계와 소통하는 창구로 만들기 위해 3단계로 나누어 후속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1단계 도입기에는 '한국사찰음식의 날'을 통해 확보된 미국 언론 관계자를 대상으로 메일링 리스트를 확보하고, 음식과 관련한 미국 언론방송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행사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국사찰음식 동호회를 구성하고 트위터 등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펼친다. 올해 말까지는 사찰음식 전용사이트를 개설해 파워블로거 양성과 네트워크 형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2단계 정착기에는 2012년까지 한국사찰음식의 날을 정례화해 한국사찰음식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한국사찰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2013년부터는 격년제 혹은 3년 주기로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국사찰음식과 관련해 저변 확대된 인식을 바탕으로는 체험관광프로그램과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모아진 관심을 실질적인 한국불교문화 확산으로 이끌어갈 예정이다.

3단계 안정기에는 미국 내에 사찰음식전용 공간을 설립해 한국불교문화 전반에 관해 상설 소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기로 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조계종은 2009년 12월 대전 · 충청지역 사찰음식을 연구해 보고서를 출간하는 등 DB구축 등 사찰음식 관련 자료 축적 · 정리를 위해 조사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문화부는 사찰음식사업과 관련한 로드맵 작성도 준비 중이다. 문화부 김낙현 행정관은 "사찰음식 대중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자 총무원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중"이라며 "내년 상반기에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은 최근 성황리에 운영중인 사찰음식전문점 발우공양을 확대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이민우 팀장은 "발우공양 운영이 성공적이라는 대내외적인 평가에 따라 프렌차이즈, 투자유치, 직영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9월 20일 세계 경제의 중심지 뉴욕의 한복판에서 한국불교문화가 세계와 소통을 시작한다.

조동섭 기자

중국 광동 육조사 (부설)
관 혜능 국제불교대학 개강안내 관
본원에서는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 도제 양성과
불교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강함을 알려드립니다
특전 : 우수학생은 장학금 지급 및 중국 광동 육조사 강원과 선원에 유학할 수 있으며 특히 육조 혜능 대사의 법맥을 받을 수 있는 수계 법회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본원의 학생이나 회원은 중국을 비롯한 대만, 싱가폴, 태국, 티벳, 일본 등 불교국가와 갖게 되는 각종 친선교류 행사에 동참할 수 있으며 세계선불교 육조선 회원으로 명실상부한 국제선불교 회원으로서 불교계의 다양한 문화와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원 :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용암리 904번지 전화 033)766-2556 팩스 766-2557
■ 분 원 :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1동 531-1호 전화 010-2878-3380
중국 광동 육조사 (부설) 혜 능 국 제 불 교 대 학
개강일에 육조사 대원 방장님 참석 특강
■ 개강일시 : 2010년 9월 27일(월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원주 혜능 국제불교대학 본원

學 科	定員	日 時	講義時間	教 授
佛教科學	25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2시간	송위지 교수, 김방룡 교수(육조단경)
作法	25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2시간	청암, 법붕, 종섭스님
佛像造成	25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5시간	불모 금봉스님
書畵	25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3시간	청곡(이한동), 김일동(前승가대교수)
佛畵	25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3시간	자비불교연구원 원장
陶藝	25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시간	혜오도예연구소, 오석경도예가
風水地理	25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2시간	한국 풍수지리학회장
命理	25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2시간	자인 박기정
觀相學	20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2시간	한국풍수지리학회장
相談心理學	20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2시간	소용주 사과나무심기, 상담심리연구소소장
文藝創作學科	20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2시간	김창직(前경기대 교수), 문예사조 대표
巫俗學	20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2시간	한국민속예술연구원

6. 교육

성공·실패는 오직 사람에게 달려있다


운문사 승가대학 학인스님들이 <능엄경> 강독을 하고 있다.

불교가 시대에 뒤쳐진 것은 사람의 문제
교육 혁신에서 불교 개혁의 핵심 찾아

1895년 승니의 도성출입이 허용되면서 한국불교는 오랜 침체를 딛고 회생의 기회를 맞는 듯했다. 그러나 억압에서 풀려난 승려들이 4대문 안에서 목도한 것은 우승열패라는 진화론적 가치관과 생존경쟁의 치열함이었다. 하지만 불교는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대응하고, 제국주의 열강을 등에 업은 서양 종교와 맞서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불교중흥을 도모하기 위해 교계의 선각자들은 잇따라 개혁론을 내놓았다. 1910년 만해 스님의 <조선불교유신론>을 필두로 1912년에는 퇴경 권상노가 <조선불교개혁론>을, 1922년에는 범란 이영재가 <조선불교혁신론>을 각각 연재하기 시작했다. 이들 개혁론은 불교가 시대에 뒤쳐진 것은 불교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승려를 비롯해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퇴경은 불교가 낙후한 것은 사실이지만 6000여 승려와 900여 사찰을 소유한 조선불교계가 사회를 선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문제는 조건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이 개혁론의 분석이다. 따라서 개혁의 핵심은 사람을 개혁하는 것이며, 사람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혁신되어야 한다는데 초점이 모아졌다.

이런 맥락에서 <조선불교유신론>도 철저히 사람중심의 사상을 견지한다. 만해 스님은 "성공과 실패는 오직 사람에 의해 결정된다"고 단언하고 불교개혁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도 사람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교육개혁을 비롯해 승가개혁에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이것은 제도와 의례보다 사람의 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만해 스님은 "지혜로 자본을 삼고, 사상의 자유로 법칙을 삼고, 진리로 목적을 삼아야 한다"는 교육의 원칙을 제시했다. 불조가 남긴 지혜를 갈고 닦아 진리를 추구하되 교육이 과거의 전통을 답습하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만해 스님은 사상의 자유가 없는 학문은 노예학문이라고 비판하며 사상적 자유를 강조한다. 이는 당시의 승가교육이 노예학문을 강요하는 상황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당시 행해지던 학제는 숙종 때 마련된 것이므로 3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동일한 교과와 방식을 고집하고 있었다. 시대와 역사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과거의 전통을 곱씹고, 이에 따라 승가의 인식은 수백년 전의 가치기준에 나포되어 있었다. 만해 스님은 이와 같은 교육제도로는 급변하는 시대에 맞설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고 보았다. 게다가 한문을 해석하는 서당식 교수법에 머물러 있다면 더 말할 것도 없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만해 스님이 제시하는 해법은 보통학과 사범학 그리고 해외유학이다.

첫째, 보통학이란 세상 돌아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학문으로 일반상식에 해당한다. 보통학이 필요한 이유는 당시 승가가 '스승의 자리에 있는 자 조차 육대주를 구분하지 못하고, 만국지도를 보면 장님이 그림을 대하는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만해 스님은 사회에서 중생을 제도해야 하는 것이 승려인 만큼 불교학만 공부하는 것은 고립을 자초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둘째, 사범학이란 중생을 올바로 계도하고 진리를 전파하는데 필요한 풍부한 지식과 교수법을 익히는 것이다. 만해 스님이 말하는 사범학은 자연사범과 인사사범으로 구분된다. 자연사범이란 사물의 물리를 관찰하는 것으로 자연과학에 해당하며, 인사사범이란 중생의 허물을 바로잡아 구제하는 것으로 인문·사회과학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범교육이란 단순히 교수법에 대한 교육을 넘어 과학적 지식을 익히고 인문학과 사회학에 대한 폭넓은 소양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국제정세를 파악하지 못하는 우물 안 개구리 신세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유학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세계는 역동적으로 변화하는데 승려들의 인식이 닫혀 있다면 안목이 고루해지고 인식이 낡고 부패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도나 중국으로 가서 불조의 발자취를 더듬어 전해지지 않은 문헌을 번역하고, 이를 통해 세계불교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문명국에도 찾아가 그 나라의 종교와 지식을 익혀 한국불교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해외유학이다.

만해 스님의 이와 같은 교육개혁론은 지난 100년 동안 동국대와 중앙승가대 설립 등을 거치면서 꾸준히 실현되어 왔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승가대학에서는 전통이라는 이름하에 만해와 퇴경이 한탄하던 방식으로 교육하고 있다. 다행히 최근 종단에서 승가교육 개혁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교육원에서 추진하는 개혁안은 만해가 주장한 바와 같이 승가교육을 현대적으로 개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만해 스님의 개혁안이 종단적 차원에서 수용되고 실천으로 옮겨지기까지 무려 100년의 세월이 소요된 셈이다. 하지만 이는 만해 스님이 백년지대계라는 교육문제에 대해 그야말로 100년을 내다보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역설적 대목이기도 하다. 비록 만시지탄이지만 지금부터라도 만해 스님의 뜻이 실현되어 인천의 스승이 배출되기를 <조선불교유신론> 100주년을 맞아 기대해 본다.



서재영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

무관심에 사라져 가는 만해 스님 가옥

독립운동의 산실… 불교계 관심 전무


서울 계동 43번지. 만해 스님이 1918년 1년 동안 거주하며 <유심>지를 발간했던 곳이다. 지금은 외국인 여행자를 위한 게스트 하우스로 리모델링되고 있다.

1918년부터 3·1운동 투옥시까지 거주
외국인 위한 게스트 하우스로 재단장

만해 스님이 3·1 독립운동 직전에 1년 여간 살았던 서울 종로구 계동 43번지 가옥을 찾았다. 만해 스님 가옥은 한국 전통가옥 체험의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북촌한옥마을에 자리잡고 있다. 서울 현대 사옥에서 중앙고등학교를 연결하는 길로 500여 m 올라가다보면 이모 분식과 중앙목욕탕 사이 골목 두 번째 집이 있다. 계동길 62-16번지 팻말이 붙여져 있는 곳이 바로 만해 스님 가옥이다. 어디를 봐도 만해 스님의 가옥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낡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이 동네에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이라면 만해 스님 가옥이라는 것을 웬만하면 다 알고 있다.

계동 가옥은 30평 정도의 작은 'ㄷ'자 형식의 목조 기와집으로 높이도 낮고 면적도 좁았다. 스님은 설악산 오세암에서 1918년 올라와 3·1운동으로 투옥될 때까지 이곳에서 거주했다. 스님은 이 가옥에서 1918년 9~12월 통권 3호 불교월간지 <유심(唯心)>을 발간했다. 집필자는 대부분 불교도로 최린·최남선·유근·이광종·이능우·김남천·박한영·백용성·현상윤 등이 참여했다. 같은 해 12월 스님은 근처에 있는 중앙학림 강사로 취임해 불교포교에도 앞장섰다.

이곳에서 거주하던 만해 스님은 1919년 3·1운동을 주도하며 불교계를 대표했다. 또 최남선이 작성한 독립선언서의 자구를 수정하고 공약 삼장을 첨가했다. 만해 스님은 최남선이 써온 독립선언문이 "말이 안 되며 한문 투로 돼 있어 민중이 읽기에 불편하다"고 주장하면서 자기가 새로 짓겠다고 까지 했다. 하지만 시일이 촉박하다는 주위의 만류로 스님은 공약삼장만을 추가했다. 이렇게 작성된 독립선언서는 1919년 2월 27일 보성사 인쇄소(현재 조계사 후문 맞은편 근린공원에 터만 남아있다)에서 3만 5000매를 인쇄해 발부했다.

스님의 가옥 서쪽으로 가회동사무소 자리에는 독립운동가 손병희의 집이 있었다. 남쪽 방향으로 지금의 헌법재판소에는 최린의 집이 있었다. 이들은 손병희의 집에서 1919년 2월 29일 밤, 민족 대표 23인이 거사를 앞두고 서로 의지를 다지기 위한 회동을 하기도 했다. 스님은 그날 밤 이 가옥에서 무슨 생각으로 잠을 청했을까?

스님이 이곳에 머문 시간은 1년이 채 되지 않지만 그 역사적 의미는 깊다. 2003년 12월 근현대 역사·문화 인물과 관련된 건물을 일괄 서울시 문화재로 등록예고할 당시 만해 가옥도 그 대열에 들었다. 2005년 12월 등록 예고를 했지만 2006년 12월 문화재 위원회에서 유보됐다. 유보 이유에 대해서 문화재청 관계자는 소유자등록반대나 민원제기 등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문화재청 배민성 근대문화재과 사무관은 "문화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1년 동안 소유자 설득 등 문화재 등록을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등록을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부결이 아닌 유보된 상태이므로 지자체에서 가치가 있다는 판단을 하거나 시민단체가 보존 가치를 발견한다면 언제든지 등록이 가능하다.

9월 2일 찾아간 만해 가옥은 문이 열려있었다. 외국인을 위한 게스트 하우스로 만드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내부를 새롭게 단장하는 중이었지만 본래의 모습은 점차 사라지고 있었다. 불교계의 관심이 아쉬웠다. '독일은 괴테가 하룻밤 머물렀던 여관조차 푯말을 세워 관리한다'는 말이 새삼 떠올랐다.

글=이상언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글 싣는 순서……

1. 만해와 '조선불교유신론'
2. 수행
3. 포교
4. 종단 및 사찰운영
5. 신행
6. 교육
7. 계율
8. 만해와 오늘의 불교
9. 소설-만해 스님

근대 한국불교 최고의 명저 『조선불교통사』 최초 완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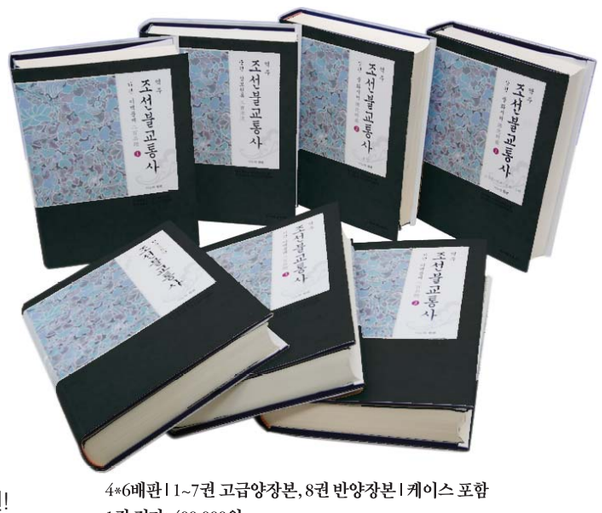
2010년 9월 10일,
『역주 조선불교통사』 전집이 드디어 출간됩니다!

1권 908쪽, **2권** 684쪽
상편「불화시처佛化時處」1, 2
삼국시대 불교 전래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조선 불교의 역사를 통사적으로 관통한다!

3권 904쪽
중편「삼보원류三寶源流」
부처님의 생애와 인도의 불전 결집,
중국의 역경사, 조선 선종 계보의 흐름까지 한눈에!

4권 768쪽, **5권** 792쪽, **6권** 792쪽
하편「이백품제二百品題」1, 2, 3
사상, 문화·예술, 인물, 사적 등
불교에 관한 다양한 관심사를 200여 편의 이야기로!

7권 1100쪽, **8권** 200쪽
원문개정판/총목차·색인집
전거를 바탕으로 원문의 오류를 바로잡은
개정판 『朝鮮佛教通史』와 전집 전체의 총목차·색인!


4*6배판 | 1~7권 고급양장본, 8권 반양장본 | 케이스 포함
1질 정가: 400,000원

이능화가 편찬하고 최남선이 교열한 『朝鮮佛教通史』는 삼국시대, 고려, 조선, 그리고 1916년 편찬 당시까지 한국불교사를 총망라하고 있다. 그러나 순한문체로 저술되어 지금까지도 그 전체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역주 조선불교통사』는 2002년 8월부터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에서 역주, 해제 작업을 시작해서 마침내 2010년 9월에 8권의 전집으로 완역하여 출간을 이루게 되었다.

『朝鮮佛教通史』 완역사업은 한국 불교학계와 역사학계의 화두이자 오랜 숙원이었다. 따라서 『朝鮮佛教通史』의 완역본인 『역주 조선불교통사』를 발간한 것은 한국불교사 연구의 한 획을 긋는 일대 전변轉變이라 할 만하다.

구입문의 : 전국유명서점, 인터넷서점, 불교전문서점
동국대학교출판부 02)2264-4705 / 4714

일 주 문



파라미타문화재지킴이 수기공모
파라미타청소년협회 회장 도후 스님은 10월 31일까지 문화재지킴이운동 활동 수기를 공모한다. (02)723-6165



조계사 법화경 특강
서울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은 9월 9일~11월 18일 매주 목 · 금요일 안심당 3층에서 법화경 특별강좌를 개최한다. (02)732-2183



오대산 전국학생백일장 공모전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10월 1일~11월 6일 전국의 초 · 중 · 고등학교 재학생 및 동등학력자를 대상으로 제7회 전국학생백일장 출품작을 공모한다.



마곡사 생명평화 1000일 기도 입재
공주 마곡사 주지 원혜 스님은 9월 8일 마곡사 대광보전에서 생명평화 발원 1000일 참회 관음기도를 봉행한다. (041)841-6220



월암 스님 선요 특별강좌
문경 용성선원 선원장 월암 스님은 9월 2일~11월 18일 부산 미타선원에서 매주 목요일 총 10강에 걸쳐 '선요' 특별강연을 펼친다. (051)253-8686.



능인선원 수륙재 봉행
능인선원 선원장 지광 스님은 9월 30일 망상해수욕장에서 능인대동수륙재를 봉행한다. (02)577-5800



사명대사 열반 400주기 추모재
밀양 표충사 주지 재경 스님은 10월 9일 표충사 대웅전에서 사명대사 열반 400주기 추모재를 봉행한다. (055)352-4129



불교 · 사회 포럼 특별 발표회
민병천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9월 8일 마포 다보빌딩에서 '불교와 사회 포럼 특별 발표회'를 개최한다. (02)719-1855



행원문화상 시상식
주영운 행원문화재단 이사장은 9월 14일 역삼동 대려도에서 제19회 행원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불교생활의례원 염불봉사교육
배관성 불교생활의례원 이사장은 9월 7일부터 1월 25일까지 매주 화요일 제4기 불교상장례 염불 봉사자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02)720-1079

■ 교육부장 법인 스님, 중간브리핑 통해 종도에 호소

승가교육 개선 선택 아닌 '명운'

"상반기 동안 다양하게 논의됐던 승가교육 개선 내용을 수렴해 9월부터는 그 내용을 진전시키고 법과 제도를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 법인 스님은 9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승가대학 교과목 개편 시행 및 각종 승가대학원 설립 추진에 대한 중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스님은 "'전 종도에게 평생교육을 통해 범부를 성현으로 만들어 나가라'는 종정 예하의 신년교시와 '교육과 포교를 통한 불교중흥'이라는 제33대 집행부의 원력에 따라 교육원은 지난 8개월 동안 승가교육 개선을 위해 진력해왔다"고 말했다.

법인 스님은 "'사회와 역사에 부응하고 자비를 구현하는 승가교육'을 위해 교육원은 10여 차례 이상 다양한 공론의 장을 열어 왔다. 이를 통해 승가교육 개선의 절박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인됐고, 교육기관 및 관계자들의 우려 가득한 목소리 또한 들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 법인 스님

교육원은 그동안 교육위원회 회의, 교육원 · 교육위원회 · 교육분과위원회 연석회의, 전문교육기관설립(안) 마련 세미나, 승가교육진흥위원회 회의, 각종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왔다.

스님은 "어떤 경우에는 확정되지도 않고 논의 중이거나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내용을 갖고 이해관계자들이 사실 확인 없이 입장을 표명하는 상황도 목도했다. 이런 모습 또한 승가교육 개선에 대한 종도의 열망이 높다는 반증이기에 긍정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승가교육개선은 선택이 아닌 종단과 불교의 명운이 걸린 일입니다. 우리 승단이 승가교육 개선에 관한 문제를 결단하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불조의 혜명을 이어가기 어려운 현실이 도래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조동섭 기자

사찰, 돈 받으려면 감동 줘라

김재일 소장, 불사심의위원회 설립 등 강조

"문화재관람료가 됐건,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가 됐건 사찰이 돈을 받으려면 그 이상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조계종 환경위원 및 국립공원 위원인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 소장(사진)는 자연공원법 개정안 발의 소식에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문화재관람료 등을 징수하면서 사찰은 관람객에게 돈만 받을 줄 알았지 베푼 것은 없다"며 "생태 · 문화적 시점에서 사찰 탐방 프로그램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연공원 내 전통사찰의 불사가 자유스러워지는데 대해서도 크게 우려했다.

"불교계는 규제를 풀어달라고만 했지 이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기구가 없습니다. 불사심의위원회도 총무원장 선거 때마다 공약사항으로 언급만 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고 운영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김재일 대표는 "일부 스님들은 '정부가 (불사 하라고) 규제를 풀어줬는데 무슨 불사심의위원회냐'고 불사를 자율규제할 기구를 언급하는 것조차 불쾌해하는 것이 불교계의 정서"라고 지적했다.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 소장

김 대표는 "오랜 세월 지켜져 내려온 수행환경 보전 등을 위해서는 불교계 내부에서 불사 등 개발 행위에 대해 자율과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자연공원법 개정안 발의에 맞춰 불사심의위원회를 설립 ·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불국사 주지 선출 선거로 치러질 전망

조계종 제11교구본사 경주 불국사 주지 선출이 그동안 선거 없이 합의추대하던 관례를 깨고 선거로 치러질 전망이다.

제11교구본사 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1일까지 주지후보 접수를 진행한 결과 현 주지 성타 스님과 경주 기림사 주지 종광 스님, 포항 죽림정사 주지 종문 스님, 오어사 주지 장주 스님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불국사는 월산 스님 문하의 단일권속으로 이뤄져 문중화합 등을 이유로 본사 주지의 합의추대는 불문율에 가까웠다. 하지만 최근 문중 내 실세인 前 주지 종상 스님에 대한 반발이 대중스님 사이에서 커지면서 1인 독주체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합의추대 되던 주지 선출이 선거로까지 이어지게 됐다는 후문이다.

한편, 불국사의 새 주지후보자를 선출할 산중총회는 9월 9일 오후 1시 불국사에서 개최된다.

조동섭 기자

■ 혜종 · 덕화 · 지족 스님 승정 추대

태고종 승정 추대식 및 법계 품서식

혜종 · 덕화 · 지족 스님 등 태고종의 세 원로의원 스님이 승정에 추대됐다.

태고종(총무원장 인공)은 8월 30일 한국불교전승관에서 승정 추대식을 봉행했다.

이날 승정에 추대된 혜종 스님은 종도들을 위한 지혜말씀을 통해 "여생을 불법홍포와 종단발전을 위해 올곧게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덕화 스님은 "종단의 상징적인 자리에 임하니 어깨가 무겁다"며 "말에 책임지는 자세와 종도들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족 스님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종단발전과 중생제도에 한 치도 흐트러짐 없이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총무원장 인공 스님은 축하말씀에서 "승정에 추대된 혜종 · 덕화 · 지족 스님은 혜행(慧行)이 탁월하고 비지(悲智)가 원융한 고승으로 종도의 표상이 되는 정신적 지도자"라며 "혼란스런 세태에 종단 지도자로서 종단 기강 확립과 종단 발전을 위해 기여해 주시길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8월 30일 태고종 승정에 추대된 지족 스님, 혜종 스님, 덕화 스님(왼쪽부터)

태고종 종헌종법상 승정은 종단 주요 간부를 역임하거나 종도의 사표가 되는 세수 65세 이상 법랍 45세 이상 법계 종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종단 원로 가운데, 총무원 종무회의의 결의를 거쳐 총무원장이 추대하며, 종도의 수행을 지도하고 종지종풍 선양을 위한 정진에 헌신한다. 현재 태고종에는 16명의 승정이 있고, 임기는 추대된 날로부터 종신이다.

한편, 태고종은 8월 30~31일 한국불교전승관 대불보전에서 제11차 법계품서식을 봉행했다. 법계 품서식에서는 39명에게 종사 법계가, 31일에는 종덕(63명), 대덕(48명), 중덕(77명), 선덕(42명) 법계가 각각 품서됐다.

조동섭 기자

아름다운동행에 건강음료 기부

주식회사 비락

주식회사 비락(대표이사 강종구)은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칡즙 등 건강음료 600박스(2000만원 상당)를 기부했다.

기부받은 건강음료는 '비락 전통 칡즙 400박스'와 '자연예찬 복분자 200박스'로 총 14400명이 음용할 수 있다.

강종구 대표는 "비락은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올여름 폭염으로 지쳤을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부물품을 전달받은 아름다운동행은 9월 2일 어르신들이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종로노인복지관, 광진푸드마켓 등 총 6곳의 복지시설에 각 100박스씩 배분했다.

이나은 기자

민족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 02.732.2403~4 F. 02.739.7565
minjoksa@chol.com www.minjoksa.org

보경 스님의 희로애락 세상보기

이야기 숲을 거닐다

동서고금의 이야기 숲에서 건져낸, 보경 스님이 들려주는
삶의 기쁨 · 분노 · 슬픔 · 즐거움의 지혜 !



이야기는 반복에 묘미가 있다.
기도도 마찬가지다.
삶이 부족한 사람은 일러줘도 알아듣지 못한다.
그렇다면 깨우칠 때까지 잔소리를 들어야 한다.
특히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행복한 영혼을
꿈꾸게 하는 마법과 같다.
상상의 안개가 가득 가득 피어야
정신이 건강해진다.

난 이야기가 좋다!

보경 스님 지음 | 도서출판 민족사
국판 (140×210mm) 280쪽 | 본문 2도 | 값 12,000원

백제 능사 되살아나다

11일 개원법회
세계대백제대전서 재현



복원된 백제시대의 가람 부여 능산리사지(능사)의 전경.

국보 제287호 백제금동대향로와 국보 제288호 창왕명석조사리감 등이 출토됐던 부여 능산리사지(이하 능사)가 복원돼 찬란했던 백제 불교 문화를 선보인다.

공주 마곡사(주지 원혜)는 9월 11일 오후 1시 부여 백제재현단지 능사 대법당 앞 무대에서 백제능사 삼존불 점안식 및 개원대법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9월 18일~10월 17일 충남 부여군 및 공주시 일원에서 열리는 세계대백제전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점안식은 오후 1시 증명법사인 주지 원혜 스님과 조계종 어산스님 3명이 진행한다. 오후 2시부터는 능사 대법당 앞 무대에서 개원대법회가 봉행된다. 개원대법회에서는 세계대백제전 조직위원회의 경과보고와 원혜 스님의 인사말, 총무원장스님의 치사, 정부 · 지역 · 정치인 등의 축사, 대전충남포교사단의 발원문 등이 진행된다.

이에 앞선 10일 오전 9시에는 복장의식 법사단이 복장 성물 봉안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능사는 2003~2009년 부여 금성산 출토 청동소탑 유물과 국내 최고(最古) 목조건축물인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화엄사 각황전 등을 참고해 중문과 5층목탑, 금당, 강당, 익사, 회랑 등 13동의 건물이 복원됐다.

마곡사는 능사에 세계대백제대전이 열리는 기간 동안 스님을 파견해 템플라이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점안식을 계기로 백제불교의 정통성을 계승한 능사 복원을 선포하고 국태민안 등을 기원하는 기도를 봉행한다. 전통사찰 · 불교문화를 연계한 관광 문화상품을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마곡사 주지 원혜 스님은 "능사 복원은 찬란했던 백제불교문화를 되살리는 것 뿐만 아니라 삼국시대 건축양식을 현대에 최초로 재현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역사적 고증을 거쳐 복원된 능사를 통해 백제불교 및 문화를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특히 스님은 "능사는 백제재현단지 건설과 세계대백제전을 위한 수호사지 성격을 띄고 있다"며 "능사 개원법회를 시작으로 세계대백제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능사의 운영 주체를 두고 불교계가 아닌 충남도가 직영 관리하는 것으로 전해져 불자들의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능사는 충남도가 280여 억원을 투입해 복원됐다. 삼국시대 사찰로 처음 재현되는 능사 재현에 거는 교계 안팎의 기대는 크다. 그러나 정작 재현된 사찰의 운영은 당분간 불교계가 맡지 못할 것으로 보여 불자들의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조계종 내에서만 수덕사와 마곡사가 운영 의사를 강하게 내비치며 갈등의 기미를 보인데다가 태고종 천태종 등 여러 종단들이 운영 의사를 피력해 오는 등 운영권 확보 경쟁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는 충남도가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를 통해 직영 운영하기로 결정한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마곡사가 11일 점안 및 개원 대법회를 봉행하겠다고 나선 것은 능사의 운영권을 충남도로부터 양도받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세계대백제전

세계대백제전은 '1400년전 대백제의 부활'을 주제로 열린다.

부여 지역 행사는 주행사장인 백제문화단지 행사장(무왕과 선화공주의 혼례식, 어린이 수문병 교대식 등)과 낙화암 수상공연장(수상공연 '사비미르'), 왕흥사지 행사장(백제무예체험 등), 구드래 행사장(백제대왕 행차 재현 등), 궁남로(서동 · 선화 나이트퍼레이드 등), 국립부여박물관(백제유물특별전), 논산천 둔치(황산벌 전투 재현) 등에서 진행된다.

공주 지역 행사는 고마나루 예술마당 행사장(세계역사도시전시관, 백제문화유산 디지털 상영 등)을 주행사장으로, 고마나루 수상 공연장(수상공연 '사마이야기'), 국립공주박물관(백제유물특별전), 무령왕릉(무령왕 이야기 등), 금강 둔치(백제 등불향연 등), 공산성 행사장(희망등 달기 등)이 펼쳐진다.

능사(陵寺)는 능산리사지의 줄임말이다. (041)857-6955

불교귀농학교 한방 약차강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불교귀농학교 총동문회는 하반기 한방 약차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강좌는 약재의 가격, 용도, 효과 및 약식, 약주 등 한약재를 생활에서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강의를 진행하는 김선태 삼인제약 대표이사는 9월 1일 3번째 강의에서 황기당삼차, 국화구기자차를 소개했다. 김선태 대표이사는 황기당삼차를 설명하면서 "황기는 모래에서 자라기 때문에 얇은 것이 좋다. 국산 황기는 백색을 띄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깨끗해 보이는 것을 좋아해 유황으로 희게 만든다. 중국산은 누런색을 띄지만 수입과정에서 농약을 상당량 뿌린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좌 중간에는 참자자들이 궁금해하는 약재에 대한 설명으로 관심을 더했다. 그는 "인삼에 뿌려지는 농약은 휘발성이기 때문에 끓이면 되고, 구기자는 따자마자 몰려드는 날파리를 죽이기 위해 살충제를 뿌린다"는 등의 정보도 제공했다.

강좌는 매달 첫째, 셋째 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신정동 인드라망 교육도량에서 진행된다. (02)576-1886

이상언 기자

조동종 덕찬 스님 종정 취임

부종정에 덕룡 스님… "묵조선 본분으로 참된 세상 만들자"

대한불교조동종은 9월 1일 총무원인 상계동 도선사에서 종단 임원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제5세 종정 덕찬 스님과 제4대 부종정 덕룡 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취임법회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묵조선풍의 진작을 위해 수행과 전법의 모범을 보여준 덕찬 · 덕룡 스님의 취임을 봉축했다. (02)2091-0408

조동섭 기자



100자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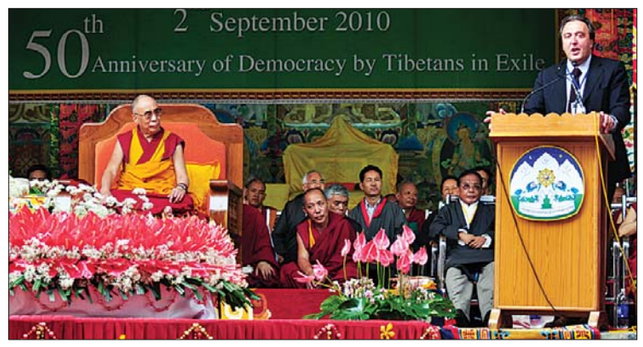
명주사 고판화박물관 현장체험학습지정기관 돼

치악산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은 8월 30일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현장체험학습지정기관-기본이 바로 된 어린이 현장체험 학습지정기관'에 선정됐다.

한선학 관장은 "고판화박물관은 국내 유일의 판화 박물관으로 판화 체험교육을 통해 민족정체성을 함양하고 창의성 교육을 완성하는 체험학습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며 "이번에 서울시 체험학습교육기관으로 선정돼 꿈과 이이디어를 찾는 창의성 교육의 산실로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티베트 망명 민주정부 수립 50주년 기념행사



티베트 망명 민주정부 수립 50주년 기념 행사가 9월 2일 남인도 벨라쿠피 '세라 제(SERA JEY) 사원'에서 거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유럽의회(EC) 27개국 의원이 공식 내빈으로 참석했다.

인도 벨라쿠피=가연숙 객원기자

동산불교대 졸업식 전원 포교사로 활동

동산불교대학(학장 무진장, 이사장 안동일)은 8월 29일 동산불교회관에서 제33회 졸업식을 개최했다. 졸업생 47명 전원은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통해 포교사로 활동하게 됐다.

동산불교대학 학장 무진장 스님(조계종 원로위원)은 법어에서 "불자들도 오계를 실천하지 않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며 "오계를 수지하고 실천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안동일 이사장은 격려사에서 "동산불교대학에서 배우고 익힌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대중에게 알리고 포교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언 기자

보현사 원봉장학회 2010 장학생 선발 공고

청주 보현사(주지 원봉, 태고종 중앙종회 의장)는 9월 16일까지 제2회 원봉장학회 장학생을 선발한다.

장학생은 충북지역 거주 중학교 재학 이상 학생 중 각 사찰 주지의 추천을 받은 자 가운데 성적을 우선으로 선발한다. 올해에는 불우학생이나 소년소녀가장 4명을 성적과 무관하게 선발하고, 동방불교대학생 2명도 선정키로 했다. (043)259-4926

혜철 충청지사장

연화조계종 총무원 개원법회 및 현판식

사단법인 한국불교연화조계종(종정 연화)은 8월 30일 구암산 구운사 극락보전에서 총무원 개원법회 및 현판식을 개최했다.

종정 연화 스님은 법어에서 "한국불교연화조계종이 금일 총무원 개원 및 현판식을 계기로 깨끗한 종풍진작과 거짓 없고 청정하며 질적으로도 뛰어난 수행을 지향하는 우수한 종단으로 거듭나자"고 말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군승정체성 강화 수련회 열려

대한민국 군 포교의 주역인 군승의 정체성 확립과 사기진작을 위한 하계 수련회와 하안거 포살법회가 부산 범어사에서 열렸다.

현역 군승과 군 사찰 지원 비구니 스님 등 총 150여 명이 동참한 2010 군승 하계수련회 및 포살법회는 군포교 전문화와 군승 간 일체감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8월 31일부터 9월 2일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됐다.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은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 시기에 군승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전문화되고 체계화 된 군포교로 교구와 군 불교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東大 경주캠퍼스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총장 손동진)는 에너지공학관에 10kW용량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지난 9월 1일 준공식을 개최했다.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면적은 약 162㎡(50평)으로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김병문)의 신재생에너지 일반보급사업의 지원으로 설치된 것이다. 발전설비는 학생들의 신재생 현장실습 교육과 에너지공학관 자체 전력 생산에 활용된다.

손동진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앞으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여 친환경 그린캠퍼스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가난의 상처 하루빨리 아물길…

생명나눔, 9월 치료비 지원 선정환자 열탕화상 박기현군


박기현(11세)군은 열탕화상으로 새끼손가락을 절단하게 되면서 팔이 펴지지 않고 뼈가 꺾어지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

생후 7개월 때 뜨거운 목욕물에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 전체에 열탕화상을 입은 기현이는 당시 새끼손가락을 절단하게 됐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화상을 입고도 적절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고 긴급한 수술만 간간히 받다 보니, 요즘 부쩍 성장하고 있는 기현이는 몸을 지탱을 할 수 없게 됐다. 관절 구축으로 팔이 펴지지 않고, 뼈가 꺾어지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

기현이 할머니(75세)는 손자의 팔이 뒤틀리게 된 것이 돈이 없어 제때 치료해주지 못한 당신 탓이라며 눈시울을 적신다. 가난 때문에 수술을 미루다가 더 이상 미루면 팔이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말에, 얼마 전 구축된 피부를 절개하고 팔을 펴는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비 600만원은 할머니가 감당하기에 너무 큰 비용이다. 시골에 작은 농가주택이 있어 집 걱정은 없지만, 농가부채 1천만원의 이자는 날로 늘어만 가고 수입이라고는 정부지원금 38만원이 전부인 상태라, 기현이 수술로 발생한 600만원의 수술비 마련은 엄두조차 나질 않는다.

기현이는 작은 시골마을에서 할머니와 8살 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 엄마는 5년 전 기현이 곁을 떠나 소식이 없고, 너무나 그리운 아빠도 따로 지내고 있어 기현이네 가족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 그래도 할머니는 손주들 때문에 하루하루를 버틴다고 한다. 할머니에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기현이가 가난에 힘겨워하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봐 주는 것이다. 가난으로 얻은 상처가 행여 손주에게 큰 아픔이 될까봐 걱정하는 할머니의 가슴이 저려온다.

그런 할머니의 마음을 아는지, 기현이는 수술 후 통증이 심하고 아직 여러 차례의 수술을 더 받아야 하지만 기분만은 최고란다. 수술이 잘 돼서 앞으로 쭉 펴진 팔로 동생도 돌봐주고 좋아하는 게임도 할 수 있다는 기대에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꿈이라는 기현이, 가난으로 얻은 상처가 마음의 상처로 남지 않도록 기현이의 수술비 마련에 불자들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 예금주: 생명나눔 (02)734-8050

이나은 기자

천태종 제천한방엑스포 업무협력

2일 조직위원회와 MOU 체결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이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제천한방엑스포 업무협약 체결 후 악수를 하고 있다.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은 9월 2일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이수성)와 엑스포 성공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천태종이 엑스포 홍보 및 관람객 유치에 힘을 쏟고, 엑스포조직위원회는 최대한의 관람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행사에서 정산 스님은 "이웃 단양에 총본산이 위치하는 만큼 관심을 갖고 도울 방안을 고민하다 홍보를 맡기로 했다"고 협약 체결의 의의를 밝혔다.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는 9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충북 제천시 왕암동에서 열린다. 53만㎡의 전시장 규모는 한방을 주제로 한 세계 최대 규모다.

조동섭 기자

전북불교대학 하계특강 개최

전북불교대학(학장 한광수)이 진행한 하계특강이 서명원 신부의 강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전북불교대학은 7 · 8월동안 △옹산 스님(예산 수덕사 주지) –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뜬다 △대원 스님(공주 학림사 조실) – 선과 깨달음 △서명원 신부(서강대 종교학과 교수) – 선의 본질과 선 수행담 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기간동안에는 150명이 넘는 학인들이 수강해 완산불교회관 4층 법당을 가득 메우고 학구열을 올렸다.

전북불교대학은 매년 하계 · 동계 특강을 실시해오고 있다.

조동섭 기자

파키스탄 긴급구호기금 전달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은 파키스탄에 수해 재난 긴급구호기금 5만 달러를 전달했다.

자승 스님은 9월 3일 한국전통불교문화박물관 4층 접견실에서 쇼캇 알리 무카담 신임 주한 파키스탄 대사에게 긴급구호기금을 전달했다.

8월 비피해를 입은 파키스탄은 2000만 여 이재민이 발생하고, 2000여 명이 사망했다. 파키스탄 대사는 "최근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자승 스님은 피해 상황을 들은 후 애도를 표하고 사회부장 혜경 스님은 "2차 긴급구호기금이 마련되는 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언 기자

DMZ 함께 걷기 명상 행사

단절의 상징이자 천혜자원의 보고인 DMZ를 내 · 외국인이 함께 걷기명상을 하는 행사가 열린다.

선문화 진흥원(원장 강진구)은 9월 12일 임진각 등지에서 DMZ걷기 행사인 '지구야 미안해'를 진행한다. 사람과 사람간의 화해와 소통을 위해 '사랑의 엽서 캠페인'을 1년 넘게 진행해온 선문화 진흥원은 온난화로 위기에 처한 지구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간에 화해와 상생을 모색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현재까지 내 · 외국인 300여 명이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일본에서 동아시아 역사를 전공하는 교수와 대학생 수십 여 명이 입국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 참가자는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정서교감 프로그램인 걷기명상과 아트메디테이션(그리기 명상), 춤명상 등에 참여하게 된다. 참가 희망자는 트위터(@DMZwalk)와 임진각 평화누리 홈페이지(http://peace.ethankyou.co.kr)를 참고하면 된다.

이나은 기자

조계종구호봉사대 긴급 파견

태풍 곤파스 피해 긴급재난구호봉사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도심지역과 서해안 일대의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대오)은 9월 2일 태안지역에 긴급재난구호봉사대를 파견했다.

복지재단은 "수덕사에는 100년 이상 된 소나무 5~6그루가 쓰러졌고 흥주사에는 쓰러진 나무가 산신각을 덮쳤다"며 "태풍으로 태안지역 사찰의 상당수가 전기가 끊기고 나무가 쓰러지고 기와가 무너지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환 사무국장 외 5명으로 이루어진 긴급재난구호봉사대 선발진은 현장조사를 통해 운력에 참여중인 스님들과 함께 사찰신도들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봉사단을 조직해 신속한 피해복구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과 함께 자원봉사단 파견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나은 기자

공불련 임원 템플스테이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하복동)은 8월 28~29일 문경 대승사에서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한 공불련 임원 및 각 기관 불자회 임원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 동참한 임원 및 21개 기관 불자회 임원 92명은 10월 9~10일 개최되는 공불련 10주년 행사에 적극 동참 협조하기로 결의했다.

이상언 기자

우주의 큰 빛으로 오신 관세음보살님의 메시지

몸과 마음과 영혼을 빛으로 치유한다

이 빛을 받는 자 영원히 행복하고 평화로울 지어다.
너와 내가 따로가 아니며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명심하고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하느니라.
나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자이며 또한 무한한 힘을 가진 자이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하는 힘이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바르고 곧게 자라게 하는 힘이며 인간들의 마음과 정신을 정화하여 건강하게 만들며 육체 또한 건강하게 만드는 절대적인 힘이니라.
개인은 물론 가정과 나라와 지구촌의 모든 인간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평화를 주는 힘이니라.
나의 힘을 光大力이라 할 것이며 이 힘을 받는 자는 나와 하나가 되고 인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인간들에 앞장서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느니라.
또한 이 빛을 받고자 하는 이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어 마음과 정신과 육체가 건강하여 기쁨과 행복과 평화로움 속에서 살지어다.
이 빛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고자하는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하며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빛을 받는 자 영원히 행복하고 평화로울 지어다.
산 자나 죽은 자나 영혼이 살아 있음은 분명하니 모든 인간들이 그것을 깨달아 산 자와 죽은 자의 모든 영혼들을 맑고 깨끗하게 정화하여 평화로운 이 세상을 만들어야 할 지어다.
나는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만든 빛이며 또한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는 빛이고 힘이다.
넓고 높은 깊은 마음 나와 비교할 것이 없으며 모든 인간들은 늘 항상 나와 함께하며 나와 같은 마음을 지녀야 하느니라. 사랑과 자비를 인간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빛이고 힘이니라.

※ 우주의 빛과 통할 수 있는 방법을 전수해 드립니다.

현교빛치유센터 원장 김건희
예약문의 : 02)568-3778 / 010-2648-3778 (오전 9시~오후 8시)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한국불교, 상좌불교와 접합점은?

'불교평론' 10일 '상좌불교 포용' 학술심포지엄

간화선과 대승불교를 표방해온 한국불교계에 한계를 느낀 일부 출가수행자들은 1990년대 위빠사나 수행을 위해 미얀마 등 남방으로 떠났다.

현재 그들 중 다수가 국내에 들어와 위빠사나 등 상좌불교의 수행을 가르치고 있다. 또 최근 들어 빨리어를 번역한 초기경전서들이 많은 대중들에게 읽히고 있는 추세다. 한마디로 한국불교계에 남방불교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한국불교가 현재 교리 · 사상적으로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초기경전을 바탕으로 하는 상좌불교의 확산으로 교리와 사상, 신행에서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한다.

이런 가운데 상좌불교와 한국불교와의 만남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된다.

계간 <불교평론>은 9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상좌불교, 무시할 것인가 포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화엄학림 강사인 재연 스님은 '한국불교가 당면한 교리 · 사상적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는다. 인도 뿌나대학에서 빨리어를 전공한 재연 스님은 통불교(通佛敎)를 자처하는 한국불교를 △계율을 소홀히 여기는 일반적 풍조 △교학과 특정 교리의 역사적 이해 부족 △수행과 일상생활의 괴리 등의 문제점을 들어 지적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을 남방불교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어 마성 스님(빨리문헌연구소장)이 '한국불교와 상좌불교의 만남의 역사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마성 스님은 △고 · 중세 남방불교의 전래설 △근현대 상좌불교와의 만남 △한국에서의 상좌불교 도입 시기를 고찰하고 한국불교와 상좌불교의 입장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한다.

조준호 고려대 철학연구소 연구교수는 '불교 경전의 결집 과정과 논쟁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조 연구교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종합하고 교정하는 경전 편찬 회의인 '결집(結集)'을 빨리 전승의 문헌에서 전하는 세 차례의 결집을 중심으로 살핀 후, 현재 불교 경전의 새로운 결집을 위한 형식과 내용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할 계획이다.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는 '상좌불교 공동체의 계율은 여전히 유효한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박 교수는 상좌불교와 승가공동체의 계율이 재가자 공동체와 시민사회로 영향을 미칠 때 어떤 의미와 유효성을 지니는지 고찰하며, 한국적 시민사회속에서 도덕담론이 지니는 의미와 한계에 관한 논의도 다룰 예정이다.

박경준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는 '빨리어 경전과 대승경전의 사상적 차이'를 주제로 발표한다. 박 교수는 부처님의 원음을 담고 있는 가장 오래된 경전 중의 하나인 <숫따니빠따>와 대승불교의 특성이 집약된 <법화경>을 중심으로 △개요 △구성과 형식 △불타관 △사상적 차이 등을 비교한다.

이병욱 중앙승가대 강사는 '간화산과 위빠사나의 비교'를 주제로 간화선과 위빠사나의 개념과 수행법을 설명하고 이 둘의 공통점을 찾아 서로 보완할 점을 모색한다.

이도흠 한양대 국어국문학 교수는 '틱낫한이 서양에 영향을 끼친 까닭과 배울 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 교수는 임제종의 법맥을 잇고, 초기경전에 근거한 마음챙김 수행을 추구하는 틱낫한 스님이 서양인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을 스님의 능력과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맥락이 작용한 점을 예로 들어 스님의 사상과 수행법을 고찰한다.

이나은 기자

세계 최고 금속활자 바뀌나

<最古>
'증도가자' 직지보다 138년 앞서… 남권희 교수 공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목판인쇄물로 알려진 직지심체요절(이하 직지)보다 최소 138년 이상 앞선 금속활자 실물이 공개됐다. 이 금속활자가 세계 최고(最古)로 공인되면 세계 인쇄술 역사가 바뀌게 된다.

남권희 경북대 교수(한국서지학회 회장)는 9월 2일 서울 인사동 다보성고미술에서 설명회를 열고 "다보성고미술이 소장한 금속활자 100여 점을 조사한 결과, 이 중 12점이 1377년 간행된 직지보다 앞선 13세기 초 '(가칭)증도가자'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남 교수가 '(가칭)증도가자'로 이름 붙인 금속활자 12점은 △明(명) △所(소) △於(어) △善(보) △善(선) △平(평) △方(방) △法(법) △我(아) △福(복) △不(불) △子(자)자이다.

이들 활자는 삼성출판박물관 소장품 중 고려 고종 26년(1239) 금속활자본을 목판본으로 복각한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尙頌證道歌 · 보물 제758호 · 이하 증도가)>의 글자체와 완전히 일치한다.

목판본 <증도가>에 권말에서 당시 무신정권 최고 권력자 최이(崔怡)는 "더 이상 전해지지 않는 금속활자본 <증도가>를 목판으로 복각해서 찍어냈다"고 적었다.

남권희 교수는 "지방에서 밀랍 주조 방식으로 제조된 <직지>와 달리 '증도가자'는 중앙에서 구리 등을 주성분으로 제조됐다"며 "제작 및 사용 시기는 13~14세기로 <증도가> 뿐 아니라 13세기 당시의 다른 책과 같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1377년 찍은 <직지>를 비롯해 11세기 중국 송나라 때 사용됐다는 교니활자(진흙, 아교)나 13~14세기 원나라 때 쓰였다는 목활자 등은 활자 실물이 없는데 반해, '증도가자'는 실물이 확실해 큰 의의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증도가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책으로 알려진 <직지>보다 최소 138년 이상 앞선 금속활자"라며 "세계 기록문화 역사를 다시 쓸 세계적인 우리의 문화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남권희 교수가 '증도가자'로 이름 붙인 금속활자 중 明(명) · 不(불) · 자(子)자.

한편, '증도가자'는 일본 강점기 무렵 출토돼 일본인 수장가자 가져갔던 것으로 추정된다. 광복과 함께 일본으로 유출됐던 것을 10여 년 전 국내의 개인 수장가가 매입해 들여왔다.

다보성고미술은 10월 15일까지 '우리문화 유산의 지혜와 멋' 특별전에서 '증도가자' 등 300 여 점을 전시 중이다. (02)730-5601

조동섭 기자

□ '증도가자' 진본이라면…

구텐베르그의 <성경>보다 조성연도가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직지>와 달리, '증도가자'는 활자 실물이 있어 제작연대만 밝혀지면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가 되는 것.

'증도가자'를 발견 · 명명한 남권희 경북대 교수는 9월 2일 다보성미술관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5년간 연구 끝에 '증도가자'가 진본임을 확신한다. 학계가 함께 연구하자는 뜻에서 미리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남권희 교수는 '증도가자'가 △활자의 높이가 7~8㎜로 기존에 공개된 고려 및 조선시대 금속활자와 일치하고 △활자에 먹과 흙이 남아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고려 활자인 '복' 활자와 크기와 제작 성분이 유사하다 등의 이유로 진본임을 주장했다.

남 교수는 "시중의 가짜들은 7㎜ 높이를 맞추지 못할뿐더러, 획과 획 사이를 이처럼 깊이 파지도 못한다"며 "옛 장인 수준의 위작을 만들어내기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문화재위원인 이오희 한국전통문화학교 석좌교수는 "기존 고려시대 금속활자라고 해야 국립중앙박물관과 북한 개성력사박물관이 소장한 두 점이 전부라 보존과학적으로 비교가 쉽지는 않지만 지하에서 발굴된 청동유물에서 나타나는 파라타카마이트 녹이 발견됐다는 점에서 괜찮게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석좌교수는 "구리가 주성분인 청동활자의 연대측정은 불가능하다. 활자에 묻은 먹은 탄소연대측정을 할 수 있지만 그 양이 너무 적어서 이마저도 어렵다. '증도가자'의 연대는 과학으로는 풀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증도가자'의 출처가 불분명한 것도 최고 활자로 인정받기 위해 학계가 풀어야 할 숙제이다. 개성 인근에서 흘러나와 일본인 소장가 등을 거쳐 김종춘 고미술협회장이 수집했다고만 전할 뿐 출토 당시 어떤 지층에서 나왔는지, 어떤 유물들과 함께 출토됐는지 등의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불교학연구회 등 학술행사 다채

불교학연구회 · 불광연구원 11일, 선리연구원 27일

무더운 여름이 지나간 9월, 불교학계에서는 다양한 학술행사가 열린다.

불교학연구회(회장 본각)는 9월 11일 오후 2시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가을 논문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오인 스님(일본 교토 불교대학 박사학위)이 '불교문화의 재구성'을 주제로, 양혜원(서울대 국사학과 박사과정)씨가 '16세기 안동지역 불우(佛宇)의 존재양상 변화와 그 의미'를 주제로, 김정림(원광대학교 불교학과 박사수료)씨가 '베다 점성학에서의 달의 교점(Nodes)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한다.

불교문화를 전공한 오인 스님은 불교문화에 대한 종래의 연구방법에서 탈피해 새로운 시각으로 불교문화를 해석하고자 했다.

스님은 불교문화를 조각, 회화, 음악, 문학, 공예 등으로 분류하던 기존의 방식을 불교문화의 삼원이론을 바탕으로 재구성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오인 스님은 불문화층, 법문화층, 승문화층, 불법문화층, 불승문화층, 법승문화층, 불법승문화층(삼보문화층) 등 7개 문화층에서 각각의 문화층을 다시 조각, 회화, 음악, 문학, 공예, 기타로 세분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제시하며 "긴 세월 동안 각국으로 전래와 변용의 단계를 거쳐 형성된 다양한 불교사상의 근간은 삼보(三寶)이므로 불교문화에 대한 연구 또한 삼보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선불교사를 전공한 양혜원 씨는 산문불교시대라 일컬어졌던 조선시대 16세기 당시 중앙 행정과 당대 사상계를 선도하던 해당 지역 성리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안동지역의 향촌사회를 고찰한다.

양 씨는 특히 불교와 관련해 향촌에 위치한 각종 시설, 대표적으로 불우(佛宇)의 변화를 살피며 16세기 조선시대 지역사회에서 지배층과 민중의 의식에서 불교가 어느 정도로 탈각되고 있는지 인식변화를 조명한다.

요가학을 전공한 김정림 씨는 고대 인도에서 전승되어온 베다 점성학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카르마를 설명해주는 달과 달의 교점이 어떻게 카르마(業)와 상관을 지니는지 분석한다.

불광연구원은 9월 11일 오후 2시 잠실 불광사 교육원에서 제3차 학술연찬회를 개최한다. '보현행원의 길, 정토왕생의 길'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최원섭 연구원(성철사상연구원)이 '광덕스님의 보현행원 사상'을, 김영진 연구교수(인하대 한국학연구소)가 '바라밀염송과 법신염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은 9월 27일 오후 4시 선학원 2층 회의실에서 제12차 월례발표회를 개최한다.

남궁선(동국대 불교학 박사)씨가 '공업사상(共業思想)의 연원과 사회실천적 전개'를 주제로, 장희정(대청호미술관 학예사)씨가 '돈황 막고굴 제196굴 노도차투성(勞度叉鬪城) 변상도의 양식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나은 기자

불교 전통의식 3기 수강생 모집

단기 속성 – 3개월 과정
(범음 범패 – 1년 과정)

불광불교대학에서는 예불, 불공, 천도재 등 각 사찰에서 행해지는 불교의식을 교육하고자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 안내

- 입학자격 : 스님, 남 • 녀 재가 불자 및 불교의식을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사찰 및 포교원 개원 하실 분(종단 등록 가능), 수료 후 법사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분
  《초심자 및 재가 불자 환영》
- 개강일시 : **2010년 10월 6일(수요일) 오후 2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수요일 • 토요일 오후 2시 ~ 5시**
- 강의장소 : 도동 불광불교대학

2. 교육내용

▸ 단기 속성(3개월)과정 : 도량석, 조석종성, 상단예불, 각단예불, 신중청, 관음청, 지장청 등
천도재, 49재, 시달림, 관음시식, 화엄시식
(사물 – 북, 요령, 목탁)

▸ 1년(법사과정) 과정 : 천도의식(범음범패) –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 옹호게, 상단권공 및 천수바라, 사다라니, 도량게

특강 : 승무, 살풀이(무형문화제 제7호 전수자 류희연 개인지도)

※ 초심자에게 불교전통의식 방법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함

3. 접 수 처 : 불광불교대학 종무소(053-986-1080)

4. 제출서류 :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도동 불광불교대학

대구광역시 동구 도동 44 (팔공IC 5분거리) ☎ 053)986-1080 / 010-5470-8730

日用 齋 儀式 受講生 모집

조계종 어산 · 범패 · 작법 보존회에서는 대한불교 조계종 어장 동주원명스님을 모시고 안채비(일용 권공 · 법당 내 의식)를 중심으로 한 불전예식 및 재 의식 교육을 시작합니다. 이에 불교 의식에 관심 있는 學僧들을 모집합니다.

✲ 면접 및 오리엔테이션 : **2010년 9월 9일**(목요일) 오후 2시 **홍원사** 교육관

교 육 내 용

1. 이론
① 안채비 중심의 일용 권공 의식
② 한국 불교 무용
③ 한국불교 전통 재 의식
④ 한국불교 의식의 보존 방향에 관한 제안

2. 실기
① 일용 권공 의식의 진행을 위한 소리
② 바라무 · 나비무
③ 法具연주(태징·북·목탁·요령)

✲ 교 재 : 승가의 범(저자 : 동주 원명)
✲ 교육기간 : 1년 ✲ 특 전 : 성적우수자 장학금 지급
✲ 교육일시 : 매주 1~2회 (강의시간은 면접 당일 날 정함)



주관 : 조계종 어산. 범패. 작법. 보존회
주소 : 서울시 강서구 가양1동 226번지 홍원사 02) 2658-3100

불교상담개발원과 함께 하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Q 독거노인 성금을 낸 뒤, 한 남자가 남편이랑 제 생년월일, 이름, 주소를 묻고 사주를 보더니 조상과 저를 이어야 한다며 22일이 지나기 전에 제를 지내야한다고 했습니다. 안 한다고 했더니 아이들 백일기도를 해준다 해서, 생년월일과 함께 2만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여자랑 와서 남편 명이 짧다며 치성을 드리라고 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형편이 안 돼 못한다고 했더니 돈은 나중에 내도되니 꼭 해야 한다며 10만원이라도 내고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가족이 모두 무교이긴 하지만 초를 켜고 하는 백일 기도는 1만원이면 된다고 하기에 드렸습니다. 불교공부를 하는 불자라는데 불교에 정말 이런 것이 있나요? 나중에 또 찾아 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찾아와 기도 드리라며 금품 요구해요
불교에는 이런 행위하는 곳은 없습니다

A 순수한 마음으로 성금을 냈다가 가족과 조상을 위한 치성기도를 요구 받으셨군요. 개인 신상을 밝힌 것과 기도를 올리지 못해 생기는 불이익 등으로 마음이 많이 쓰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치성(致誠)이란 '정성을 다해 신에게 정성을 드리다'라는 뜻인데 불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또 '명(命)이 돈을 들이는 행위로 인해 길어 질 수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상담을 요청하신 사례는 요즘 거리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거리를 가다보면 '인상이 좋으시네요' '조상에게 치성을 드려라' '공부하는 사람인데 촛불을 밝혀라' '가족에 안 좋은 기가 흐른다' 등의 말로 혹세무민하는 일이 많습니다.

또 처음에는 적은 돈을, 나중에는 큰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종교적인 수행을 강요하지만 이는 바른 종교의 수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불교공부를 하고 절에 다닌다고 했지만 불교에는 이런 행위를 하는 곳은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데도 잘 모르는 사람에게 불교를 가장한 사람들의 행위이니 앞으로는 작은 피해라도 입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교라고 하셨는데 남편과 아이들을 위한 100일기도를 원하신다면 주변 가까운 포교당이나 사찰을 찾아 기초교리를 시작으로 불교를 공부하면서 직접 기도를 하는 것도 근심을 더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의도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생년월일만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든 묻고 싶을 때는 다시 문을 두드려주세요.

Q 살면서 사람을 미워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누굴 미워하면 내가 더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마음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A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남을 미워하는 일이 많죠. 세상 사람들이 나와 같을 수가 없는데 누구는 나쁘고, 무식하고, 못나고, 잘 나고는 즉 불교에서 말하는 분별하는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삼라만상의 존재는 일체동근(一切同根)입니다. 나의 호흡이 너의 호흡되는 것과 같이 제망찰해에 모두 연결돼 있는 상호의존적인 한 몸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자비심을 일으켜 마음을 다스려보세요. 무조건 참으면 병이 될 수 있지만 지극정성으로 수행정진을 계속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 다스리게 된다고 합니다.

수행법으로는 자비명상을 추천합니다. 모든 종교의 형식과 틀을 초월하면서 모든 종교의 핵심인 사랑의 밝은 마음을 통해 모든 존재들을 사랑하는 온유한 진리의 수행법입니다. 자신을 비롯하여 가족과 주위 사람들 그리고 온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관(觀)하는 것입니다. '내가 탈 없이 잘 지내며 행복하기를' '모두가 탈 없이 잘 지내며 행복하기를' 이라고 매일 기도하시면 분명히 좋은 효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자비명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으로는 달라이 라마와 마가 스님 등의 책이나 프로그램 등이 있으니 동참해보는 것은 어떠실런지요.

24시간 자비의전화 (02)737-7374, 737-1114
사이버상담 자비24 www.jabi24.org
청소년사이버 성상담 아하섹스 www.ahsex.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001-01-2021-361
(예금주:사단법인 자비의전화)

밀착 프로그램으로 가려운 곳 시원

행복법당 탐방

능인종합사회복지관



어버이날 진행된 어르신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행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이 가정을 찾아다니며 어르신들에게 꽃을 달아드렸다.



침을 놓고 부항을 뜨는 무료 한방진료에는 매달 지역 어르신 50~60명이 찾고 있다.

東大 한의학과 동아리 황정학회 11년 동안 무료 한방진료
큰사랑노인전문병원 · 서울의료원 등 의료 봉사 활발

"고맙죠. 누가 옆에서 쓰러져도 거들떠도 보지 않는 세상인데 이렇게 무료로 진찰도 해주고 침까지 놔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예요."

8월 30일 서울 개포동 능인종합사회복지관 3층 건강관리실에는 어르신들이 모여 한의대생들을 보며 연신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었다.

이날은 능인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동국대학교 한의학과 황정학회가 무료 한방진료를 펼치는 날이었다. 황정학회 소속 11명의 학생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50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침술 봉사 등을 실시했다.

처서가 지난 후에도 남은 늦여름의 더위 속에서 한의대생들은 문진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침 · 뜸 · 부항 · 사혈요법 등을 시술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일주일 분의 한약을 제공했다. 대부분이 60이 넘은 고령의 나이에 무릎, 관절 등이 좋지 않아 건강관리실을 찾은 경우가 많았다.

황정학회장 박병관씨는 "할아버지 · 할머니께서 진료 후 통증이 줄고 효과를 많이 봤다는 말씀을 하실 때 의료인으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동국대학교 한의학과 동아리인 황정학회는 매월 1회 구룡마을 자치회관과 능인종합사회복지관 건광관리실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무릎관절이 좋지 않아 침술치료를 받은 한 할머니는 "학생들이 친절하게 대해 주고 진료도 잘 해 줘 정말 고맙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날 진행된 무료한방진료는 능인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부산)의 재가복지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구룡마을 인근에 자리해 1998년 5월 문을 연 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가족복지, 지역복지, 재가복지로 나눠 복지 사각지대에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왔다.

복지관이 위치한 강남구는 높은 빌딩이 즐비한 대표적인 부촌의 모습 이면에 구룡마을과 달터마을 등 무허가촌과 기초생활수급자가 861명, 차상위계층 139명 등 빈부격차의 어두운 면을 함께 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가복지 프로그램은 찾아가는 복지로 지역 어려운 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재가복지 프로그램 중 보건복지서비스에는 동국대 황정학회 외에도 큰사랑노인전문병원, 서울의료원, 스타키보청기, 적십자봉사단, 고려수지침학회 등에서 정기적으로 복지관을 찾아 의료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평상시 건강관리실은 발지압 서비스 등으로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도 하고 있다.

건강관리실 한정미 간호사는 "무료진료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주로 노인대학 수강생을 비롯한 지역 어르신들이 많이 찾으신다"고 말했다.

현재 능인종합사회복지관의 재가복지 프로그램은 크게 지역사회복지사업과 재가복지봉사서비스로 진행된다.

지역사회복지사업은 무료순회진료와 한방진료, 발지압서비스가 진행되는 보건복지서비스와함께 매주 넷째주 수요일 어르신 이미용 관리 등 일상생활지원서비스으로 구성돼있다. 지역사회복지사업은 주로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재가복지봉사서비스는 저소득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자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친환경 먹거리 장터인 능인푸드뱅크의 음식지원,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한 교복지원 등의 결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또 도시락 및 세탁 · 목욕서비스 등의 가사서비스, 각 명절 · 기념일 등에 안부전화와 축하잔치 등을 여는 정서비스 등이 진행된다.

특히 지난해 12월 2일에는 자살 고위험 노인 상담을 위해 전문가 양성에 나서 원예 치료, 웃음 치료 등의 교육을 실시해 40명의 어르신 단원들으로 이뤄진 노인생명보듬이 단을 발족한 바 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자살위험 가능성이 높은 노인들을 찾아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상담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 노인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활동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이다. 노인생명보듬이 어르신들은 자살 가능성을 보이는 어르신들을 발굴해 상담을 진행하거나 노인상담 전문가와 연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은주 사회복지사는 "앞으로도 더욱 찾아가는 밀착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바로잡습니다 798호 자비법당 탐방에서 안영시니어클럽을 '안양시니어클럽'으로 정정합니다.

적중도최고효과성 최대효사활인천역 집2010완결보정판 구입교환및육임활 용서학습서구입안내

1. CD프로그램

교환대상	효사활인천역집 Ⅰ,Ⅱ,Ⅲ, 완결판 소지자	
교환가격	효사활인천역집 Ⅰ 교환	150만원
	효사활인천역집 Ⅱ 교환	120만원
	효사활인천역집 Ⅲ 교환	80만원
	효사활인천역집 완결판 교환	50만원
신규구입	효사활인천역집 2010완결 보정판	500만원
기 능	원터치 · 매일 매시간별 자동화면 · 동일 시간내 다수방문자 구분식별 · 상담 메모리 · 자료출력 등등	
장착목록	(아래 제 3항참조)	

2. 미리보고 먼저 알게되는 자동화면의 우선항목들

- **시보**(時報 : 왜 왔는가?)
- **내정**(來情 : 어떤 정황인가?)
- **득지**(得知 : 무슨 비밀사정이 있는가?)
- **아타**(我他 : 저지른 일인가, 일어날 것인가?)
- **미기**(未旣 : 이미 일어났는가, 일어날 것인가?)
- **귀신**(鬼神 : 어떻게 죽은 · 누구의 귀신이 침범했는가?)
- **병귀**(病鬼 : 무슨 귀신침범으로 병이 났는가?)
- **사숭**(邪崇 : 신변 · 가택 어디에 무슨 부정이 들었는가?)
- **산소**(山所 : 누구 묘지, 무슨 좌향 · 물형, 어떤 경관인가?)

◆ **어떤 방법으로 누가 해소 시킬수 있는가?**
◆ **비방 · 부적 · 굿 · 천도재 · 불제 등의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며칠 후 언제 해야만 좋은가?**

• 이외 **24개항목**의 길흉성부를 결정지어 놓았고, **50여 인사(人事)문제**도 **미리보고 먼저 판단할 수 있도록** 화면 배치 했습니다.

3. 육임활용서(위 1항 CD프로그램에 장착 됨)

① **효사육임산책**	2010최신판(휴대용)	1 · 6 · 60권	250만원
② **효사육임복변집**	2010 보정판(좌정용)	1 · 6 · 60권	250만원
③ **육임대계전서**	2010개편본(휴대용)	1 · 6 · 60권	250만원
④ **육임풍수**	2010개편본(휴대용)	1 · 6 · 60권	70만원
⑤ **육임1년신수비결**	2010개편본(좌정용)	1 · 6 · 60권	35만원
⑥ **육임래정비법**	2010개편본(휴대용 · 좌정용)	1 · 6 · 60권	50만원
⑦ **도사에게 물어봐**	2010증보판 **육임길흉성부상담지침록**(휴대용)		10만원
⑧ **육임사주감정법**	2010개편본(좌정용)		20만원
⑨ **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좌정용)			12만원
⑩ **효사숙 사주**(CD전용)	⑪ **성명학**(CD전용)	⑫ **매화역수**(CD전용)	
⑬ **월영도**(CD전용)	⑭ **부적보감**(CD전용)	⑮ **동의보감**(CD전용)	

4. 육임학습서

① **효사육임강론** 2010개편 증보 제 8판본 **上권 종합학습편** 1800쪽
② **下권 활용편** 1800쪽 사과 삼전표 · 천지반표 · 과 · 격 체출법 및 각 상의 · 국수 해설 · 24개 항목별 단정 및 대별 교체 적시함

구입 승인 교환 안내 011-9795-1773 담당 양광표 / 계좌번호 : 농협 356-0340-6628-13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총재 고복자 효사 배상 www.taotemple.net

왜? 고민 하십니까? 기도성취가 안되는 이유?

"인간의 운명은 氣에 따라 바뀐다"
"氣가 없으면 운도 없고" "氣가 있으면 운도 옵니다"
"운이 있으면 건강은 절로 옵니다"

운(運)이 좋은 사람 공통점?
조상의 영혼과 자손의 관계가 좋아 평소 천상계의 기운이 잘 안착이 된 사람이성공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운은 어디서 옵니까? 좋은 운은 반드시 신과 함께 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신이 개입 하면서 운을 만들어 가는 것 입니다.
운기칠삼 이란? 인간의 노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3이요 나머지 7은 하늘의 운수가 차지 한다는 말입니다..

현대과학으로 해결되는 氣 천도 도자기 출현?

현대과학 에서 보면 조상령, 태아령, 빙의 등 사고를 부르고, 병을 부르고, 빼를 깎는 노력을 해도, 해도 해도 안 되는 사람 이 있습니다. 과학에서 보면 다 나쁜 기(氣), 파장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상의 뼈를 좋은 곳에 묻고, 영혼을 천도하는 것은 이러한 나쁜 파장을 상세 시키고 발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대과학이 개발한 치우천왕 도자기는 영계에 좋은 기를 보내주기 때문에 조상영혼이 천도 되며, 입시를 앞둔 수험생 자녀 에게는 유전자 공명(共鳴)을 이용하여 조상과 후손이 공명되어 천상계의 좋은 기운을 학생이 공수 받아, **수험생**은 집중력. 기억력. 논리력이 매우 높아지는 알파파가 매우 많이 형성되어 시험 합격의 기초가 됩니다.
또한 도자기의 파동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증폭 시키는 파동으로 사업자는 귀인을 만나며, 혼자 사는 사람은 인연의 짝을 만나게 되는 신령함**은 같은 주파수의 핸드폰이 서로 소통되는 것같이 치우 도자기의 공명이 상대방 마음에 파동쳐 일어난 사례입니다. 항상 자신의 몸속에 들어있는 나쁜 영 (병귀, 태아령) 영가의 장애로 가족 간에 상극을 받으며, 흉몽을 꾸고, **이유 없이 몸이 피곤하고 무거워서 생활에 불편을 느끼던 사람 들이 도자기를 처소에 두고서 부터 영적인 장애가 풀리고 몸이 많이 회복되는**



기적적 운이 상생 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옛 부터 우리 선조들은 기(氣)의 존재를 인정하고 도자기를 애호해 왔습니다, 치우천왕도자기는 음양오행의 신령한 기운이 가득 차 있어 기(氣)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운이 새고 돈의 흐름이 막히여 현실적으로 장사나, 매매가 어려운 터가 치우 도자기로 통기를 시켜준 후 도깨비터로 운기가 발복되는 놀라움은 이제 치우 도자기가 건강뿐만 아니라 액을 막아 주고 이상하게 행운도 가져다 준다하여 영험 도자기로 화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좋은 도자기를 가장 잘 쓰는 방법은 도자기 안에 **고인(故人)의 이름을 적고, 사진이 있으면 영정사진, 기원**하고 싶은 가족사진이나 가족의 이름 다 써서 넣어 두시는 것 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치우천왕 도자기는 지금껏 조상님 산소에 묻어주는 비방법으로 비밀리에 비싼 고가에 거래 되어 왔었던 것 입니다. 이제 특허를 받고 여러분을 위하여 신령한 기운을 지닌 氣가 나오는 도자기의 비법을 공개하오니 현대과학이 해결하는 영혼천도 도자기 "귀신을 천도하고 도깨비를 부리는 치우지신(蚩尤之神)의 영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치우천왕 검색.

◆ **무료사은품 :** "기도의 비밀" 책자 + 치우천왕 CD + 치우천왕 적령부 카드 2장 + 치우천왕 목걸이겸용 팔찌 (現 50만원 상당, 한정수량)
내마음의 절에서는 현대과학이 개발한 기(氣), 측정 장비를 가지고 여러분의 운을 측정 해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지금까지 350만원, 여러분의 소원성취를 위하여, **심장이 뛰는 가격 39만원**
"치우천왕 氣가 나오는 도자기" 대박상품!! 투자자 및 지방 대리점 문의.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 ■ 입금계좌 : 농협 351-0242-7965-13 (예금주 : 내마음의 절) ■ 전화 : **1661-2575**



1박2일 함께 하니 세대공감 저절로

서울노인복지센터 난타반 어르신들이 운동회 시작 전 열띤 공연을 벌이고 있다.

9988운동회 · 노락당 과거제

3대가 함께 사는 집을 쉽게 찾아 볼 수 없게 된 요즘, 손자 · 손녀부터 할머니 · 할아버지까지 한데 어우러져 세대 간 소통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자리가 마련됐다.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세대가 화합하고, 협력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경기를 정정당당히 참가하겠습니다!"

"우리는 노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상을 만들고, 전하겠습니다."

이곳은 한 초등학교 대강당. 할머니, 아빠 그리고 딸이 운동회 시작 전 힘찬 목소리로 선서문을 읽는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가섭)는 8월 28~29일 '세대 간 통합을 위한 9988 운동회 및 노락당 과거제'를 서울 교동초등학교 대강당과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개최했다.

주말에 내린 폭우로 더운 열기는 식었지만 강당 안은 그렇지 않았다. 5세 어린이부터 84세 어르신까지 23가족의 남녀노소 80여 명이 한마음 한 몸이 돼 운동회에 참여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지난해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함께 진행하던 어르신 운동회를 올해에는 가족들이 모여 1박 2일 캠프형 행사로 진행했다.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세대공감 프로그램인 이 행사는 2010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지원 사업으로 선정됐다.

가족운동회 · 과거제 · 캔들 파이어 · 가족캠프
2010 서울시 사회복지기금 지원 사업 선정

가섭 스님은 인사말에서 "가족 간의 사랑이나 효사상은 가족의 결속력이 끈끈했던 전통사회보다 산업화, 핵가족화로 인한 소외현상이 문제인 현재사회에서 계승해야 할 자랑스러운 정신이고 해법이다"며 "이번에 마련한 다양한 가족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평소 표현하지 못했던 가족애를 느끼고 친밀감이 더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화목 · 무지개 · 공감 · 풍경 등 4개 팀으로 나뉘어 가족운동회, 세대공감 과거제, 도심 속의 캔들 파이어, 가족 캠프 등에 참여했다.

첫날 참가자들은 운동회 시작에 앞서 준비운동과 조별 응원으로 몸을 풀었다.

배운지 몇 십 년이 지났지만 국민체조 음악이 흘러나오자,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모두 자연스럽게 척척 동작을 이어나갔다. 아이들은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은지 까르르거렸고, 노년층과 장년층은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듯 표정들이 밝았다.

"무지개 팀이 승리했습니다! 화목팀은 바짝 긴장하고 있네요. 공감팀 준비됐나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호흡을 잘 맞춰야 이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진행에 모두들 주의를 집중하고 '하늘높이 슛' '풍선기둥 만들기' '협동제기차기' 게임에 열중했다. 말 그대로 세대가 통합하는 화합의 한마당이었다.

참가자 중 최고령자인 송애순 할머니(84)는 "두 딸과 손주들이랑 왔는데 재밌고 참 좋다"고 말했다. 큰 딸 박종임(53)씨는 "핵가족 시대에 친목도모도 되고 좋다. 이런 행사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참여해 많은 핵가족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운동회가 끝나고 참가자들은 서울노인복지센터로 이동해 가족별 텐트를 만들고 가족 대항 오목, 알까기, 탁구, 세대 간 팔씨름, 사진찍기 등 1~3세대가 함께 하는 게임에 참여했다. 이들은 또한 라디오 DJ 체험과 영상물 · 활동사진 등을 통해 노인들의 건강한 활동상을 공유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가족들에게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담거나 칭찬하는 '칭찬 상장만들기'를 체험하고 '야식 만들기' ' 도심 속 캔들 파이어' 등으로 첫날을 마무리했다.

이튿날, 참가자들은 종묘공원에서 탑골공원, 허리우드극장, 서울노인복지센터에 이르는 노인문화거리인 종로 실버문화벨트 지역을 산책했다.

둘째 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세대공감 과거제'다. 서예를 즐기는 노인세대와 전통문화에 낯선 젊은 세대가 함께 어울려 정답을 맞춰가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취지를 살린 행사라 그 의미가 깊었다.

행사는 개별전으로 시작해 최후 5인이 남을 경우 가족이 함께 참여해 답안을 작성하고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사회자가 역사속의 인물, 사자성어, 속담 및 신세대 용어 등이 문제로 출제하면 가족들은 붓으로 화선지에 답을 적었다.

이후 시상식 및 해산식을 끝으로 서울노인복지센터의 첫 가족캠프행사는 막을 내렸다.

부인, 아들내외와 손주들과 왔다는 정시태 할아버지(68)는 "가족끼리 이렇게 모일 기회가 없는데 이런 행사에 참여하게 돼 좋다. 게임 등을 하면서 협동심도 키우게 되고 서로 재밌는 추억을 공유하게 돼 기쁘다. 앞으로 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가섭 스님은 "서울노인복지센터는 2001년 탑골공원 성역화에 따라 설립돼 어르신들의 전통과 지혜가 전승되고 세대와 함께 할 수 있는 주체적이고 역동적인 노인문화창출사업에 주력해왔다"며 "이번 세대공감 1박 2일 캠프도 어르신들과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인사동 인근 실버문화벨트에서 가족간의 화목을 도모하고 세대간 교감을 나누어보고자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글=이나은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세대공감 과거제' 모습. 사회자가 문제를 내면 가족들은 붓으로 화선지에 답을 적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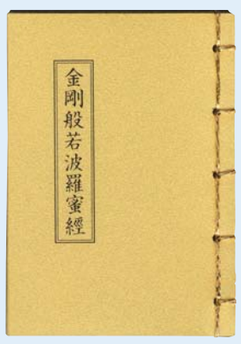


참가자들은 4개조로 나뉘어 운동회에 참여했다. 무지개팀이 팀 깃발을 장식하고 있다.



참가자들이 공 던지기 게임을 하고 있다.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 상 불 소 영
장 량 장 가
의 식 사 용 천
식 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참좋은 우리절’ 불교문화대학 개강

전주 참좋은 우리절(주지 회일)은 8월 31일 제9회 불교문화대학 과정 입학식 및 고불식을 개최했다.

참좋은 우리절 불교문화대학은 기초 교리반과 경전반을 운영하며 매주 2회씩 28회의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의는 사찰예법과 부처님 생애 등 불교강의와 한지문화축제와 다문화가정 봉사활동, 불교유적지 순례를 통한 사찰문화 이해, 참선 명상 등으로 구성돼 이론과 실천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이날 고불식에서 회일스님은 환영사에서 “불교문화대학의 강의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아 각자 자신 안의 진정한 행복을 찾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4년 동안 200여 명의 수강생을 배출한 참좋은 우리절의 불교문화대학은 매년 2회에 걸쳐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원각사 청년회 범정택 회장 취임

“지난 1년간은 아쉬움이 많았지만 올해에는 정기법회에 법우님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각사(주지 도제) 청년회 35대 회장으로 재임한 범정택 회장이 8월 28일 원각사 대웅전에서 제35대 원각사 청년회장단 취임법회를 가졌다. 범회장은 취임사에서 “청년불자의 삶을 희망으로 일구어가고 싶다. 청년불자들의 신행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법회에서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원각사 청년회는 이날 취임법회에서 새로운 임원도 구성했다. 남부회장 안창훈, 여부회장 조은경, 감사 이승동, 이수월 등이 각각 임명됐다.

범 회장은 향후 각 부서별 부장들을 꾸려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편 원각사 청년회는 1979년에 창립된 광주의 대표적 청년회로 연꽃나눔 봉사단과 풍물패 빛울림 등 특별 활동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 7시 정기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모범 보이며 전하는 것이 포교사

2000여 포교사, 화엄성지 오대산 월정사에서 지계와 전법 다짐

“향 사르고 꽃을 올려 계를 받은 저희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발원하나이다. 계를 받은 이 공덕 모든 중생에 회향하며, 모두 위없는 깨달음과 무생법인 이루고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임희웅)은 8월28~29일 평창 월정사에서 팔재계 수계실천대법회를 봉행했다.

팔재계 수계실천법회는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모든 죄를 참회하고 8가지 계율을 지킬 것을 부처님께 서원하는 자리로 2003년부터 매년 봉행되고 있다.

팔재계 수계식에는 전계대화상 포교원장 혜총 스님, 갈마아사리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교수아사리 월정사 율주 원행 스님의 인례로 진행됐다.

이날 수계식에는 2000여 명의 포교사들이 참석해 지계실천을 통해 자리이타의 정신을 확립하고 포교역량 결집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수계법회는 이틀에 걸쳐 108참회 절 수행, 신묘장구대다리 108독, 사경지 소각, 월정사에서 적멸보궁까지 야간행선, 포교사 품수식 등이 진행됐다.



포교사 2000여 명은 8월 28~29일 월정사에서 팔재계 수계실천대법회에 참여해 올바른 신행과 포교역량 결집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혜총 스님은 “포교사는 수행을 통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따르고, 올바를 신행과 이타행을 실천하라”면서 “포교사는 역할은 가르치는 것보다 스스로 모범을 보이며 전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스스로 계를 지키고 불법을 봉행하며 신행에 매진하는 불제자가 되라”고 당부했다.

임희웅 포교사단장은 입재식에서 “우리의 참회와 지계실천을 통해, 이 사회의 잠들어 있는 양심을 깨우고, 피폐된 도덕성을 회복시키고, 잘못된 윤리관을 잡아가는데 앞장서자”고 말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모범 포교사 포상도 이어졌다. 개인상에는 광주전남지역단 이재언 포교사가, 단체상에는 충북지역단 군포교3팀이 수상했으며 13명의 개인과 팀이 조계종 총무원장상과 포교원장상, 포교사단총재상, 포교사단장상 등을 각각 수상했다.

둘째 날에는 제15회 신규 포교사 558명과 제4회 전문포교사 11명에 대한 포교사품수식도 함께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불교 발전하는 계기 될 것

리더십 아카데미, 광주서 개최

서울에서 성황리에 진행 중인 재가불자를 위한 리더십 아카데미가 지방에서는 광주에서 처음으로 개최 됐다.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는 불교아카데미(원장 박희태)와 공동으로 9월 2일~12월 16일 ‘53도반과 함께 떠나는 구법여행’을 주제로 한 아카데미를 자비신행회 강당에서 진행한다. 전체 53명의 재가불교 지도자들이 참여한 이번 강좌에는 △불교의 사상과 실천체계(이미령 동국대 역경원 역경위원) △대만불교의 실천체계와 미래조망(무문 스님, 백양사 승가대학 학장) △자기회복의 메시지, 수심결(강건기 전북대 교수) △불교의 우주관(이시우 서울대 명예교수) △남방불교의 수행문화와 전통(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학 교수) △부처님께 다가가는 방법(목경찬 불광교육원 교수) △ 범종, 그 안에 깃든 의미(이순규 광주불교교육원장) △종교의 미래, 불교의 미래(박광서 서강대 교수) △불교적 생명이란 무엇인가? (우희종 서울대 교수) △진흥왕의 열린 리더쉽, 그 현대적 조명(박희택 위덕대 교수) △서구불교의 동향과 전망(진우기 불교영어번역연구원장) 등 전체 15회의 주제로 강의가 진행된다.

한편 9월 2일 진행된 입교식에서 정원채 재가 화엄학림 학장은 인사말에서 “서울에서 성황리에 열렸던 강좌를 교세가 약한 광주에서 열게 돼 기쁘다”며 “이번 강좌로 광주불교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스님, 영산강을 지켜주세요”

영산강 문수선원 문수스님 산골재

문수선원(선원장 법선)은 8월 29일 영산강 승촌보에서 문수 스님 추모식과 산골재를 봉행했다. 법선 스님은 추모사에서 “세상에는 나쁜 것을 보고 방조하는 것이 더 나쁘다”며 “이제 문수 스님이 영산강이 되면 우리가 스님을 지키기 위해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행사는 각운 스님(종무원 재정국장), 성조 스님 등 문수 스님의 도반들과 자흥 스님(낙동강 선원장), 무진 스님(광주불교사암연합회 총무국장) 등 1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선원에서 진행된 추모법요식에 이어 참가자들은 문수 스님의 유골을 나누고 아미타불 염불에 맞춰 강에 띄워 보내며 스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4대강사업을 반대하며 소신공양을 한 문수 스님의 산골재가 영산강 승천보에서 봉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군산 동국사 팔음조 합창단

“연습이 곧 기도입니다”

지난밤 태풍이 한바탕 휩쓸고 간 동국사 대웅전. 평소와 다르게 고운 찬불가 소리가 뒤뜰 댓바람소리와 함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다.

군산의 동국사(주지 종명) 팔음조 합창단원들은 늘 불보살님을 찬탄하는 찬불가를 부르며 생활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 그래서인지 단원들의 얼굴에는 온화하고 정감 넘치는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동국사 팔음조 합창단(단장 장미애)은 2006년에 창단됐다. 처음에는 참여하는 단원이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30여 명이 동참해 여법한 합창단의 모습을 갖췄다.

팔음조 합창단원들은 합창단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 음성공양을 펼치기 때문에 연습에도 열심이다. 단원들은 ‘연습이 곧 기도’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매주 2회 이상 씩 모여 연습에 열중하고 있다. 이러한 연습 덕분에 팔음조 합창단은 그 범위를 넓혀 49재시 단원 모두가 참여해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있으며 지역의 사찰행사나 문화제 등에 참가해 본격적인 음성포교사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팔음조 합창단은 군산교도소, 군 법당에서 정기공연 및 위문공연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포교사로서의 역할도 충실하고 있다. 또한 이웃종교 합창단만 참가하던 ‘군산 물빛다리 한마음 예술축제’에 흥천사 · 성흥사 합창단과 함께 연합합창단을 구성해 불교를 대표하는 찬불가공연을 펼치는 등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합창단은 음성포교뿐만 아니라 봉사활동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합창단은 신도들 중 상을 당한 사람이 있을 경우 염불봉사는 물론 상주들을 위한 도움을 지원하는가 하면, 2007년에는 태안유조선 기름유출사고로 발생한 기름띠 제거작업에도 동참하는 등 교계 내 · 외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군산 동국사 팔음조 합창단은 2006년에 창단됐다. 왼쪽부터 장미애 단장, 김경은 총무, 채현숙 반주.

팔음조 합창단은 이웃에 대한 자비의 실천에도 적극적이다. 합창단은 매년 추석과 설날 등 명절에는 송편과 가래떡을 만들어 판매한 수익금 300여 만 원을 군산시에 기부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단원들은 신도들이 모아온 헌책 · 신문지 등 재활용품을 팔아 모인 수익금(년간 200만원)을 매월 정기적으로 동국사 관내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시하고 있다.

창단 때부터 합창단을 이끌어오고 있는 장미애 단장은 “대내적인 활동은 물론 대외적으로 활동반경을 넓혀 교도소나 복지관같은 어려운 이웃들이 모여 있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찬불가를 들려주고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원총림을 가다

1000년 전 그곳과 오늘 - ②

울력 · 화합하는 깨달음의 터전

총림, 종교사에 전례없는 제도

'총림(叢林)'이란 글자 그대로 '우거진 숲' '울창한 숲'이라는 뜻으로 '선원(禪苑, 禪院)' · '선림(禪林)'이라고도 한다. 숲처럼 많은 스님들이 한 곳에 모여서 수행하는 곳이라는 뜻으로 규모가 큰 선원 · 선종 사찰을 가리킨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 곧 선원 · 강원 · 율원, 이렇게 세 종류의 수행 도량을 갖추어야만 '총림'이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다.

우리나라에서 총림의 역사는 얼마 되지 않는다. 최초의 총림은 1967년에 설립된 해인총림(해인사)이고, 이어 조계총림(송광사, 1969), 고불총림(백양사), 영축총림(통도사), 덕숭총림(수덕사)이 생겨서 현재는 모두 다섯 개의 총림이 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총림이 없었을까? 고려 · 조선 시대를 통틀어서 총림이 있었다는 확실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여러 문헌에서 '총림'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고 쌍계사 같은 곳에는 동방장 · 서방장이라는 당우가 있는 것으로 봐서 총림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예컨대 보조국사 지눌(1158-1210)이 정혜결사를 펼쳤던 송광사는 16국사를 배출했는데, 당시 '총림'이라고 했는지는 몰라도 규모로 봐서는 충분히 총림이 되고도 남는다.

중국불교에서 통상적으로 '총림'이라고 하면 선종사찰을 가리킨다. 중국 선종사에서 처음으로 총림제도를 만든 것은 당(唐) 중기의 선승 백장회해(百丈懷海, 720-814)이다. 그는 마조도일의 제자로서 기존의 청규를 집대성하고 보완, 성문화하여 '백장청규'를 제정했다. 그리고 이 청규를 바탕으로 백장산 수성선사(壽聖禪寺, 백장사)에 최초의 선종총림인 '백장총림(百丈叢林)'을 창설했다.

중국사찰탐방의 대가인 정운스님의 말에 따르면 남창에서 백장산 입구까지 택시로 약 5시간 걸리고, 산 입구에서 백장사까지도 1시간 정도 걸리는 대단한 오지(奧地)로서, '과연 여기가 총림이었을까'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재는 작은 절이라고 한다.

총림제도에 대하여 중국학자들은 불교 · 도교 등 중국 종교사를 통틀어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라고 입을 모은다. 총림제도는 그 후 도교의 일파인 전진교에서도 도입했다.

총림의 제도 가운데서도 가장 특징적인 것은 '보청(普請, 作務)'이다. 우리말로는 '울력(운력)'이라고 하는데, 대중들은 평소 전심(專心)으로 좌선하는 것 외에, 매일같이 정기적으로 작무(노동)을 했다. 그런데 마당에 돋아나는 풀이나 뽑는 정도가 아니라 농사, 농작물 재배가 주된 일로서, 주지(방장)가 솔선수범했으며, 상하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참여했다. 제외 대상자는 각 요사(寮舍, 당우)를 지키는 요주(寮主)와 직당(直堂, 당직), 열반당에서 요양하고 있는 스님뿐이다. 타당한 이유 없이 불참할 경우 유나(維那, 기강 담당)스님은 주장자로 쳐서 내쫓았다.

수입과 지출 등 총림의 모든 재정은 반드시 공개했고, 의식주 등은 소욕지족의 생활이었다. 또 총림의 모든 재산은 공유물로서 막대기 하나라도 사유화할 수가 없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신자들의 보시와 공양은 균등하게 적용했다. 인도불교의 사방승물(四方僧物, 모든 물건은 승가 공동의 것) 제도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개인의 소유물은 가사와 발우 · 좌구(坐具) · 경전 몇 권 등 18종에 불과했다.

총림의 최고 통솔자는 주지(住持) 즉 방장이다. '방장(方丈)'이란 유마거사의 방이 '사방이 1장(10척, 사방 3.3㎡)'인데서 비롯되었지만, 당송시대 선원총림에서 '방장(方丈)'은 직함이 아니라 주지가 기거하는 당우 이름이었다.

주지(방장)는 덕망이 있고 정견(正見)을 갖춘 선승 가운데서 대중회의를 거쳐 선출했는데, 선원의 운영은 물론이고 상당법어(한 달에 6번) · 조참(早參) · 만참(晩參) · 입실 · 독참 등 모든 수행자 교육을 담당했다. 따라서 주지는 선에 대한 안목과 정견, 정안을 갖춘 선승이라야만 감당할 수 있었다. 또 교학적으로도 박학다식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수백 명 가운데는 날고 기는 선승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적임자가 없을 때는 타사(他寺)에서 모셔오기도 했다.

주지 밑에는 6지사(六知事, 초기에는 4지사)와 6두수(六頭首)를 두었는데, 지사(知事)는 행정, 관리 쪽이고, 두수(頭首)는 수행 쪽 소임이다. 6지사는 도사(都寺) · 감사(監事) · 부사(副寺) · 유나(維那) · 전좌(典座) · 직세(直歲)이고, 6두수는 수좌(首座) · 서기(書記, 書狀) · 장주(藏主) · 지객(知客) · 욕주(浴主, 浴頭) · 고두(庫頭)이다(자세한 역할은 '총림의 소임'에서 씀).

지사와 두수 밑에 다시 종두(鐘頭) · 채두(菜頭) 등 20여 개의 작은 소임이 있고, 그 밑에 행자(行者, 童行)가 있다. 소임(직책)을 맡았다고 해서 좌선 시간에 열외 되는 것은 아니다(후대에는 소임을 이유로 좌선에 빠지는 경우도 있었음). 소임이 없는 스님을 통칭 '청중(淸衆)'이라고 불렀는데, 청중은 보다 전문적인 수행자라고 할 수 있다. 앉는 자리 등 순서는 모두 법랍에 따랐고, 모든 대중은 원칙적으로 평등했다. 일체 중생은 누구나 불성을 가지고 있고, 불성에는 계급과 차별이 없기 때문이었다. 누구나 깨달아서 부처가 될 수 있으므로 차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선원총림은 수행자들이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간이다. 반야지혜를 완성하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곳으로, 유럽의 가톨릭 수도원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수도원은 각 개인마다 방이 하나씩 주어져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보장되지만(수도원에 따라서는 침대를 사용하고 침대 사이는 커튼으로 가려져 있다), 선원총림은 개인적인 공간이나 프라이버시는 구조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통도사 스님들이 울력하는 모습. 총림의 제도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것이 울력이다. 이유없이 불참하면 주장자로 쳐서 내쫓았다.

선원의 생활은 주지 · 감원 등 중책을 맡은 스님 외의 모든 수행자들은 선당(선방)에서 함께 생활해야 한다. 개인적인 공간이라고 한다면 가로 1미터, 길이 2미터로서 다다미 한 장, 합판 한 장 정도에 불과하다. 그나마 사통오달로서 사방이 툭 트여 있다. 지대방 성격의 '중요(衆寮)'가 있기는 해도 개인적인 공간은 없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나라 총림과 선원, 강원도 마찬가지이다. 최근에는 구참납자(久參衲子, 고참)에게는 독방, 그 외는 2인 1실을 주는 선원도 있다고는 한다. 중국 역시 개인적인 공간(방)을 주는 곳이 많다고 한다. 시대적으로 부득이한 것이기는 해도 개인방을 소유한다는 것은 총림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총림의 운영과 규칙, 규율 등은 청규에 따른다. 청규는 선원을 움직이는 법전(法典)이다. 수행기간은 하안거 90일과 동안거 90일로서 1년에 총 180일이다. 하안거는 음력 4월 15일에 시작하여 7월 14일까지이고, 동안거는 10월 15일에 시작하여 이듬해 1월 14일까지이다.

안거(安居)는 '편안히 머문다'는 뜻이다. 산스크리트어로는 '바르사(varsa)', 팔리어로는 '바스사(vassa)'라고 하는데 '장마철' '우기(雨期)'를 뜻한다. 인도는 6월 초부터 9월까지 3개월간은 몬순기(Monsoon, 季節風)이다. 여름에는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겨울에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부는 계절풍으로 이때는 많은 비를 동반한다.

비가 오기 시작하면 거의 3개월 동안 지겨울 정도로 계속된다. 평소 저지대(습지)에서 서식하던 파충류, 개미, 지렁이 등 벌레들이 고지대로 이동하는데 이 때 수행자들이 다니게 되면 본의 아니게 살생을 하게 된다. 살생을 방지하고 우기 동안 일정한 거처에 머물면서 수행에 전념하도록 한 것이 하안거 제도이다. 경전에는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이룬 뒤 바라나시 근처 어느 숲 속에 있는 거처에서 '우기를 보냈다'는 대목이 있다.

붓다 당시 인도불교에는 하안거 제도만 있고 동안거 제도는 없었다. 동안거는 추운 지대인 중국 · 한국 · 일본에만 있다. 안거는 하안거가 중심이며, 승랍도 하안거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안거를 다른 말로 '결제(結制)'라고 하는데, '규제를 묶는다' '통제한다'는 뜻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스님들은 절대 밖으로 다닐 수 없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여서 1960년대 말까지만 해도 선원이나 강원은 물론이고, 작은 사찰이나 암자에서도 결제 기간 중에는 다니는 스님(객승)이 거의 없었다. 다만 주지 · 총무 등 직책을 맡고 있는 스님, 치료차 병원 가는 것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였다. 과거 필자가 머물렀던 사찰에도 20여 명이 사는 작은 본사였지만, 결제 기간에 다니는 스님은 거의 없었다. 간혹 다니는 스님을 보면 속칭 '땡초'라고 하여 스님 취급도 하지 않았다.

'선원청규'에 따르면 천년 전 당송시대에도 결제, 안거는 엄격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나갈 수 있었는데 반드시 주지 등 관련 소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 역시 공적인 일이나 치료 등 부득이한 일이 아니면 불가능했다. 그리고 외출할 때는 해당 사찰에서 발행하는 외출 증명서를 휴대해야 하며, 외출 기간은 15일 내로 제한했고 15일이 지나면 재입방 절차를 밟아야 했다.

총림 생활에서 주의할 점은 크게 다섯 가지이다. 이것을 '입중오법(入衆五法, 총림생활의 다섯 가지 법)'이라고 하는데 (1)스스로를 낮출 것(下意) (2)자비심으로 다른 이를 대할 것(慈心) (3)어른에 대하여 경의를 표할 것(恭敬) (4)차례와 순서를 지킬 것(知次第) (5)수행하는 일 외에 다른 것은 일체 말하지 말 것(不說餘事) 등이다.

보조국사 지눌(1158-1210)이 지은 '계초심학인문'에도 기술되어 있듯이 선원총림에서는 큰 소리로 웃고 떠드는 것은 일절 금물이다. 불필요한 말은 정신을 산만하게 할뿐더러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언쟁, 다툼은 화합을 해친다고 하여 옳고 그름을 떠나서 모두 징계했는데, 심할 경우 두 사람을 함께 추방하기도 했다. 그리고 기상 · 좌선 · 방선 · 공양 · 울력 · 취침 등 모든 신호는 종(鐘)과 북(鼓) · 운판(雲版) · 목어(木魚) 등을 이용했고, 공지사항은 알림패를 이용했다.

총림 · 선원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깨달은 선승을 길러 내는 곳'이다. 참선 수행자로 하여금 견성성불케 하는 '교육의 장'이고, 미완의 존재를 전인적인 존재로, 중생을 부처로 만드는 '선(禪) 전문대학'이라고 할 수 있다. '성불작조교(成佛作祖校, 부처와 조사를 만드는 학교)'로서 해당 총림의 주지(방장)는 수도원장, 총장이고 청규는 학칙이다. 노련한 대장장이가 쇠를 두들겨서 쟁기를 만드는 것처럼, 대장장이의 망치를 싫어한다면 그는 번뇌 망상에서 졸업할 날이 없게 된다.

■ 윤창화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공개 살림… 소욕지족의 생활

방장 적임자 없으면 타사에서 초빙

● 청 순치황제의 출가시

천하의 총림 진수성찬같네

청나라 때 순치황제는 선종총림의 품격과 절도, 그리고 청한(淸閑)한 생활을 보고 나서 출가시(詩)를 지었다고 한다.

天下叢林飯如山(천하총림반여산)
鉢盂到處任君餐(발우도처임군찬)
朕本西方一衲子(짐본서방일납자)
如何落在帝王家(여하낙재제왕가)
祇因當初一念差(지인당초일념차)
黃袍換却紫袈裟(황포환각자가사)

천하의 총림 마치 진수성찬 같네.
발우 곳곳에 있나니 食不食은 그대 마음.
나는 본시 서방의 한 납자였거늘,
어찌 지금 제왕가에 있는 것일까?
당초 한 생각 잘못 되었기 때문이니
황제의 옷 붉은 가사와 바꾸고 싶네.

지상의 낙원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금성(紫禁城)에서 꽃 같은 수천 송이의 궁녀들, 그리고 만조백관을 거느리면서 호의호식하는 황제의 몸이었지만, 총림의 풍광은 꽃송이 못지 않은 선망(羨望)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인생. 낮에는 개미처럼 돈을 벌어들이고, 해지면 집으로 들어가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그리고 한편으로는 분신(分身)같은 자식을 쳐다보면서 일생을 보낸다는 것은, 지극히 보편적인 삶의 방식이긴 해도 만면에 희소를 띄울 만치 흡족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보조국사 주장자 소리 아직도 골짜기 쩌렁쩌렁 울리네!

41 부처의 해가 뜨는 도량 송광사(하)

송광사의 하늘에는 지눌의 시대로부터 부처의 해[佛日]가 떴습니다. 추상같은 정혜결사의 기치아래 모여든 운수납자들의 기상이 해처럼 밝고 달처럼 맑았습니다. 맑고 향기로운 조계산의 기운에 피폐한 시대의 찌꺼기 같은 먹장구름이 흩어지고 순일무잡의 활공(滑空)이 열렸으니 부처의 해는 넓고 넓게 그 찬란한 빛을 비추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지옥이 극락으로 변한 것은 아닙니다. 조계산에 부처의 해가 아무리 높이 떠 있어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부처의 해가 뜨고 지기를 거듭하는 동안에도 세속은 세속의 이름을 버리지 못하여 왕조가 바뀌고 전란이 이어지고 문물과 풍속이 변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중생계입니다.

송광사 부도밭에서 부슬부슬 내리는 비를 맞으며 불일암 가는 길로 접어들었을 때 빗방울이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늑한 산길, 조용한 발걸음으로 이 길을 무수히 오고갔을 법정(法頂) 스님을 생각합니다. 지난 봄 스님의 입적은 근래 보기 드문 쾌활한 사자후였습니다. 이 시대 누구보다 존경받는 스승이었지만 장의(葬儀)와 다비(茶毘)의 번거로움을 생략시켰고 많은 글로 중생들의 마음을 씻어주었지만 원적에 앞서 평생 쓴 글들이 '말빚'이 될까 염려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법을 설한다는 것은 설할 법이 없으므로 법을 설한다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수상록 법문집 기행서 번역서 등 40여 권의 책을 펴냈지만, 그 모든 말씀들이 중생계에 빚으로 남을까봐 더 이상 책을 출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 책들이야말로 스님의 '탑비'일진대, 후대를 향한 '흔적 지우기'가 다소 서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진정한 무소유는 무소유조차 소유하지 않는 것임을 가르치려 했음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굵어 졌던 빗방울이 장난처럼 다시 가늘어지고 산굽이를 돌고 돌아 감로암 앞에 이르렀을 때, '와!~' 하는 감탄사와 함께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감로암 앞 평평한 봉우리에 낙락장송처럼 홀로 서 있는 비 하나가 초록의 산들을 굽어보고 있는 풍경이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원감국사(圓鑑國師 1226~1292)의 비입니다. 지눌 이후 수선사의 6대 법주인 원감국사는 선교일치의 사상을 드높였으며 뛰어난 문장으로도 이름이 높습니다. <원감국사집>이나 <동문선>에 전하는 국사의 글들이 깨달은 이의 활달자재한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고향 장흥에는 장원봉이라는 산봉우리가 있는데 그의 형제들이 연이어 과거에 장원급제를 하여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전합니다. 세간의 명문가에서 공부하고 출세간의 명문도량 수선사에서 닦았으니 그 도의 높고 아름다움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종장(宗匠)이다 보니 임종게 또한 읽는 사람의 가슴을 환하게 합니다.


감로암 앞에 웅장하게 서 있는 원감국사 탑비.

돌아보니 세상살이 67년인데,
오늘 아침 모든 일을 마쳤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탄연하여 평탄하고
노두가 분명하니 어찌 길을 잃으랴.
손에는 겨우 하나의 대지팡이뿐이지만
가는 길에 다리가 피로하지 않을 것이
또한 기뻐라.

어쩌면 이 임종게의 분위기에서 법정 스님의 원적이 읽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송광사의 모든 유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유형과 무형을 떠나 조계산의 역사에 인연 지어진 모든 일들이 지눌 이후의 여러 국사와 이름을 남기지 않은 수행자들에 부합되어 있습니다.

선과 교를 둘로 여기지 않았으니 우주법계에 계합되지 않을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감국사에게서 법정 스님이 느껴지고 법정 스님에게서 보조국사가 읽혀지는 것이 당연하고 율원의 학승에게서 16국사의 풍모가 보이고 장중한 가람에서 선원과 강원의 학인들 체취가 느껴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송광사 스님이 곧 송광사입니다. 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어서 보조국사가 쾅쾅 친 주장자 소리가 아직도 조계산 골짜기에 가득한 것입니다.

다시 빗방울이 굵어지고 천둥 번개가 요란한 산길을 헤치고 드디어 불일암에 당도합니다, 암자에 이르는 대숲길이 극락으로 통하는 문인 것 같습니다. 고요합니다. 빗소리와 바람소리에 천둥소리까지 합세를 하지만 불일암은 고요합니다. 텃밭의 고추와 가지 토마토가 고요하고 후박나무 넓은 잎들이 후두둑후두둑 비를 맞으면서도 고요를 깨지 않습니다.

법정 스님이 손수 만든 나무 의자 하나가 놓여 있는 추녀 아래 사탕 바구니와 책 한권 그리고 볼펜이 놓여 있습니다. 옆에는 양은 세숫대야 두 개가 놓여 있고 앙증맞은 야생초들이 낡은 기왓장에 뿌리를 내리고 생글거리고 있습니다. 모두 그렇게 제 자리에서 제 이름을 지키고 있는 풍경, 그 속에 법정 스님만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법정 스님도 그 풍경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눈 어두운 순례자에게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법정 스님의 유해가 뿌려진 불일암 꽃밭의 후박나무 아래는 무형의 부도탑일 것입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음으로 하여 무수한 것을 보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음으로 하여 무수한 법음을 들을 수 있는 설법전인 것입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불임암에서 절대적인 무소유를 실천하려 했던 한 수행자의 초상을 그려 보다가 다시 대나무 숲길을 나오자니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거기 의자에 앉아 비스듬히 책을 읽던 법정 스님이 "차나 한 잔 하고 가지" 하며 조용한 목소리를 날려 보낼 것만 같아서 말입니다. 한 사람이 걷기에 딱 알맞은 넓이의 산길을 따라 내려온 곳에 탑전(塔殿)이 있습니다. 구산(九山 1909~1983) 스님의 부도와 일각(一覺 1924~1996) 스님의 부도가 모셔져 있고 그 뒤편에도 10여 기의 부도가 서 있는 그윽한 곳입니다. 근현대를 살다 간 송광사 고덕들의 부도가 새로운 부도밭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탑전에 이르는 문이 아주 독특합니다. 탑전 구역의 안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높다란 누각을 통해야 하는데 누각에는 '구산선문(九山禪門)'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송광사는 선종의 역사를 시작한 구산선문에 속하지 않는 도량입니다. 다만 구산당 수련대종사(秀蓮大宗師)의 부도와 탑비가 모셔진 탑비에 이르는 문임을 그렇게 우렁차게 암시하는 겁니다. 좀 더 마음을 낮추고 좀 더 지혜를 열고 들어오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는 현판의 글귀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각 아래에 두 사람이 팔을 벌려야 안을 정도로 굵은 통나무를 세우고 그 속을 파서 한 사람이 간신히 지나갈 수 있을 틈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틈을 통해 구산의 선문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가슴이 섬뜩할 만치 성성한 선기가 느껴지는 장치입니다. 그것이 구산 스님의 가풍이고 멀리 지눌 스님의 가풍인 것입니다.

탑전에 이르면 왼쪽으로 적광전이 보이고 정면으로는 구산 스님의 부도와 탑비 그리고 일각 스님의 부도와 탑비가 보입니다. 그 뒤 언덕에 키가 낮은 석종들이 줄을 지어 앉아 있습니다.

구산 스님의 부도는 아(亞) 자 형의 화강암 지대석이 높다랗게 받치고 있습니다. 그 위로 얹어진 하대석과 중대석 역시 같은 모양을 따라 탑의 높이를 받쳐주고 있으며 상대석은 팔각의 하부와 꽃받침의 상부로 이루어졌습니다. 중대석의 네 귀에는 사자가 포효하고 있고 난간을 두른 상대석 위에 둥그런 탑신이 올려 졌는데 탑신의 아랫부분은 연꽃잎이 수놓아졌습니다. 옥개석과 상륜부의 조각도 매우 우아하고 치밀하여 전체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장중한 탑의 형상이 높은 고승의 덕화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옆에 서 있는 탑비는 '전불심등부종수교조계사조총림방장구산당수련대종사적광탑'이란 긴 이름을 전면에 새기고 생애와 사상을 옆면과 뒷면에 새겼습니다. 비문은 일타(日陀) 스님이 찬했고 앞면의 글씨는 일중 김충현 선생의 솜씨, 비문은 초정 권창윤 선생의 글씨입니다.

구산 스님은 전란으로 피폐한 송광사를 오늘의 대도량으로 일군 주역입니다. 구산은 당호이고 법명은 수련이며 석사자(石獅子)라는 별호로도 유명합니다. 전북 남원에서 출생하여 27세에 지리산 영원사에서 100일 동안 천수 기도를 하고 병을 낳아 출가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런 것을 숙세의 인연이라고 하겠지요. 이듬해 효봉 스님을 은사로 송광사 삼일암에서 사미계를 받고 통도사에서 해담 스님에게 비구계를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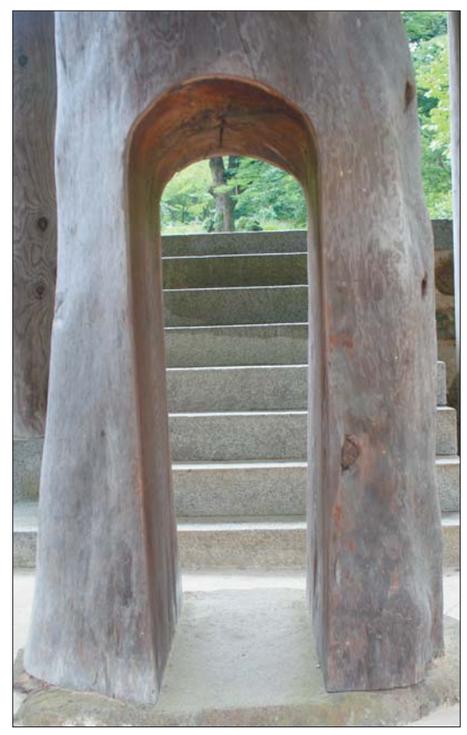
제방 선원에서 운수의 행을 착실히 밟았고 효봉 스님의 법을 이어 경향각지에서 정진과 전법에 게으로지 않았으며, 정화불사 동참, 중앙종회의원, 대구 동화사 주지 등 종단 소임도 맡아 직분을 어지기 않았습니다. 1969년 송광사 조계총림이 개설되어 방장에 추대되었고 곧바로 불일회(佛日會)를 창립하여 보조국사 이후 면면히 이어 온 정혜결사의 정신을 현창하는 기틀을 놓았습니다.

구산 스님의 부도와 탑비 아래에 꼿꼿한 인상으로 서 있는 부도는 '전불심등구제조명개인안목총림방장회광당일각대종사지비'입니다. 송광사 방장을 지낸 일각 스님의 비문도 일타스님이 지었습니다. 비문에는 현대에 맞는 포교방법을 개발하면서 전법에 매진했던 일각 스님의 생애가 가슴 뭉클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정 스님 유해 뿌려진 불일암 화단 '이름 없는 부도밭'
과거 수행자와 오늘의 수행자 둘 아니게 존재하는 도량

흔히 송광사에 가면 대웅보전과 경내의 전각들만 보고 오기 일쑤입니다. 송광사야말로 한나절 둘러보는 절이 아니라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샅샅이 둘러봐야 할 절입니다. 거기 암자마다 모시고 있는 옛 스님들의 부도는 물론이고 크고 작은 부도밭이 골골마다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임연태 (시인 · 본지논설위원)


구산선문에 들어가는 통나무 문.

기적의 목 • 어깨 전문 지압기 보급에
함께하실 전국 지역 총판 대표님을 모십니다

세계유일의 가정용
경추지압장치입니다.

사용 즉시 효과 100%

• 40,50견으로 어깨가 자주 결리고 아프신 분
• 목디스크 환자
• 운전 등으로 목이 자주 피로하신 분
• 수면자세가 불량하여 목이 불편하신 분
• 두통, 치통, 코막힘 등 얼굴과 머리부위 이상
• 테니스, 골프 엘보
• 악기 연주시 손가락 저림 현상을 느끼시는 분
• 목에 통증과 피로를 자주 느끼시는 분

The People for the human being
KUNHEUNGTECH
서울시 서초구 양제동 402-12 서도빌딩 5층
www.kun-heung.co.kr

지역 총판 특전
1. 무자본으로 40억
2. 소자본 무점포 사업
3. 마케팅 Tool 지원
: e-마케팅지원 (검색광고지원)
: 팜플렛 / 리플렛 / 포스터지원
: 판매메뉴얼제작 / 배포 → 방판사원 교육지원



• 특허등록출원 제2010-34096호
• 상표등록출원 제2010-39768호
• 디자인등록출원 제2010-0035647호
• FDA등록출원

전화 주시거나 방문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설명하여 드립니다.
상담 및 주문전화
02)2058-1482~3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거제도 총명사 아미타후불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31>

백운은 깊은 골짜기로 모인다

조주 스님이 대중에게 설법했다.
"용녀가 마음으로 친히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것은 전적으로 '자연적인 일'일 뿐이야."
학승이 물었다.
"이미 자연적인 일이라면 공양 올리는 것은 뭐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만일 바치지 않는다면 어찌 자연적인 일임을 알겠는가?"

師示衆云 龍女心親獻 盡是自然事
問旣是自然 獻時爲什麽
師云 若不獻爭知自然

조주 스님은 <법화경>에서 용녀가 보배구슬을 가져다가 부처님께 공양올린 것을, 거기 분명 용녀가 인위적으로 공양 올렸던 사건을 두고 자연적인 일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자 학인이 용녀의 헌공은 분명 자연적인 일이 아니고 인위적인 일이지 않느냐고 되물은 것이다.

그런데 조주 스님은 분명 용녀의 헌공을 자연적인 일로 보았다. <법화경>에 보면 용녀는 보배구슬을 부처님께 올리고 곧 성불했다. 그렇다면 용녀는 귀한 보배를 공양 올리고도 올렸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말이 된다. 보배를 올리고도 올렸다는 생각이 없다면 그 사건은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의 일과 다름이 없지 않는가. 그리고 그 사건이 자연적인 일인지 인위적인 일인지 알려면 귀한 보물을 공양 올려보아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가령 부처도 없고 사람도 없는 곳에도 수행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 두 가지가 없어도 백 천만 억의 수행이 있느니라."
학승이 물었다.
"도인(道人)이 왔을 때는 어디에 있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대가 도인이라면 수행하지 않을 거야."
학승이 예배하자,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대를 둘 큰 장소가 있어."

問 無佛無人處 還有修行也無
師云 除却者兩箇 有百千萬億
學云 道人來時在什麽處
師云 你與麽卽不修行也 其僧禮拜
師云 大有處著你在

수행은 그른 것을 바르게 가도록 하는 일종의 훈련이다. 조주 스님은 이런 수행은 설사 부처가 없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백천만억의 수행이 있다고 했다. 이것은 세계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다. 세계는 사람 말고도 많은 생명이 있다. 그들 중 동물의 세계를 관찰해 보면 거기에도 그른 것을 바르게 가도록 하는 법칙이 행해지고 있다. 서열이 있고 약자는 사라지고 강자는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있다. 그러한 법칙을 인간의 잣대로 옳다 그르다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자연에서는 자연의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하나의 공평한 법이기 때문이다. 동물은 서로 서로 그 법을 이어가도록 훈련하고 교육을 시켜준다. 그들만의 수행인 것이다. 또 식물의 세계에서도 유전을 통한 진화라는 일정한 법칙이 있다. 법을 지켰을 때는 순조롭게 진화하지만 법을 어겼을 때는 사멸하고 만다. 이러한 냉혹한 법칙을 식물들도 대대로 경험을 통해 안다. 따라서 식물의 세계에서도 훈련이 있는 것이다. 그 외에 알 수 없는 많은 세계에서도 바르게 나아가기 위한 수만 가지 수행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주 스님의 관점에 대해 학승은 도를 터득한 도인(道人)을 내세워 도인은 수행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한 것이다. 그러나 조주 스님은 설사 도인이라 해도 수행은 필요하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본 <조주록>에서도 노화상인 조주 자신도 수행한다고 말했던 것이다. 선문(禪門)에서 수행은 부처의 행을 행하려는 노력이다. 도를 깨달았다고 해도 수많은 진화의 세월 동안 익혀온 습관은 하루아침에 제거될 수 없기 때문에 도인도 끝없이 수행해야 한다. 역대 선지식의 법은 도를 깨달아도 수행하는 법이다. 물론 도인의 수행은 좀더 세부적인부분까지 나아간 수행일 뿐이다. 이것을 모르는 자가 도인이 된다면 그는 수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자만하고 있다가는 나중에 반드시 팔만사천 대지옥을 참관할 기회를 만나고 말 것이다.

수행은 그른 것을 바르게 가도록 하는 훈련
선지식의 법은 도를 깨달아도 수행하는 법

학승이 물었다.
"백운(白雲)이 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노승은 기상에 대해서는 몰라."
학승이 말했다.
"어찌 주객이 없을 수 있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나는 주, 자네는 객이야. 백운 따위가 어디에 있나?"

問 白雲不落時如何
師云 老僧不會氣象
學云 豈無賓主
師云 老僧是主黎是賓
白雲在什麽處

이 문답은 명칭에 집착하는 학승을 경책해주는 내용이다. 백운(白雲)은 흘러가는 구름이고 청산(靑山)은 우뚝 솟는 산이다. 골짜기가 깊은 산일수록 백운이 몰려와 모인다. 이것을 비유해 운수납자들은 백운(白雲)이라 하고 총림에서 사람을 지도하는 방장이나 절의 대소사 소임을 보는 사람들은 청산(靑山)이라고 부른다.

백운은 좋은 스승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수행자이기 때문에 청산에 얼마간 머물다가 곧 떠나가는 자유로움이 있고 때로는 그것을 운수승의 멋스러움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에 반해 청산은 맡은 임무가 있어서 몇 년씩 절을 떠나지 못하고 묶여 있게 된다. 사원의 주지나 총무, 재무 소임을 사는 사람들은 주로 근기가 낮고 우둔해 공부의 그릇이 되지 못한다고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한동안 대중을 보필하는 복이나 짓겠다고 자원한 사람들이다. 그러하므로 가끔 보필을 받는 백운 납자들이 자신들은 우월하고 청산 소임자들은 하열하다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미숙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다.

이러한 백운들의 오만함을 조주 선사는 꼬집어 준 것이다. 이곳은 묻는 자와 대답하는 자만 있지 백운이니 청산이니 하는 명칭 따위는 없다는 것이다. 가끔 보면 수행자에게 있어서 명칭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명칭에 목은 메는 자들이 있다. 주지, 의원, 대표,… 등 이러한 명칭들은 도를 닦는 납자들에게는 한 낱 뒷간에서 쓰다 버린 휴지보다도 더 더러운 것으로 알아야 한다. 기상에 대해 모른다는 말은 조주 스님이 백운이 많이 몰려오던지 덜 몰려오던지 상관이 없다고 말한 것이다. 방장이 훌륭해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통하게 해주면 많이 몰려오겠지만, 선사의 법은 항상 무뚝뚝하고 본질을 향한 한 두 마디가 전부인데, 어찌 미숙한 백운의 심정에 일일이 맞겠느냐는 것이다. 사람이 깨닫고 못 깨닫는 것은 납자의 간절한 마음에 있는 것이지 선사의 법문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사들은 좀처럼 방할과 격외구를 버리지 않는다.

■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귀 교수의 **선어록 해제** ⓬ 마조어록 (馬祖語錄)

해탈을 잘 유지하는 것이 수행

<마조어록(馬祖語錄)>은 마조도일(馬祖道一:709~788)의 어록으로 <사가어록(四家語錄)>본에는 <강서마조도일선사어록(江西馬祖道一禪師語錄)>이라는 명칭으로 전하고, <고존숙어록(古尊宿語錄)>에는 <마조대적선사(馬祖大寂禪師)>라는 명칭으로 전한다. 기타 마조의 법어는 <조당집> <경덕전등록> <종경록> <천성광등록> 및 대혜의 <정법안장> 등에도 전한다.

<마조어록>에는 조사선의 생생한 모습이 엿보인다. 조사선(祖師禪)의 조사(祖師)란 쉽게 말하면 소위 큰스님 혹은 석존의 정법안장을 전승한 사람 내지 수행과 깨침의 전형적이고 이상적인 인간상을 일컫는 선종의 말이다. 선종사의 측면에서 보면 인간에 대한 크나큰 긍정을 몸소 체득하고 실천한 인물로서 중국의 선사상과 선문화의 바탕에서 형성된 개념이기도 하다. 따라서 조사선은 그와 같은 조사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전개된 일련의 선풍과 선수행과 내지 선사상을 아우르는 말이다. 선풍으로 말하면 인간에 내재하고 있는 그 존엄성과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해 바람직하고 완전한 인간상을 실현한 사상을 말한다. 수행으로 말하면 스승이 제자를 지도하는데 있어 제자가 지니고 있는 바탕을 100퍼센트 긍정해 제자 스스로가 그것을 터득하고 실천하게끔 만들어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마조도일(馬祖道一:709~788)

이와 같은 조사선은 보리달마로부터 전승된 대승의 선법이 바야흐로 홍인과 혜능시대에 다져진 개인의 종교적 요구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전개돼 그것을 계기로 한껏 꽃을 피운 시기에 나타난 선법이다. 그래서 조사선의 형성과 그 전개는 시기적으로 보면 인간의 자각이 싹트기 시작해 사회와 문화의 전반에 걸쳐 반성이 요구됐던 중세시기에 해당하면서, 지역적으로는 선법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됐던 강서의 홍주지방과 호남지방이 해당되고, 교단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과 본래성을 처음부터 철저하게 긍정한 소위 남종 내지 그와 유관한 종파가 해당된다.

이와 같이 조사라는 개념은 불교사적으로는 중국에 불교가 전래된 이후 수 백년에 걸친 번역의 시대가 지나고, 번역된 경론을 바탕으로 해 본격적으로 불교의 정신을 연구하고 그것을 현실에서 구현하려는 결과이기도 했다. 때문에 조사선은 가장 일상적인 가르침이면서 구체적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개개인의 활동을 진리의 작용으로 긍정하는 입장에서 다루어지고 발전돼 갔다. 그 가장 선구자적인 역할을 주도했던 인물이 마조도일이다.

마조도일은 법계상으로는 조계혜능 – 남악회양 – 마조도일로 이어지는 인물이다. 특히 마조도일은 강서의 홍주지방에서 크게 교화를 펼쳤기 때문에 그 선풍을 홍주종(洪州宗) 내지 강서종(江西宗)이라고도 부른다. 여기에서 전개된 마조의 조사선풍은 이후 모든 선풍의 그 귀감이 됐다. 조사선 가풍의 특색은 무엇보다도 그 본래심에 대한 자각과 현실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평상의 마음이 곧 깨침이라는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의 주장이 가능했다. 이 평상심은 개개인이 구비하고 있는 청정무구한 본래심을 가리킨다. 이에 대하여 마조의 "깨침은 새삼스럽게 따로 추구할 필요가 없다.[道不用修] 다만 본래성품이 번뇌에 물들지 않을 뿐이다.[但莫染汚]"는 말처럼 철저한 본래적인 입장에서 마조는 평상심을 강조했다. 애당초 번뇌에 물들지 않고 가장 완전한 자연을 닮은 행위를 평상심이라 했다. 때문에 즉심즉불(卽心卽佛)이라는 말은 평상심에 완전하게 계합돼 그대로 활동하고 있는 마음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조는 말한다.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고 제법은 곧 해탈이다. 해탈은 곧 진여이니 제법은 진여를 벗어나지 않는다. 행주좌와(行住坐臥)가 모두 부사의한 작용이므로 굳이 시절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재재처처(在在處處) 사사건건(事事件件)을 모두 불이라고 말한다."

마치 수면에다 글씨를 쓰는 것과 같아서 생도 없고 멸도 없으니 이것이 대적멸(大寂滅)이다. 단지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얻으려는 마음을 그치고 자신의 본질에 충실한 것이다. 이것이 조사선의 가르침이고 조사선이 추구하는 바였다. 때문에 현재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상의 행위에 대해 우선 모든 반연을 그치고 만사를 휴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해탈이라 말한다. 그 해탈을 잘 유지하는 행위가 수행이고 보살행이다. 마조는 본래의 자성을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자신이 실현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직 번뇌에 휩싸여 있을 때는 여래장이라 하고 번뇌를 벗어났을 때는 청정법신이라 말한다. 이로써 마조는 조사선을 저 높이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 밑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일상선 내지 활용선으로 끌어내렸다. 조사선이 모두의 민중선으로 현실되는 것이 마조가 바라는 것이었다. 이것을 개개의 인간에게서 발견하고 일상의 행위에서 추구하며 먼 미래가 아닌 지금에 이루어나가는 것이 조사선의 이념이고 풍모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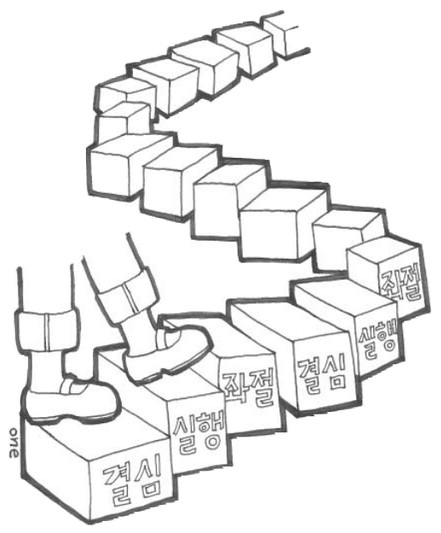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당신은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삶을 코칭하라!



펌프로 물을 퍼올리기 전 물이 잘 나오도록 하기 위해
펌프에 부어주는 '마중물', 펌프를 작동 시키려면
꼭 필요한 것이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다.
땅 밑을 흐르는 양질의 지하수가 아무리 풍부해도
이 한 바가지의 물이 없으면 이를 퍼올릴 수 없듯이
인간 내면의 잠재력을 퍼올리기 위해서는 '코칭'이라는 마중물이 필요하다.



〈마중물의 힘〉은 저자가 자신의 인생역정 중에서 생각하고 경험한 것을, 코칭이라는 요즘 알려지기 시작한 특수한 기법에 엮어, 단문의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 책은 하나의 지식이 단지 도구적인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는 지혜로 발전할 수 있는가를 실천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시사점이 많은 '위기지학' 매뉴얼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안성두 (서울대 철학과 교수)

인생의 모든 답은 누군가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 그 답을 갖고 있기에 그것을 찾고 그 답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다.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코칭은 좋은 동반자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궁극에는 '코칭'이라는 말도 버려야 한다고 천명한다. 가장 불교적이면서도 가장 코칭적인 선언이다. 불교도 코칭도 넘어서는 '그 무엇'을 향해 나아갈 때 인간은 완성의 길로 가는 궤도에 올라서게 되는 것이다.

보관 스님 (남춘천 자비정사)

코치 허달의 사통팔달

마중물의 힘

여시아문 허달 지음 | 224쪽 | 10,000원 (3만원 이하 택배비 별도)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참선수행으로 이분법 넘은 절대자유 맛볼 수 있어



간화 禪 세계를 비추다

❸수불 스님 안국선원장

간화선 수행의 대중화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은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로버트 버스웰)이 동국대 중강당에서 개최한 간화선 국제학술세미나 이튿날인 8월 13일 '간화선 수행의 대중화'를 주제로 기조법문 했다.

참선은 반야지혜를 통해 내면의 무명을 밝힐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진리당처의 핵심 오의(奧義)를 곧바로 드러내게 한다. 선이 현실 속에 등장함으로써,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리석은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선과 악으로 나누어진 이분법적인 사회윤리를 넘어서서 선과 악을 둘로 보지 않는 지혜를 터득하기 위해서는 참선 수행을 통해 눈앞에 보이지 않게 가로놓여진 정신적인 벽을 깨트리고 절대자유를 맛볼 수 있어야 한다.

중국의 선종(禪宗)은 인도의 28대 조사이자 중국에서는 첫 번째 조사인 보리달마로부터 시작됐다. 실질적으로 조사선은 육조혜능(六祖惠能) 선사가 제창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육조 선사는 모든 사람이 본래 지닌 자성(自性)을 직시해 바로 그 자리에서 몰록 깨치는 돈오 견성(見性)을 천명했다. 중국의 선종이 면면히 흐를 수 있었던 것은 육조께서 이러한 돈오선법을 온몸으로 펼쳐냈기 때문이다.

조사선이란 깨달음을 완성한 역대 조사들이 본래 갖춰져 있는 성품을 바로 눈앞에서 들어내 보여주신 법문이다. 이 법문으로 말길과 생각의 길이 끊어진 자리에서 한 생각 돌이켜 스스로의 성품이 본래 부처임을 명확히 깨달으면,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자재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일단의 일은 선지식, 즉 명안종사(明眼宗師)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모든 선어록에서 볼 수 있듯이 선종 특히 조사선 계통은 종사가 제자를 지도하는데 있어 지사문의(指事問義)의 방법으로 이뤄졌다. 그 과제와 내용은 스승과 제자가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정법의 안목을 체득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답들이 어록으로 기록되고 전승돼, 송대에 이르러 본칙공안(정형화된 1700 공안)으로 완성됐다.

간화선은 남송대(南宋代)의 대혜종고(大慧宗杲) 선사가 묵조사선(默照邪禪)의 무사안일한 적정주의(寂靜主義)에 빠진 당시의 상황을 개탄해 주창했다. 간화선은 부처님과 조사스님들의 깨달은 기연(機緣)과 상대방을 깨닫게 한 인연 등이 기록된 것을 근거로 해서 정해진 본칙공안 중 하나를 들어 철두철미하게 의심되어진 화두를 들게 함으로써 돈오하게 한 수행방법이다. 즉, 조사스님들이 법을 거량하거나 선문답을 해서 깨닫게 한 판례(判例)를 본칙공안이라 하고, 이를 통해 의심이 돈발(頓發)한 것을 화두라고 한다. 선지식께서 믿음을 낸 이에게 화두를 들게 하는 것, 즉 참의심을 불러일으켜 깨닫도록 한 것이 간화선인 것이다.

조사선에서는 공안 그 자체가 화두라고 할 수 있지만, 간화선에서는 '공안에서 비롯된 의심'이 화두이다.

간화(看話)란 말 그대로 '화두를 지켜본다(의심한다)'라는 뜻이다. 간화선에서 화두는 공안과 엄격하게 구분돼야 한다. 공안이 단순하게 판례집에 기록된 선대의 선문답이라면, 화두는 특정한 공안이 개인의 내면에 투철한 문제의식으로 자리를 잡은 경우를 말한다. 만약 공안을 실제로 자기 문제로 의심화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살아 있는 활구(活句)가 되지 못하고 단순하게 지나가 버리는 공허한 이야깃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과연 어떻게 수행하도록 이끌어야 실제로 돈오를 체험케 할 것인가? 간화선은 어떤 원리와 실제에 의해 운용되는가? 깨달음으로 가는 장치는 어떻게 시설되는가? 소납은 지난 20여 년 동안 1만여 대중들을 대상으로 간화선 수행을 지도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간화선이야말로 대중화 할 수 있고 또 마땅히 대중화돼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안국선원에서는 간화선 수행을 하러온 사람에게 화두를 들게 하기 전에, 먼저 초심자 법문을 들려준다. 참선수행을 하기 전에 종교를 믿어야 하는 이유와 수행의 필요성에 대해 스스로 납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고 간절하게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참선수행에 임하게 하려는 뜻에서이다.

간화선 수행을 하려는 초심자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선지식과 이 수행법에 대한 큰 믿음(大信心)이다. 수행자가 선지식에 대한 큰 믿음이 없다면 자기가 가진 선입견과 알음알이로 인해 이후 화두 참구 중에 발생하는 각종 경계를 이겨낼 수 없다. 오직 결정된 믿음(決定信) 만이 이 공부를 성취하게 해줄 수 있다.

수행자에게 필요한 두 번째 요소는 이 벽을 꼭 뚫고야 말겠다는 대분심(大憤心)이다. 실제로 은산철벽에 부딪쳐보면 아무리 애를 써도 쉽게 뚫을 수 없기 때문에, 애간장이 타지 않을 수 없다. 너무나 막막하고 갑갑하며 끝도 보이지 않아서, 울분이 솟아나고 오기도 발동한다. 그럴 때 선지식이 공부 길을 부추기면 꽉 막힌 기운이 천지 분간 못하고 치솟게 되는 법이다. 이 분심이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터져 나와야 용맹스런 추진력이 생겨 눈앞의 철벽을 뚫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때의 수행자는 천군만마 속에 단기필마로 쳐들어간 장수처럼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

세 번째로 필요한 요소는 활구 의심이 들려져야 한다는 점이다. 수행자는 마땅히 본참 공안 상에 나아가 의심을 일으키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의심되어진 화두를 들고 참구해야, 생사심(生死心)을 타파할 수 있다.

이렇게 간화선 수행을 하는데 꼭 필요한 신심, 분심, 의심을 간화선의 삼요(三要)라고 한다. 일단 이 세 가지 요소가 구비되면, 즉 신심과 분심이 충만한 상태에서 활구(活句)를 들고 의심하면, 그 의심은 단기간 내에 타파될 수밖에 없다. 중국 송말 원초(宋末元初)에 살았던 고봉원묘(高峰原妙) 선사는 <선요>에서 이렇게 말했다.

"참선하는데 만일 한정된 날짜에 공을 이루려면 마치 천길 우물에 빠졌을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밤이나 낮이나 천 생각 만 생각이 오로지 다만 한낱 우물에서 나오려는 마음 뿐이고 끝끝내 결코 다른 생각이 없는 것과 같이 하여라. 진실로 이렇게 공부하기를 혹은 3일 혹은 5일 혹은 7일 하고도 깨치지 못한다면 서봉은 오늘 큰 망어를 범했으므로 영원히 혀를 뽑아 밭을 가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간화선은 조사선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두 수행법 모두 그 근본 원리는 동일하다. 즉 수행자는 의심에 걸려야 하고, 그것이 점점 커져서 온몸에 꽉 차면, 시절인연을 만나 타파되면서 돈오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 같다. 하지만 처음부터 선지식이 공안을 통해 초심자에게 화두를 걸어주고 결국 타파되도록 이끈다는 점에서 간화선 수행이 현실 속에서 공부하려는 이들에게 잘 맞는다.

현재 안국선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간화선 수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각자에게 손가락을 튕겨 보라고 한 뒤에 문제를 제시한다.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손가락이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도, 마음이 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인가?"

이와 같은 문제를 듣고 보았다면 문제에 따른 답만 찾으라고 주문한다. 그리고 문제를 따라 답을 알려고 하는 생각이 일어났다면, 뭔가 석연치 않은 기운이 마음 속에 걸리게 된다. 무엇인지 모를 답답한 기운이 수행자의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그런 기운이 왜 생겼겠는가? 마치 목마른 자가 물 찾다가, 물을 만나지 못하면 목만 더 마르게 되는 경우와 마찬가지 현상이다. 답답하니 알려고 해야 하고, 알려고 하면 할수록 궁금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와 같이 되었을 때 계속해서 답을 찾고 찾으면서 끝까지 이 답답함을 놓치지 않고 온몸으로 의심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들려진 활구 의심을 참구하라고 선지식은 수행자를 다그치게 되는 것이다.

공부 중에는 혼침이 가장 무섭기 때문에 앉아 있을 때는 눈을 뜨고 화두를 들고 졸리면 누워서 자라고 말한다. 그런데 자려고만 하면 깨우는 기운이 있어 잠을 자지 못하게 한다면 더 이상 자려하지 말고 일어나 앉아서 최선을 다해 화두를 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앉아 있을 때 5분 정도 눈을 감았다가 뜰 수는 있어도 그 이상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공부가 되는 것 같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눈을 뜨고 공부를 지어 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산란심, 즉 번뇌 망상이 일어나더라도 무시하고 내버려 두라고 말해준다. 번뇌 망상을 없애고

간화선 화두는 공안과 엄격하게 구분 돼야
정중동 되면 '거문고 줄 고르듯이 하라'

현지사 소개
그 첫 번째 이야기

팔정도 칭명염불의 부처님 정법 교단 영산불교 현지궁 현지사

겁에 한번 나오는 붓다 회상 –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도한다


4월 초파일 봉축 10만 2천 등 전경 사진

마침내 붓다의 삼매인 '대적정삼매'를 통과하다

통도사 경봉스님 문하에서 10년간의 화두선을 통해 화두를 타파하고 공성을 증득한 자재만현 큰스님, 공성증득의 한계를 절감하고 그로부터 또 다시 30여년간 팔정도 칭명염불수행에 전념하여 2000년, 마침내 대적정삼매를 통과하다. 육도를 벗어난 아라한의 금강삼매, 불퇴전 보살의 해인삼매를 넘어 수많은 삼매를 증득하고도 보지 못했던 육도윤회의 실상, 대적정삼매에 이르러서야 지옥을 비롯한 인간의 육도윤회의 실상을 확연히 보게 된다.그리고 마침내 무아 속 절대계의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부처님을 친견하다.

석가모니부처님의 진정한 법통 계승종단, 영산불교

우리 교단은 조계종도 태고종도 천태종도 아닙니다. 우리는 영산불교입니다.

모든 교단이 스스로 부처님의 법통를 이었다고 자처하지만 진정한 불법의 법통 계승종단은 바로 영산불교뿐입니다.무아 속 절대계에 계신 현재의 부처님 말씀을 전해드리는 진정한 정법 종단입니다.

영산불교 창립 선포식

불기 2551년(2007년) 음력 6월 15일, 아난존자의 후신, 자재만현 큰스님께서는 부처님 법 상속자 가섭존자의 후신이신 만덕 큰스님으로부터 전법통증서를 물려받고 영산불교의 창립을 선포했습니다.
재단법인 영산불교 유지재단이라는 법인명과 함께 현지궁 현지사라는 사찰명을 가지고 있으며 '현지사(顯智寺)'는 삼매 속 부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으로 지혜가 드러나는 절이라는 의미입니다.

오탁악세의 현실을 너무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을 보았습니다.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저승을 가지 못하고 춥고 배고픈 채 무주고혼으로 이승을 떠돕니다. 그나마 저승에 들어간 사람들도 90%이상이 지옥에 떨어져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착하게 산다는 것을, 영원한 행복을 위해 수행을 한다는 것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하는 바보스러운 행동으로 인식하고 있는 지금의 세상에 그것이 옳았노라 선언해줄 선지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경전에서 그러더라', '누군가가 그러더라'가 아닌 '내가 보고 확인하였으니 그것이 진실이노라.' 하는 그 힘있는 선언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부처님을 모르면서 부처님종교(불교)라 하는 세상

불교는 말 그대로 부처님과 그 분의 가르침을 말합니다.그러나 많은 불자들이 자성(마음)을 붓다로 알고 무아 속 절대계에 계신 인격적 부처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경전을 읽을 때, 부처님께 예불할 때, 어떤 부처님을 칭명할 때, 진정으로 부처님께서 계심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종교가 진실한 불교입니다. 수행중에 보게 되는 하늘마들의 변화신과 차원이 다릅니다.
저 깊고 깊은 무아 속 절대계에 계신 우리의 부처님께서는 형체와 인격을 지니신 채 우리 착한 불자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부처님을 알아야 합니다.이제 현지사가 세계 5억 불자님들 앞에 부처님의 실존을 이야기하고 사후세계, 육도윤회의 실제 모습을 확연히 드러내 보일 것입니다.현지사에서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 효행 · 나라사랑 · 스승공경, 법의 계율, 보살행, 실천행을 주장합니다.이것이 세계적 종교, 범우주적 종교, 정법인 영산불교가 걸어나가는 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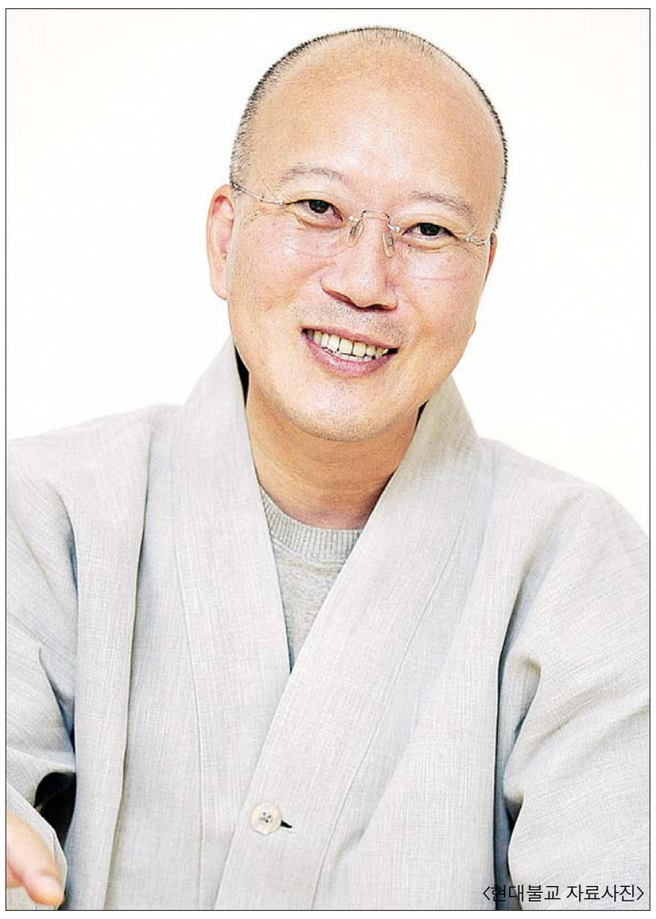
■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Ⅰ · Ⅱ(한글 · 일어 · 영문판) 자재만현 · 광명만덕 공저 | 385면 | 25,000원
■ 영산불교사상과 본문묘법연화경 | 381면 | 25,000원
■ 영혼체윤회론 | 사상연구소 | 158면 | 10,000원
■ 관음태교에서 천도까지 | 사상연구소 | 311면 | 15,000원
■ 붓다의 메시지 존평 | 사상연구소 | 506면 | 15,000원
■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요해 | 사상연구소 | 269면 | 15,000원
■ 칙천무후 | 송도현 | 238면 | 15,000원
■ 영산불교의 법세계 | 사상연구소 | 80면 | 10.000원
■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 | 사상연구소 | 489면 | 15,000원
■ 비교종교학 | 김중섭 | 537면 | 25,000원
■ 법문집 Ⅰ Ⅱ ⅢⅣ | 자재만현 | 631 · 540 · 648면 | 20,000원

※자재만현 큰스님 BBS TV 법회 월1회 방영중!!
(QOOK 550, BTV 521, U+108번)

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천하는 현지사에서는
'부처님께서 주관하시는 천도대재'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현지사 대법회 – 매월 음 8일, 23일 http:// www.hyonjisa.com 영산불교 현지사 춘천 본사 033)243-1787,1795 / 대전 분원 042)525-5325, 5345 / 부산분원 051)554-5150

간화선은 미래불교의 대안



공부하려 하지 말고, 같이 동행하되 화두에만 집중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문제와 더불어 의심되어진 그 갑갑함이 바로 활구의심인 것이다. 이렇게 잡들여진 화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 주지시킨다.

지금 화두가 들려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해준다. "알약을 먹으면 그대로 있나? 몸에 들어가면 녹아버린다. 약이 몸 밖으로 나간 게 아니라, 몸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화두 의심도 같은 이치다. 선지식이 문제를 던졌을 때 답을 모르니까, 그 문제가 온몸에 퍼져 의심화 된 것이다. 그러니 그 의심화 된 것을 계속 집중하고 추궁하라. 내면으로 돌이켜 자꾸 살펴서 한 덩어리가 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참구할 때, 어떤 역순경계가 나타나더라도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두고 그럴수록 화두에 집중하라"고 말한다.

안국선원에서는 화두 참구하는 수행자를 향해 "머리에 불붙은 것처럼 공부하라" 혹은 "가시 달린 쇠 채찍을 맞는 아픔을 느낄 정도로 뼈저리게 공부하라"는 입장을 그대로 공부 중에 수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독려한다. 또 수행자를 격발시키기를 "생사를 걸고 은산철벽을 깨트리려는 수행자가 무슨 거문고 줄을 고르듯이 앉아 있을 여유가 있겠는가? 처음부터 선지식을 의지해서 공부하는 수행자라면 거문고 줄이 끊어져도 좋다는 식으로 참구해야 한다"고 말해준다.

참고로 많은 수행자들이 따르고 있는 '거문고 줄 고르듯이 하라'는 것을 비유해서 말하자면 팽이를 칠 때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는 것을 때려서 최선을 다해서 정중동(靜中動)으로 만들어야 하지만, 일단 정중동이 된 뒤에는 치지 않고 지켜보는 것처럼, 거문고 줄 고르듯이 하라는 말이다.

수행자는 시종일관 답을 찾는데 혼신의 힘을 경주해야 한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공안의 문제는 이미 제시됐는데, 왜 답을 찾는 일을 하지 않느냐?"이다.

일념이 만년 되도록 집중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다보면 정신적인 벽이 계속해서 앞으로 다가오게 된다. 이 때 머리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온몸으로 그 벽을 향해 더욱 더 화두에 집중해서 부딪쳐가야 된다. 집중하면 할수록, 공부를 방해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 어떤 방해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화두에만 집중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만일 화두에 집중하지 않고 방해 받는 것을 없애고 공부하려면 방해는 없어지지 않는다. 방해가 일어나던지 없어지던지 내버려두고 화두에 집중하다보면 방해는 저절로 사라진다.

참구 중에 눈앞에 밝은 빛이나 형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갑자기 전혀 알 수 없었던 공안이 이해되기도 한다. 이 같은 것은 모두 경계이므로 학인은 경계를 가져 깨달음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런 병통도 옆에 선지식을 모시고 공부하고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만일 혼자 수행하다가 이런 경계를 만나게 되면 반드시 선지식을 만나 뵙고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답을 찾다가 활구의심이 익어지면 화두를 굳이 들려하지 않아도 들려지고, 내려놓으려고 해도 놓아지지 않게 된다.

화두의심이 회광반조(回光返照) 되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아서 안과 밖이 그대로 화두와 더불어 한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인연 따라 내면의 경계는 맑고 고요하더라도 화두 기운 따라서 목과 명치가 꽉 막혀 숨도 쉬기 어려울 지경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할 때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견뎌내야 한다. 온몸이 타성일편(他成一片) 되어 의단이 독로(獨露)하게 되면, 곧 시절인연을 따라서 안목이 열리게 된다고 했다.

의단이 독로되어 안팎이 한 덩어리가 되면, 곧 시절인연 따라 마른하늘에 벼락 치듯, 매미 허물 벗듯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 통쾌하고 시원하며 가벼운 것이 마치 나무통을 맨 테가 '팍'하고 터지는 것처럼 문득 의단을 타파하게 된다.

대사를 마치고 난 뒤에는, 이 일단의 일을 알 수가 없어 그렇게 갑갑하던 마음이 순식간에 텅 비게 된다. 온 몸과 마음이 새의 깃털보다 가볍고, 앞뒤가 탁 트인 것이 끝간 데가 없이 시원하고, 평생 짊어지고 다니던 짐을 일거에 내려놓아 홀가분해진다.

이와 같은 시절인연은 직접 체험해 봐야 알 수 있다. 그런 연후에 속히 눈 밝은 선지식을 찾아가 점검받고, 뒷일을 부촉 받아야만 한다는 점을 명심해서 실천해야 할 것이다.

간화선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선학적인 근거가 필요하며 동시에 이 바탕 위에서 화두 의심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타파해야 한다. 간화선은 앉아있음만으로 선을 삼는 묵조선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제기됐음에도, 간화의 정신에 입각한 동정일여(動靜一如)의 수행방법보다는 단지 오래 앉아있는 것만으로 수행을 삼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는 묵조사선의 무리와 다를 바가 없다. 한국의 간화선이 만약 선정주의에 치우친다면 올바른 지견(知見)을 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혜쌍수의 수행전통에도 위배된다.

결제 · 해제 법문 때, 법문은 조사선 입장으로 하면서 수행은 간화선으로 하라고 요구한다면 그 수행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오늘날 법문을 듣는 수행자들에게 간화선에 대한 활발발하고 직접적인 방법을 제시해서 활구를 의심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화두참구를 지도할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눈 밝은 선지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종단차원에서 간화선 수행만 전문으로 할 수 있는 특별한 수행공간을 마련하고 간화선 연구원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한다.

어떤 수행보다도 간화선 수행이 한국불교의 기복적이고 비불교적인 행위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불교의 새로운 대안이라는 점을 명심해서, 간화선과 화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참의심을 불러일으켜 올바르게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장치해야 할 것이다.

조계종단의 수행체제가 보다 완벽하게 구비될 때, 한국불교 세계화의 실현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것이며, 세계인에게 간화선 수행을 통한 정신적 이익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리=조동섭 기자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

무명의 승려 일본 최초 불교설화집 펴내

'영이기(靈異記)'의 저자 쿄카이(景戒)

반승반속의 생활을 하고 있던 쿄카이(景戒, 생몰년 미상)는 822년 일본 최초의 불교설화집인 <일본국 현보선악 영이기(日本國現報善惡靈異記)>를 탈고했다. 고대사회 속에서 펼쳐진 신화, 전설, 설화, 괴담, 사원연기 등을 전해들은 대로 모아 세상에 내놓은 것이다. 책은 원래의 제목이 말해주듯 불법의 핵심적 가르침인 인과가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을 밝혔다. 상 · 중 · 하 3권 116편의 이야기는 삼보에 대한 신앙을 중심으로 유명한 고승으로부터 걸식승, 서민, 장애자, 도둑, 귀족, 각종 동물 등 다양한 중생의 세계가 토착신과 염라대왕의 조연까지 곁들여져 극적으로 전개됐다.


<카스가 권현 험기회(春日權現驗記繪)>의 우두(牛頭)와 마두(馬頭). 동경국립박물관 소장.

이 가운데는 한반도에서 건너온 사람들의 이야기도 수록돼 있다. 백제인 홍제(弘濟) 선사가 신라와 당나라가 침략했을 때, 무사히 귀환하면 신불을 위해 절을 짓겠다고 서원한 후 출정해 그 가호로 약속을 지켰다는 보은담, 고구려의 학승 도등(道登) 스님이 다리를 건설하기 위해 벌목하러 산에 들어갔다가 자비심으로 거둔 해골의 주인공이 원한을 풀고 보은한 이야기, 고구려계의 행선(行善) 법사가 다리도 배도 없는 강에서 관음의 화신이 나타나 강을 건널 수 있었다는 설화 등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 쿄카이를 일본에 정착한 한반도계로 보기도 한다.

그가 살던 사회는 기근과 역병이 돌아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던 때였다. 시대상을 반영하는 설화는 염라대왕의 사자가 오기 전 대문의 양쪽에 음식을 공양하고 환생했다는 이야기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설화로 가난과 질병이 만성화돼 있던 고대사회의 민중의 관습이 여전히 주변에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가에 의해 전쟁터에 동원됐다가 불보살에게 의지한 힘으로 살아돌아온 민중의 파란만장한 삶을 전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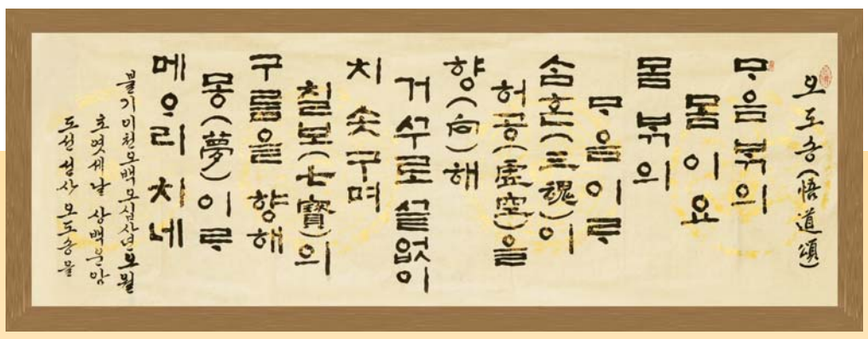
책에는 오늘날처럼 개인의 도덕성이 매몰 되는 모습도 담겼다. 히마로(火麻呂)라는 사람은 국가의 명으로 변방에 배치돼 어머니와 함께 갔다. 3년의 세월이 흘러 집에 두고 온 처가 보고 싶어졌다. 그는 어머니를 죽여 모친상을 치루는 것을 핑계로 복무를 면하고 처와 같이 살고자 했다. 히마로는 어머니에게 산중에서 <법화경> 강의가 있다는 거짓말을 한 뒤 산 속에서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 히마로가 죽이려고 하자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나무를 심는 것은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거나, 그 그늘에서 쉬기 위한 것이다. 자식을 기르는 것은 그 힘을 빌려 자식으로부터 부양받기 위한 것이다. 믿고 의지한 나무로부터 비가 새는 것처럼 너는 어째서 생각지도 않은 이상한 마음을 일으키는가"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옷을 벗어 세 곳에 놓고, 장남인 히마로에게 하나를, 나머지는 둘째, 셋째에게 부치도록 했다. 그러자 갑자기 땅이 꺼지면서 히마로가 그 안으로 떨어졌다. 어머니가 뛰어들어 간신히 머리카락을 잡았다. 어머니는 울부짖으며 하늘에 자식을 용서해주기를 바랬지만 결국 히마로는 죽고 말았다. 어머니는 절에서 남은 머리카락을 불상 앞에 바치고 추선공양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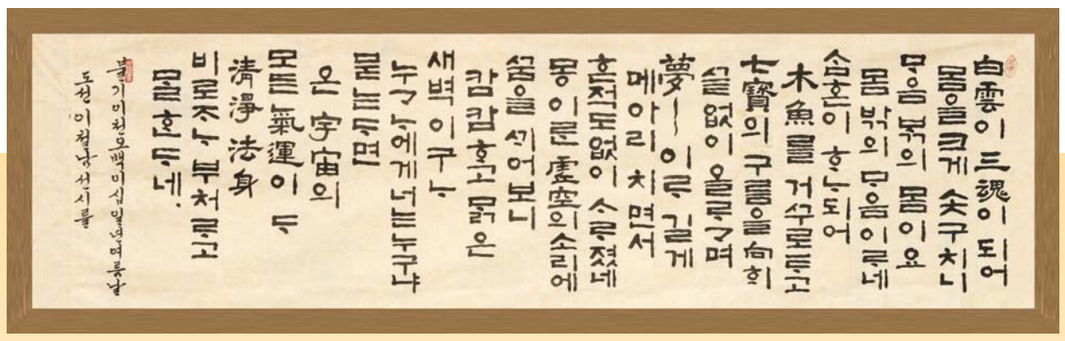
이 이야기는 자식에 대한 어버이의 무한하고도 애절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 가슴이 뭉클하다. 책에는 자식에게 젖을 먹이기는 커녕 음행에 빠져 지내다 죽은 여인이 한 승려의 꿈속에 나타나 고통에 시달리는 모습으로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청원하는 이야기도 있다.

곳곳의 인과응보담을 취재하면서 쿄카이는 자신의 삶을 뒤돌아봤다. 쿄카이는 국가가 인정하지 않은 사도승(私度僧)으로 있다가 어느 시기에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는 일본 불교사에서 볼 때 무명의 한 승려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전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현대에 와서 더욱 진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책은 당시 정치를 비롯한 시대상이나 주변국가와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사료로서의 가치도 높다. 쿄키(行基) 등 당시의 승려들에 의한 민간포교의 활동상도 잘 드러나 있다. 선악 인과에 바탕한 자업자득의 실상은 경전의 말씀을 실감나게 증명하는 생활경전으로 설법에도 활용됐다. 후대 문학에도 영향을 끼쳐 12세기에 편찬된 일본 최대의 불교설화집 <금석물어집(今昔物語集)>의 중요한 전거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불교설화들은 민중불교사의 소중한 한 장을 기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원영상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도교와 불교가 만난 피안의 세계의 깨우침의 노래





진리란 따로 있지 않아 볼 수도 잡을 수도 헤아릴 수도 없으나, 그 무엇과도 나눔이 없는 절대의 공이다. 공이란 밖으로 형상화된 마음이 아니라 어떠한 모양이나 색 우리가 보는 허공에도 속하지 않는 참나의 본 바탕이다. 비추어 생각하고 선으로 생각함이 깨달음의 능력이며 이것을 천지광명의 공이라 한다.



남산 율선 도문 남초 도선 합장
010-3007-5989

꿈은 형색이 없는 마음으로 지은바라. 본래 상이 없건만 꿈속에 상이 실제 있는 양, 만가지 이름을 지어 부르고 천하 만물이 이름이 있으므로 모두 있는 것이요. 이름이 없으면 모든 것이 없는 것이다. 꿈속에 어찌 상이 있을 수 있으며 앞도 없고, 뒤도 없는 참나의 세계에 어찌 움직임이 있겠는가? 고로 우주의 모든 공이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눈 밝은 스승이여 꿈 속의 메아리를 보셨습니까?

남산 율선 도종 창종 선포

남산 율선 도종 (남산이란 남산종을 의미하며 육조혜능이 초조이다)

창종주 훈시

도인이 되려면 마음을 정화하라. 마음과 마음속에 삼혼이 침투하도록 그리하면 대도의 빛이 보이리라.
조사가 꿈에 무어라 하던가 그대는 그것을 알아야 한다.
생로병사를 철견하고 지혜를 갖춘 스승을 찾아야 한다.

인 사 말

나는 순수함이 충만한 마음으로 도문을 창종하였습니다.
오직 바라노니 대도를 성취하고 묘하고 상서로운 빛을 두루 비추고,
다 같이 이룰수 있는 복과 선을 두루 갖춘 원만한 분이 입성하길 염원합니다.
(도문은 소수 정예로서 도를 갈구하는 진정한 도인의 모임입니다. 고맙습니다.)

건설적으로 타협하고, 창조적으로 절충하라

강사 : 최상용(고려대학교 명예교수, 前 주일대사)
일시 : 2010년 9월 2일
주제 : 중용의 정치를 말한다
장소 : 서울 서초이오빌빌딩 2층 강의실
주최 : 평화재단

정치싸움판이 식상해진 사람들은 정치에 냉소와 무관심을 쏟아내고 있다. 정치와 정치인의 참모습은 어떤 것일까?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은 합리적인 사고, 문제해결능력, 리더십 배양을 목표로 9월 3일 제3기 평화리더십아카데미를 시작했다.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는 첫 강의 '중용의 정치를 말한다'에서 "갈등을 줄여가는 것이 정치다. 정치적 사고는 상황적 · 조건적 · 과정적 · 종합적 사고를 하는 상대적인 것이고, 인간에 의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리더들의 동태적 균형, 건설적 타협, 창조적 절충을 바탕으로하는 단련된 판단, 종합적 판단을 강조했다.

#중용이란 무엇인가?

중용은 과불급(過不及)이 없는 것이다.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것이 중용(中庸)이다. 넓은 의미에서 중용은 양극을 벗어난 열린 상태이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고 다양하다. 그렇다고 중용은 어중간한 것이 아니다. 평화가 전쟁이 없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부정부패, 사기, 빈부격차, 환경오염을 모두 총괄한 구조적인 파괴요소까지 없는 것이 참다운 평화인 것과 마찬가지다.

실천행위로써 중용(Mean in action)은 양극이 아닌 다양한 중간의 상태에서 적절하게 선택하는 작위적인 행위를 수반한다. 이때 적절한 선택행위를 고대 중국에서는 시중(時中), 고대 그리스에서는 '우리와 관련된 중용(mean relative to us)'으로 표현했다. 이 두 표현은 실제로 중용의 핵심을 이루는 개념으로 관계성과 상황성을 고려한 집중과 선택의 행위이며, 개별적 행위로는 정곡을 찌르는 행위다.

동양의 시중과 서양의 '우리와 관련된 중용'의 공통성을 시중(時中)이라고 한다. 중용의 중용다움은 시중에 있다. 시(時)는 단순히 시간의 의미만이 아니라 중용의 선택을 위한 외적인 요인들, 이를테면 상황 조건과 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한 포괄적 의미가 있다. 바로 이 점이 중용적 사고가 본질적으로 정치적 사고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정치적 사고의 특성은 상황적이며 조건적이며 과정적이며 종합적이기 때문이다.

중용의 의미를 영어로는 'Positive Mean the mean in any given situation' 이라고 설명한다. 특정한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판단을 하는 것이다.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의 중용이다. 동양에서는 <논어>의 공자와 그의 제자가 가장 적절하게 말했다. 서양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다. 적절한 사람이, 적절한 목적으로 적정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일을 하는 것을 중용이라고 했다.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도로 단련된 판단이 중용이라고 말한다. 정의는 판단에 기초한다고 설명한다. 플라톤은 '정의는 중용이며, 중용을 정의하고 제도화한 것이 법'이라고 했다.

중간은 쉽지만 중심은 어렵다. 중용은 중간인 동시에 중심이 돼야 한다. 중간인 사람은 있지만 중심을 잡은 사람은 많지 않다. 또한 중심은 획일적인 것이 아니다. 동양과 서양의 중용은 중간인 동시에 중심이다.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궁사가 과녁을 겨냥하는 긴장감으로 집중하는 것이 '중용'이다. 맹자는 정곡을 찌르는 것을 중용이라고 한다. 정곡을 찌르는 것은 쉽지 않다. 정보 · 지식 · 판단력이 있어야 한다. 정곡을 찌르는 시중은 어렵지만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시중하는 리더가 되길 바란다.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중용에 대한 정의가 같다. 동서의 정치사상 중 가장 연속성이 강하고 생명력이 강한 개념이 중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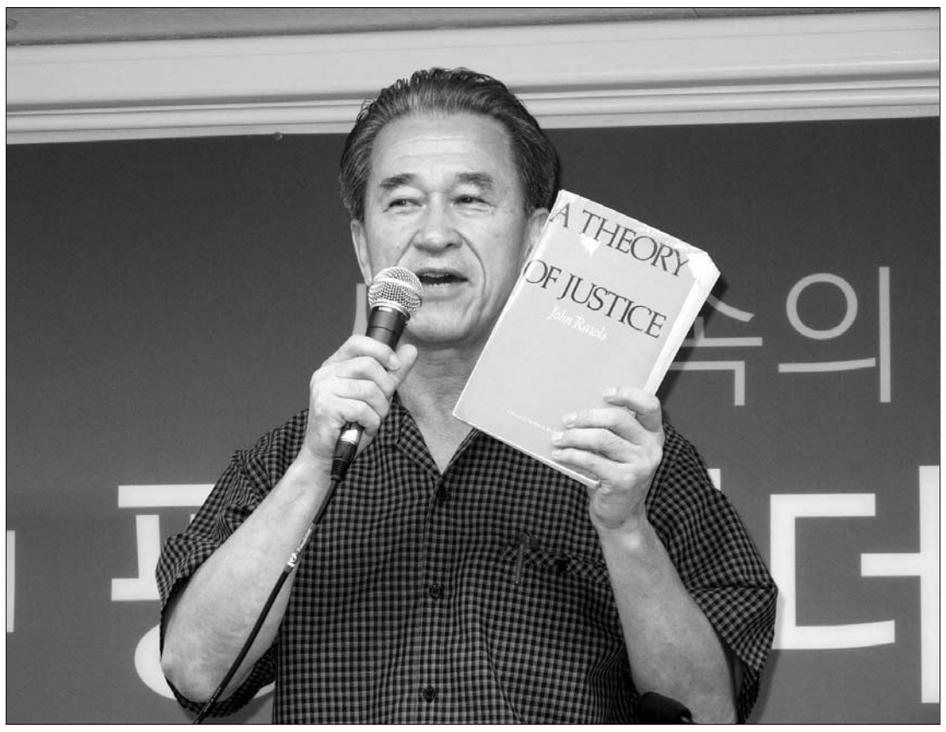
역사적으로 보면 중용은 보편종교나 보편주의적 이데올로기가 등장하기 전에 동양의 중국과 서양의 그리스에서 그들의 인간관계와 정치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축적된 도덕적 · 정치적 규범이었다.

에서 정치적 사고의 원칙과 방법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세계에서는 통념의 한계를 넘고 복잡한 변수들이 얽히고 설키어 있기 때문에 선에서 악이 나올 수도 있고 악에서 선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특히 정치의 결정과정에는 최선이 차선의 적(敵)인 경우도 있다. 이 세상의 불합리한 경험이야말로 모든 종교의 원천이며 정치의 존재이유이기도 하다. 차세(此世)의 불합리를 초월적으로 구제하려는 것이 종교라면 그것을 책임윤리에 바탕을 두고 현실 속에서 해결하려는 치열한 노력이 정치인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문제, 정치의 문제를 윤리적 합리주의로 설명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완전한 판단은 신이 한다. 인간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판단이 중용이다. 법률은 중용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최선은 신의 영역이며 최악은 인간의 노력으로 극복해야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악과 최선 사이의 다양한 가능성 속에서 상황과 조건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하기 위해 시중(時中)을 해야한다.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정치적 선택은 거의 예외 없이 시중(時中)의 선택인 것이다. 이처럼 초월적 최선을 상정한 종교와는 달리 가능한 최선을 추구하는 정치영역에서의 중용을 나는 정치적 중용이라 부른다. 정치적 중용은 시중(時中)의 정치적 표현에 다름 아니다.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는 9월 2일 평화재단 리더십 아카데미에서 중용의 정치에 대해 강의했다.

좌파는 탈급진 우파는 자기보수하며 〈補修〉 선의의 경쟁해야 민주사회

#중용적 사고는 정치적 사고의 진수

정치적 사고는 상황적 · 조건적 · 과정적 · 종합적 사고다. 정치적 사고는 운명적으로 상황적이다. 정치적 사고는 그들 주체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성립할 수가 없다. 정치적 사고는 어디까지나 어떠한 조건하에서 설명이나 예측이 가능하며 고정불변한 대상에 대한 사고는 존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사고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관된 절대적 진리를 대상으로 하는 사고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치적 사고는 본질적으론 '상대성'이다. 정치적 사고는 궁극적 진리를 탐구하는 철학이나 과학 그 자체와 달리 이상과 목적을 향한 과정을 문제 삼는 사고가 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정치적 사고는 상황적 · 조건적 사고 · 상대적 사고 · 과정적 사고 등의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단일의 상수가 아니라 복잡한 변수를 고려하는 종합적 사고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봤을 때 중용적 사고는 상황 · 조건 ·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대적 사고란 점

#시중이 정의고 보수와 진보의 공유의 가치다

중간파에게 중용을 권하고 싶지 않다. 중간파는 어떤 기간 약간의 중재역할을 하지만 정치계 세력은 역시 보수와 진보다. 물론 상대적이다. 역사가 있는 한 보수와 진보는 영원한 상응작용을 한다. 보수와 진보가 절대화, 극단의 시대에는 중용이 개입할 수 없다.

진보는 탈급진해야하며, 보수는 꾸준히 자신을 개혁해야한다. 탈냉전시대에서 정치는 선취경쟁이다. 선취한 사람이 정치적 승리를 한다. 이때 중용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세다.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이미 보수가 아니다. 보수(保守)는 보수(補修)다.

집의 골조를 부수는 것은 혁명이다. 순리를 보수하는 것이 보수다. 순리를 보수하는 것마저도 하지 않는 것은 보수가 아니다.

우리나라에 품격있는 좌파, 깨끗한 우파가 있으면 좋겠다. 늘 보수는 부패와 가까웠으며 좌파는 뭔가 위선적이고 부실하면서 통치능력이 떨어졌다. 좌파가 탈급진을 하고 우파가 자기를 보수(補修)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사회다.

좌왕 우왕 10년을 고생하고 있다. 이것을 다하면 중용적 구상을 하는 보수든 진보든 나올 것이라고 본다. 중용은 건설적으론 타협하고 창조적으론 절충을 하는 것이다.

정리=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존 롤스의 〈정의론〉에서 본 '중용'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는 존 롤스(John Rawls)의 <정의론 (A Theory of Justics)>과 롤스의 제자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의 <정의론>을 비판한 책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를 소개했다.

최상용 명예교수는 이날 강의에서 "존 롤스는 중용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정의론>의 중요개념(key concept)은 바로 중용이다"라며 롤스와 샌델의 책을 중심으로 중용에 대한 창조적 해석을 함께 해 볼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역사상 최초로 정의를 논한 책은 플라톤의 <국가론>이지만 미국 철학자들은 플라톤을 공산주의, 전체주의의 사상적인 원흉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 플라톤의 중용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음을 염두하고 읽어보기를 권했다.

다음은 <정의론>에서 존 롤스가 정의에 관한 난해한 개념을 풀어가는 중요개념들이다.

1.burden of judgments '판단의 멍에' '판단의 중화'

우리는 가정, 사회 등에서 수많은 판단을 하면서 살고 있다. 우리는 판단의 노예다. 사람들은 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면서 단련된 답을 요한다. 이렇게 답을 만들어가는 사고 과정이 중용이다.

2.considered judgment in reflective equilibrium '성찰적 균형 속에서 사려 깊은 판단'

정치, 비정치, 윤리적 주장 등을 듣는 것과 동시에 지적 · 성찰적 균형 속에서도 사려 깊은 판단을 해야 한다. 정보, 지식, 사색, 경험을 총 동원하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성찰하면서 그 균형 속에서 사려 깊은 판단을 해야 한다.

3. overlapping consensus '중첩된 합의, 합일'

각자의 의견 중 내용이 중첩된 부분, 즉 최대공약수 같은 답이 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답도 1번처럼 부담스럽게 선택을 해야하는 것이다. 중용의 선택은 그 시점에서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상대적인 최적(最適)의 선택이다.

종무법인 (법원등기 제 000006호) 禪農教團
우리불교조계종 입종안내

선농교단 총재 弘山 현불

「建法幢立宗旨
明明佛勅曹溪是
第一迦葉首傳燈
二十八代西天紀
今朝禪農立家風」

- 永嘉玄覺證道歌中引用-

法의 깃발 높여 이 道理 세움이여
스승의 밝고 밝은 가르침이라
제일조 가섭의 등불 始發로 하여
스물 여덟 등불이 서천의 불 밝혀
우리 불교 선농의 가풍을 세움이라

◆ 입 종 비 : 없음
◆ 입종서류 : 이력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명함판 사진 4매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법당 안 밖 사진 1매

※각 사찰 인감등록 및 발급(차량구입 및 부동산 취득시)

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 총무원 수월사

■ 주 소 : 충남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 611번지
■ 사 무 국 : 070)8843-7620 / FAX 041)943-7620
■ 총재직통 : 016-850-1208

사)대한불교전통문화예술대학
학 인 모 집

본 불교대학(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작법무)에서는 아래와 같이 범음범패 불교의식반을 모집합니다.

- 아 래 -

1. 과 목 :
□ 부산영산재 무형문화재 제 9호(나비)작법무
□ 천수바라 (다게작법, 운심게작법, 사다라니작법, 삼귀의작법)
□ 삼신이운, 거불, 복청게
□ 사물

2. 교육시간 : 매주 월 · 화요일 (2010년 9월 6일 입교)
오후 1시~3시 : 범음 범패(통영안정사소리) 및 사물 다루는 법
오후 3시~5시 : 제 9호 오공양 작법무. 천수바라

3. 장 소 : 부산시 북구 만덕1동 447-4 해동사
1) 부산 영산재 무형문화재 보유자 스님 직강
2) 수료기간 1년 (10개월)
3) 성적우수한 학인 무형문화재 작법무 전수장학생 추천
4) 사)대한불교전통예술원 입학식 및 수료식

접수처 : 010-2563-5550 / 051)336-8975

사)대한전통불교문화예술대학 귀 해동사
부산영산재 무형문화재 제9호 작법무 연수원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효타암에서 불교의식 전문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천수경, 행선축원, 상단예불 및 각단예불 등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천수바라, 시식 등

● 모집인원 : 약간 명
● 원서접수 : 2010년 9월 10일까지
● 개강일시 : 2010년 9월 13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주민등록 1통,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의식 교육원 효 타 암
부산시 금정구 금사동 34-4
051)524-9406 / 010-6569-1010(법선)

요절복통 여래네 집

#25. 아빠의 청춘



지금 모습에서야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여래 아빠도 한 때는 열혈청년이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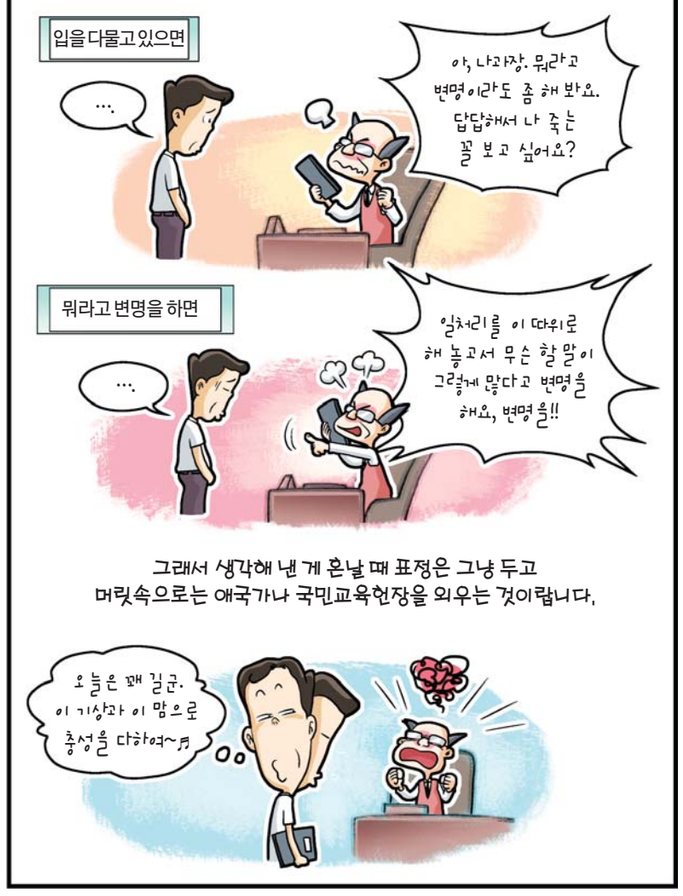
그러나 만만치 않은 현실에 꿈을 접고 말았던 것이지요.



오늘 얘기는 그렇게 해서 들어간 여래 아빠의 회사 얘기랍니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혼날 때



그래서 생각해 낸 게 혼날 때 표정은 그냥 두고
머릿속으로는 애국가나 국민교육헌장을 외우는 것이랍니다.

회사에서 중간위치인 여래 아빠는 자기는 밑에 직원들에게 잘 대해 줘야겠다고 마음으로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날이 더워서일 거라고 자위하면서 여래 아빠는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는 술자리,
그래도 비교적 술자리는 즐거운 편이랍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도 과장쯤 되면 적당한 순간에
빠져줘야 한 답니다.



쏠쏠히 돌아서 나오는 아빠의 머릿속에 문득 며칠 전
거래처 화장실에서 보았던 낙서가 하나 떠 올랐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 불가피하게 더러워지는
인간이 아름답다는 글귀도,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가족을 생각하며 쏠쏠해진 마음을 다잡는 아빠,
어깨와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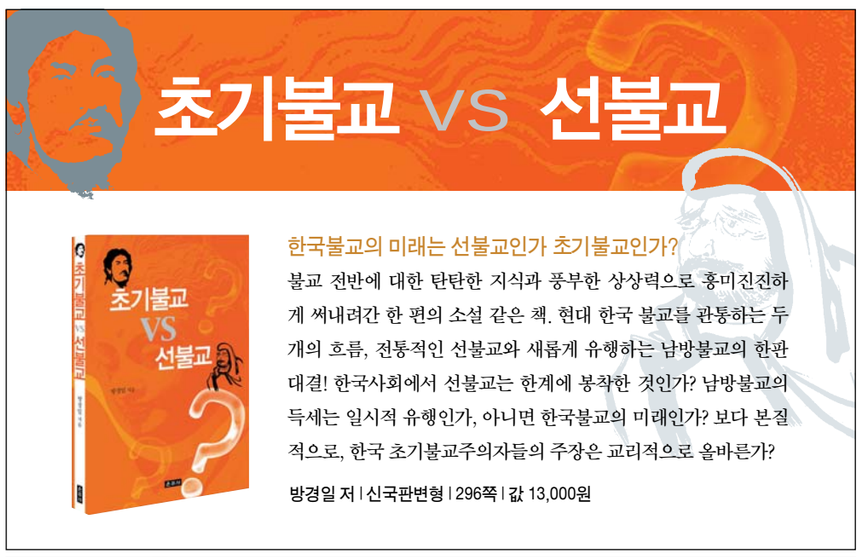
어쩌면 여래 아빠가 옥상 텃밭에 집착하는 것도 다
마초가 본성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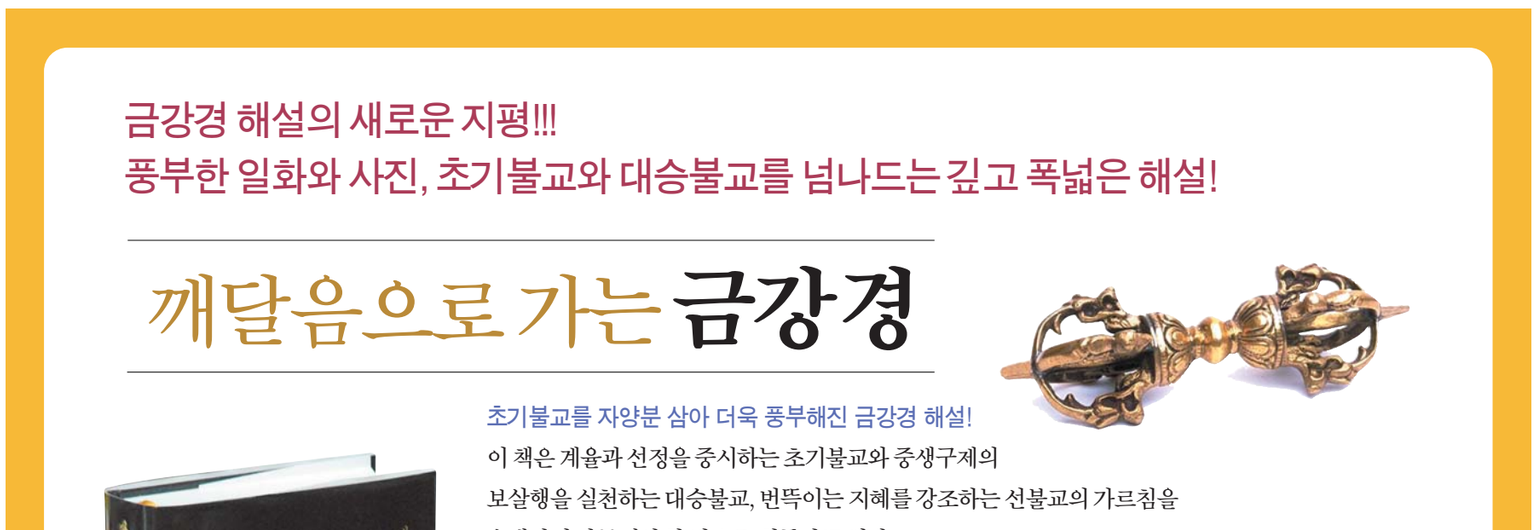
이주일의 화두

자기를 원망하는 자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뚝같이 괴로워 하거든
먼저 원망하는 자를
구원하라. 우바새계경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4계절 모두 이용할 수있는

네츄럴 삼베 멍석 카페트



■ 삼베 멍석 카페트

◇ 원산 · 제조 : 한국
◇ 크기 : 가로 280× 세로 180 × 두께 약 1cm
◇ 용도 : 법당, 대청마루, 거실
◇ 가격 : 330,000원

■ 삼베의 기능 및 특성

1.항균기능 (99.9% 방충 탈취 기능)
– 진득이, 곰팡이 균 발생 원천 봉쇄!
2.수분 흡수 및 발산 (면의 42배)
3.온도조절 기능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특성)
4.난연성, 내열성 및 내마모성, 위생성 우수
5.자외선 차단 기능 (99.9% 차단) / 전자파 차단 기능 (86% 차단)
6.적외선 흡수 기능, 핵, 알파, 감마론의 비투과성

■ 제조과정

삼베줄기를 수확하여 삶아 건조시킨 후 베틀에 삼베짜기 하여 제작한 친환경 제품 입니다.

■ 사용용도



오직~ 현불샵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전제품 무료배송*

(中) (大)

■ 삼베매트 (大) 가로 180 × 세로 70 × 두께 0.8cm ⇨ 120,000원 1인용 매트로 최적!
■ 삼베매트 (中) 가로 75 × 세로 50 × 두께 0.8cm ⇨ 60,000원 차운전석 시트로 최적!

◇ 용도 : 요가용, 매트용, 스트레칭, 명상수련, 활공, 휴식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징 : 손으로 직접 제작한 천연제품으로 일반 나일론 제품과는 다릅니다.
◇ 사용 초에는 석유 냄새가 날 수 있으나 마 특유의 냄새이므로 1주일 뒤면 냄새가 사라집니다.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희담석 건강용품 – 염주세트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38,000원~~ (희담석합장주, 염주,주머니) ⇨ 32,300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합장주[낱개] 1만원)

* 희담석 100% 활용 방법 –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능인로즈마리 · 능인라벤더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35분)
· 용량 : 약 170개

능인로즈마리는 항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특히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 로즈마리는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오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능인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 라벤더향은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 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개업 선물로도 품격!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가 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 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20% 할인)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용띠, 쥐띠, 원숭이띠, 드는 삼재시작 조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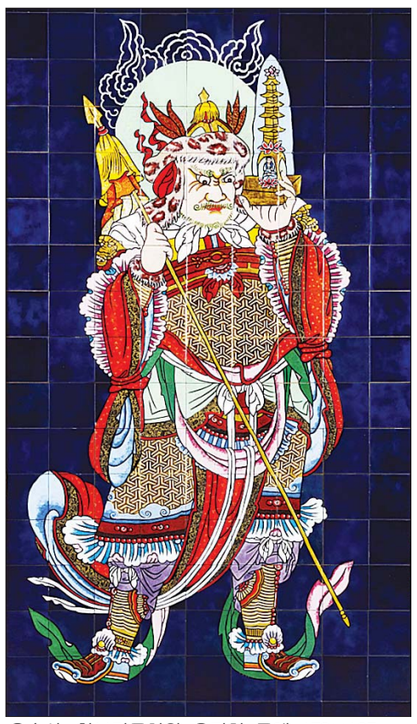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2010년 드는삼재 2011년 묵는삼재 2012년 나가는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뱀띠, 닭띠 삼재기간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삼재가 시작된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와 삼재 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 45,000원 (사찰 공급 가격 별도 상담요)
문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 협 : 032-12-193445 이상하

불교미술 40년, 역사를 담다


우수상-칠보다문천왕, 윤기현, 공예, 178×107cm

40년 동안의 불교미술작품을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25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이하 불미전)이 40주년을 맞아 올해 선정작을 비롯해 역대 수상작들의 초대작까지 아우르는 풍성한 전시회를 개최한다. 9월 17일까지 불교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되는 이번 불미전에는 올해의 선정작품 45점, 역대 초대작품 26점이 전시된다.

제25회 불미전 대상작인 이지연의 '목어이야기', 최우상인 김영찬 '마애불', 윤원선의 '석가모니 후불탱' 등을 비롯해, 제8회 특상 허길량의 '비천상', 제 24회 대상 명천 스님의 '복전의' 등 연대별로 다양한 수상작품이 전시된다.

불미전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열수씨는 "이번 불미전은 40주년이 된 만큼 올해는 성숙도가 높은 작품들이 많이 출품됐다"며 "불미전 출품작은 전통불교미술 60%, 현대불교미술 40%로 구성돼 불교미술이 시대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이번 제25회 불미전에 대상으로 선정된 '목어이야기'는 불교적인 내용과 사상 등을 매우 현대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라며 "이 작품은 어느 단체의 공모전에 출품해도 될 만한 훌륭한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금년에는 회화 · 공예 · 조각부문 외에도 민화 부문이 신설됐지만 홍보가 잘 되지 않아 1점밖에 출품되지 못했다. 윤 심사위원장은 이에 대해 "민화는 불교와 불가분 관계이므로,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민화 부문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길 바란다"당부했다.

이번 불미전은 회화 · 공예 · 조각부문 중 특히 공예품들이 많았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심사위원단은 총 14명이 이뤄져, 1차와 2차로 각각 나눠 분과별로 심사를 거친 후, 다시 전체적인 토론을 통해 작품들을 선정해 어느 해보다 공정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문화부장 효탄 스님은 "이번 불미전은 40주년을 맞아 지난 불교미술의 역사를 바탕으로 앞으로 불교미술이 더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최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마애불,김영찬, 조각, 80×50×82cm

민화부문 신설 관심 환기

심사 공정성 확보에 심혈


우수상
정각, 조민지,
회화, 192×165cm


장려상-문수동자 · 보현동자, 임형철, 조각, 60×60×30cm


최우수상(문화재청장상)-석가모니 후불탱,윤원선, 회화, 204×171cm


우수상-문수동자, 김대현, 조각, 40×28×40cm


특선-불설대부모은중경,정향자, 회화, 170×159cm

현대미술의 뿌리 찾기

학고재서 10월말까지 '춘추' 전


플라스틱 피시, 이용백, 캔버스 위에 유화. 177×259cm

한국현대작가들이 현대미술의 뿌리를 고전에 찾아보고자 서울 소격동 학고재 갤러리에서 10월 31일까지 '춘추(春秋)' 전을 연다. 전시는 11명의 현대작가와 12점의 한국 고미술을 매치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한국미술의 독자성, 뿌리,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색해 보기 위한 자리다.

특히 14세기 후반 고려불화의 계보에 속한다는 일본 공산사(功山寺)에 소장된 '암굴수월관음도'는 이번 전시를 통해 국내에 처음 소개돼 눈길을 끈다. '암굴수월관음도'의 관음보살의 눈길이 닿는 곳에는 이용백의 설치작품 '알비노 고래'와 유화 '플라스틱 피쉬'가 걸려 있다.

작품은 진짜보다 더 화려한 가짜 미끼들이 진귀한 알비노 고래까지 낚아버리는 혹세무민(惑世誣民)의 난세를 냉소로 그려냈다. 부처의 가르침을 구하는 '암굴수월관음도'와 부조리한 세상을 보여주는 현대 작품이 함께 걸려 묘한 인상을 남긴다.

전시 제목은 공자(孔子)가 편찬한 노나라의 역사서 <춘추(春秋)>에서 빌렸다. (02)720-1524 이은정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기도	법륜	정토
2	이야기 숲을 거닐다	보경	민족사
3	소설 무소유	정찬주	열림원
4	붓다 브레인	릭헨슨	불광출판사
5	기도하는 즐거움	보경	불교시대사
6	초기불교이해	각묵	초기불전연구원
7	젊은 날의 깨달음	혜민	클리어마인드
8	날줄 원각경	우승택	불광출판사
9	깨달음으로 가는 금강경	법산	운주사
10	이 순간	능행	휴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www.buddhabook.co.kr
운 주 사 02)3672-7181~5

오미자(五味子)는 열매는 신맛, 껍질은 단맛, 과육은 신맛, 씨는 매운맛과 짠맛으로 오행(五行)의 맛이 있기 에 인체 오장육부에 좋고, 산성 소화액인 담즙분비를 촉진하며, 몸 안의 지방을 녹이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좋은 작물로 알려져 있다.
친환경오미자 인증번호 제43-3-32호
녹색친환경 오미자 (완전무농약)
오미자는 최근 웰빙 붐을 타고 효능이 속속 알려지면서 건강식품으로 각광 받고 있는 약용작물이다. 오미자는 콩팥을 강하게 하고 방광을 수축시키므로 남자의 양기가 약해진 경우, 소변을 잘 참지 못하는 경우, 설사를 오래 하는 경우, 당뇨에 좋다. 평소 땀을 많이 흘리면서 쉽게 감기에 걸리는 어린이에게도 좋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능도 있다. 불안해서 심장이 자꾸 두근거리는 경우, 불안해서 잠들지 못하는 경우에도 오미자가 좋다. 인삼이나 홍삼이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면, 이젠 오미자의 효능과 맛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미자가 조선시대 때부터 임금님의 수랏상에 차와 음식의 재료로 쓰여 임금님의 두뇌를 맑게 하고 시력회복을 도우며, 폐기능을 강화하여 감기를 치료하는 등 건강식품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새콤 달콤한 오미자가 학습량이 많고, 시신경을 많이 쓰는 수험생이나 어린이등의 건강에 좋다보니 가정주부들에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고혈압이나 뇌졸중 예방은 물론 간장보호에도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명약으로 통한다. 옛날 의서에도 오미자의 효능을 극찬하고 있다. 동의보감에는 '예로부터 영약으로 피를 맑게 하고 식은땀을 줄이며 갈증 해소에 효능이 있다...
·생 오 미 자 1kg 10,000원
·건 오 미 자 1kg 70,000원
·오 미 자 원 액 3kg 50,000원
5kg 70,000원
10kg 140,000원
·오미자즙 1Box(50포) 50,000원
농장소재지 : 경북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256
계좌번호 : 농협 745060-52-032103 예금주 권명숙
주문전화 011-9377-8961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2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불조정맥
종조 석가모니불로부터 현 78대에 이르기까지 불조정맥진영과 정맥전법게를 온전하게 갖춘 최초의 불조정맥서.
신간! 화두/Hwa-du
대원 선사님 평생의 선문답. 현대에 생생히 살아있는 '화두'! 영역되어 세계에 자랑스러운 한국의 선(禪)을 소개하고 있다.
www.zenparadise.com
정맥선원 대원 선사님 법회 문의 02-3494-2460

최연의 산 이야기 <25> 덕유산 2



살아 천년 죽어 천년 주목 나무가 도인처럼 서있다.

남덕유의 정기는 명문세가를 낳았구나

〈精氣〉 〈名門勢家〉

남사고(南師古) 선생의 <격암유록(格庵遺錄)>에 의하면 덕유산(德裕山)과 지리산(智異山) 사이에는 사람을 살리는 기운이 가득 차 있다고 하는데 산 이름이 의미하듯이 넉넉한(裕) 덕(德)과 별다른(異) 지혜(智)가 충만하기 때문에 정기(精氣)와 수기(秀氣)가 가득한 모양이다.

<격암유록>에는 덕유산, 지리산 이외에 계룡산, 속리산, 소백산, 태백산 등이 등장하는데 이 산들은 모두 후천개벽(後天開闢)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한다.

이들 산도 그 이름에서 지향하는 이상향이 담겨 있다. 계룡(鷄龍)은 용이 승천하는 곳, 즉 하늘세계를 말하고, 속리는(俗離)는 세속적인 욕망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둘 다 속세의 욕망과 번뇌로부터 해방되어 이상세계로 들어감을 뜻한다. 그리고 소백(小白)은 티끌 하나 없이(小) 깨끗한(白) 마음이고, 태백(太白)은 가없이 크나큰(太) 정결한(白) 세계를 말하는데, 둘 다 마음에 묻은 티끌들을 모두 씻어내고 이상향(理想鄕)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덕유산의 정기(精氣)가 넉넉한 덕, 즉 뭇 중생을 향해 큰 사랑을 베푸는 불?보살과 같은 자비로운 마음을 길러주는 것이다.

덕유산은 주봉인 향적봉(香積峰)을 기점으로 중봉을 거쳐 동업령에서 낮아져 무룡산을 다시 일구고 삿갓봉을 지나 남덕유산에 이르는 남쪽으로 뻗어 내린 산줄기를 말하는데 일련의 여러 봉우리들이 이룬 산군(山群)을 의미하는데 지세(地勢)로 보아 덕유산의 정기(精氣)는 북덕유산보다 남덕유산에 더 많이 맺혀 있는 듯하다. 그래서인지 1594m의 북덕유산을 '제2덕유산'이라 하고 1503m의 남덕유산을 '제1덕유산'이라고 부른다.

북덕유산이 복지(福地)인 무풍(茂?) 고을을 품었다면, 남덕유산은 명문세가(名門勢家)가 많은 거창(居昌)과 안의(安義) 고을을 부려 놓았다. 거창을 '오백년무반향 천년현달지지(五百年無班鄕 千年顯達之地)'라고 일컫는데, 오백년 동안 양반이 없는 고을이었다가 일천년 동안 지위가 높아지고 이름을 천하에 드날릴 고장이 된다는 뜻이다. 첫 번째의 '무반향(無班鄕)'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거창의 명문세가는 거의가 옛 안음(安陰) 땅에 있었다고 한다.

안음은 지금의 안의(安義)를 말하는데 고려시대 때부터 있어온 현(縣)으로서 조선시대에 와서 고을 이름에 음택(陰宅)을 의미하는 음(陰) 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안의현(安義縣)으로 고쳐 불렀다. 그러다 고종 32년(1895년)에 안의군(安義郡)으로 승격한 이후 1913년 일제치하에서 함양군과 거창군에 분할 편입되어 반은 거창군에 귀속되고 남은 지역은 함양군 안의면(安義面)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두 번째 '천년현달지지(千年顯達之地)'라는 것은 <정감록(鄭鑑錄)>의 감결(鑑訣)에 의하면 계룡산(鷄龍山)의 정씨(鄭氏) 8백년 도읍(都邑) 다음에 가야산(伽倻山)의 조씨(趙氏) 일천년 도읍이 시작되는데 그 도읍지가 바로 가야산의 지맥이 끝나는 거창군 가조면 고만리 들이라는 데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정씨의 계룡산 도읍이 시작되면 거창 고을이 명신(名臣)과 석학(碩學), 거유(巨儒)를 많이 배출한 경북의 상주(尙州)와 선산(善山)처럼 된다는 것이다.

거창이 배출한 많은 명문세가 중 거유의 집안인 선산 김씨(善山 金氏)를 대표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를 주로 해서 거창 일원에 거유인 강호(江湖) 김숙자(金叔滋)의 손자 대에서 비롯되는 선산 김씨의 후예들이 4백 여 년 간 모여서 산다. 그런데 김숙자는 거창과는 관계없이 경북 선산에서 태어나서 야은(冶隱) 길재(吉再)에게 글을 배우고 만년을 경남 밀양(密陽)에서 보내다가 그곳에서 죽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점필재(?畢齋) 김종직(金宗直)은 아버지의 학문을 능가하여 주자학의 당대 1인자로 영남사림(嶺南士林)의 종조(宗祖)가 되었다.

조선의 국시(國是)가 된 유교의 주자학(朱子學)은 '성명(性命)과 의리(義理)를 탐구하는 학문'이라서 성리학(性理學)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론(理論)을 세운 이가 주자(朱子)여서 간편하게 주자학 또는 정주학(程朱學)이라고도 하는데, 성리학은 한국에 전래된 외래사상 중에 가장 한국적인 변신과 발전을 이룩하여 관혼상제(冠婚喪祭)를 비롯한 우리의 일상생활과도 밀접하게 유착된 사상이다.

주자학은 고려 후기에 회헌(晦軒) 안향(安珦)에 의해 중국으로부터 들여와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와 야은 길재를 거쳐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김숙자와 그의 아들 김종직에서 한선당(寒宣堂) 김굉필(金宏弼)과 일두(一?) 정여창(鄭汝昌)과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로 이어지다가 퇴계(退溪) 이황(李滉)에 이르러 새롭게 발전한다. 주자학의 한국화(韓國化)가 이로부터 시작되어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남명(南冥) 조식(曹植)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조선시대의 통치이념으로서의 주자학은 조선 초기에 김숙자와 그의 아들 김종직에 의해 확고하게 뿌리내렸던 것이다.

■ 최연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상사화

무더위 속에서 상사화가 솟아났다. 창 앞에 긴 목을 빼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꽃을 나는 오래도록 바라보며 앉아있었다. 이른 봄에 칙칙한 땅거죽을 뚫고 나오던 잎의 푸르른 모습이 어제처럼 파란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그 언제 잎이 지고 모습을 감췄는지도 모르게 흘러간 봄과 여름의 끝에서 기다림의 목을 빼어 꽃송이를 피웠다.

꽃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자니 점심 무렵까지 곁에 있다가 떠나간 사람의 얼굴이 못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함께 하고 싶으나 각자의 삶이 있으니 그럴 수는 없는 사람이다. 어쩌다 한 번 만나는 현실이나마 고마워하며 살아갈 일이다.

"수고 많이 했어. 바쁠 텐데. 데리고 다니느라 시간만 뺏기고."

"이렇게 찾아오시기라도 해야 얼굴 한 번 보죠."

실없는 인사말만 남기고 누님은 떠나갔다. 구름이 잔뜩 낀 하늘에서 비가 쏟아질 것처럼 보였지만 비는 오후 내내 오지 않았다.

누님의 몸은 일 년 전보다 말랐다. 당뇨로 고생하면서 입맛까지 잃어 영 힘이 없다는 얘기 끝에, 또 다른 병이 걸려 약을 먹었는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는 말을 덧붙여 툭툭 풀어놓았다.

"국민학교 졸업 때 우등상장을 받았는데 이웃사람들이 아버지한테 술을 사라고 해서 술을 사셨다고 그러더라."

어둠을 두드리며
내리는 빗소리를
듣고 있자니 창 앞에서
비를 맞는 상사화의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보였다

누님은 어린 시절 얘기까지 또 꺼내셨다.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신 뒤, 초등학교 시절부터 집안 살림을 도맡아하며 자라난 누님이다. 나는 누님이 해준 밥을 먹고 누님이 빨아준 옷을 입었다. 기억하기도 싫을 것 같은 시절의 얘기를 나뭇가지 사이로 흐르는 바람의 얘기인 듯 풀어놓는 누님의 모습은 이미 한 세상 다 산 모습이었다. 힘 좀 내시라고 하고 싶어도 선뜻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좋은 계곡에 가고 싶다는 말에 산 넘어 미사리 계곡으로 가서 물가에 자리를 펴고 앉아 싸가지고 간 밥을 먹으려는데 지나던 사람이 내게 말했다.

"여기서 밥을 먹으면 안 됩니다. 원래 들어오지도 못하게 입구를 막아놓는 곳인데, 주민들만 드나드는 곳입니다. 들어오면서 천에 쓰인 거 못 봤어요? 경고문도 있을 텐데. 자연휴식년제 기간인 거 모르시나? 걸려서 사진 찍히면 벌금 백만원 내야 됩니다."

'그 사람, 말이나 좀 곱게 하지.' 입구에 뭔가 요란하게 써놓은 것을 언뜻 보기는 했다. 그건 그렇고, 차를 세운 뒤 무슨 글이 써있는지 잘 살피고 계곡에 들어서야 할 의무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인가? 보호해야할 소중한 계곡이라면 애초에 시멘트로 포장도로를 내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잠시 의아한 기분에 휩싸였다. '감시원이라도 세워놓던가?' 영 못마땅한 일이었다. 펼쳐놓은 밥과 반찬을 한 숟 뜨지도 못한 상황에서 서둘러 계곡을 벗어나면서 나는 누님의 얼굴을 잠시나마 마주보지 못했다.

'에이 자식, 꼭 경찰이나 군인처럼 얘길하네.' 계곡을 벗어나는 차안에서 입속말로 주억거려보았지만 흐트러진 기분은 좀체 정리가 되지 않았다. 입을 꾹 다문 채 김삿갓 계곡으로 가서 말없이 밥을 먹었다. 함께 온 초등학생 조카는 다행히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물속에서 잘 놀았다. 딸에게 구경을 시켜주고 싶다며 천문대를 가자는 누님의 말에 따라 저녁이 되기 바쁘게 읍내로 나갔다. 내려앉은 어둠을 헤치고 산으로 올라 매표대의 직원 앞에 서서 돈을 내밀었다.

"예매하지 않았으면 오늘 입장할 수 없습니다."

매표원의 음성이 싸늘했다. 아뿔싸, 또 잊고 있었다. 입장권을 예매 한다는 사실을 나는 또 어찌 까맣게 잊고 있었을까? 천문대 앞에서 사진 한 장 찍고 내려오는데 참 할 말이 없었다. '나도 참 무심하게 살아가는구나!'

비틀거리는 내 삶이 그대로 드러났던 하루를 보낸 다음 날, 집에서 가까운 만경사에 들렀다가 누님은 서울로 돌아갔다. 새벽으로 가는 밤 시간이 되어서야 비가 내렸다. 어둠을 두드리며 내리는 빗소리를 듣고 있자니 창 앞에서 비를 맞는 상사화의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보였다.

■ 유승도 (시인)

빛 살림
정골요법
正骨療法
이재복 지음 (270면)

폐결핵으로 한쪽폐가 없어지고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 병원에서 마저 쫓겨나 죽음을 기다리다 무심코「발치기」운동으로 살아난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이운동으로 죽을 병고친사람, 몸이 더욱더 건강해진 사람, 정력이 변강쇠처럼 된 사람 무수히 많아, 누구든지 하기만 하면 제병을 제가고치는데 안하니까 문제여, 이운동은 무병장수할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여„ (본문에서)

빛 살림
정正골骨요법
그림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창조. 값10,000원

평생 척추, 골반, 관절 걱정없다

퇴행성관절, 안짱다리, 고관절, 디스크, 좌골신경통, 오십견, 견비통, 목뻣뻣, 수족냉증, 두통, 갑상선질환, 불면증, 상기증

젖먹이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인「기지개운동」을 통해 건강하게 무럭무럭자란다.(생명의 신비!)
강력한 생체전기가 전신을 감싸고 입안에서는 단침이 몽클몽클, 내분비계통을 활성화 시켜서 만성적인 성인병을 치유하는 기지개운동법 수록

골반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불임, 생리통, 수족냉증, 무릎관절통) 가장빠른 골반교정운동, 스스로하는 평생골반관리법,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잡는법 수록!
척추 뇌에서 내려오는 30,000가닥의 신경다발이 추간공을 흐르고 있다. 척추는 오장육부의 뿌리,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아 질병의 뿌리를 뽑는다.
복부 뱃살과 전쟁, 복부비만을 아주쉽게 해결한다. 물혹, 자궁근종, 위염, 위궤양, 변비등의 원흉인 복부적취를 가장쉽고 빠르게 해결하는 온열쾌장운동법!
근육 근육의 긴장, 수축, 노화로 인해 신경, 혈관, 림프관의 압박으로 신경통, 근육통등 각종 통증에 시달리게된다. 근육풀이 건강법으로 통증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통증치유법수록!

국제정골요법협회
소백산수련원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자리〉
■ 도서구입안내 : 이 책은 서점에는 없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책신청 : 054)637-9810
■ 농협계좌 : 751017-52-024285 김순옥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 (1박 2일)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에서는 놀라운 건강법이 공개됩니다. 각종 통증과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획기적인 건강법입니다.
즉석에서 효력을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책 구입시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 문의 : TEL 02) 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 마감 : 매주 월~수요일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울산)

역학 개인지도 (빙의, 퇴마)

한달만 물상으로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영가 보는법과 실전위주로 개인지도함.

역학 : 물상으로 명리, 영가지도,
궁합, 택일, 구궁법, 작명

최면 : 전생요법,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부산)333-3258

011-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 (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저렴하게 불공해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작법무,
살풀이, 범음범패

010-3590-7596

019-688-9885

빙의 퇴마 전문치료

수시접수 中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악령에 시달려 머리가 자주 아픈 분
신병, 빙의로 신내림 받아야 할 분

지장사 주지 광덕 합장

032)261-8425

010-7335-8425

정성껏 상담해 드립니다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금광 자미두수 철학원

신통방통 자미두수
자미두수 별점궁합
궁합, 사주, 택일, 작명, 개명,
진로, 사업 (책 판매함)

(김정희 원장 직접 상담)

02)921-1954

018-276-1954

지하철 신설동역 2번출구

동영상 역학강의

용신, 실전사주,고급-일진내정법
(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등의 과목을 거리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저렴한 수강료로 빠른
시일내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동영상 역학 강의입니다

www.beumchun.com

범음 범패 염불 교육도량

학인모집 개인지도

천수바라, 공양작법, 사물, 범음범패

사찰 각종 행사대행

천도재 · 49재 · 구병시식

011-243-3587

055)744-5300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고요한 암자에서
공부하실 역학을
하시는 50~60대
비구니 스님과의
인연을 바랍니다

010-4735-8993

기도처를
찾고 있습니다.
50대
비구입니다.

010-8677-1277

세계불교법왕청

봉안(납골당) 안내

- 평생 관리비 무료 -

010-4724-1723

화성, 괴산, 청원 (3곳 중 선택)

쉼터 약수암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수암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010-7232-0384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초보자 환영, 부산

051)722-0449

011-579-6444

공양주 구함
외국인 환영

▷충북 괴산군 천년고찰

010-6414-5600

043)832-6148

마음씨 넉넉한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65세

054)452-0845

011-539-0845

부전스님 모십니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강원도 삼척, 대덕사

010-9219-7695

033)573-8651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50세이하
서울 금호동 관음사

02)2234-3310

010-6260-3310

부전스님 또는
절 운영 잘 하실
스님 모십니다

▷전남 순천시

061)722-9114

011-611-5839

50대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천년고찰 도성암.선원

053)614-916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창녕, 천년고찰

055)533-207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상주, 도시근교 사찰

054)534-136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9836-506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50-60세이하

경기 김포

010-9469-6625

공양주
모십니다

▷천년고찰 기도도량

011-435-2572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양다원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대방등 대집경 대승기도

●큰 서원이 있는 사람은 전화를 하십시요.

☎ 032)664-0048 / 011-741-0867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초급4개월 : 중급4개월 : 연구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7시~10시.수시접수
3)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9~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원역리학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사찰 건축 전문

사찰 설계, 신축, 보수, 해체, 이전, 토목공사 일체

단순히 목(木)공사를 전문으로 한 한옥 목수의 시각이 아닌
사찰건축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과 경험으로 생각이 다른
건축의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전화 070)7433-9919, 031)637-8886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여자)신청하시고

상담은 통장 입금 상담

찾아오실 분은 이포나루터 남한강 뚝방 2층 베란다와 정자에서
시원한 바람과 함께 시원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미사리에서 40분 소요)

031)774-5067 / 011-498-5067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행자(예비스님) 모집

21세기형 행자교육!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수행과 수계 이후 모든 지원!

-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교육
- 수행 ·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문의 : 010-2488-8228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발 앞선 장례문화시설!!
- 언제나 염불, 기도소리 들리는 법당 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설, 추석, 기일, 영가 천도일에 천도축원 해 드립니다.
- 문의 : 010-6296-0108

불원 주지스님 모십니다

- 50세 전후 (법랍 20년 이상), • 조계종
- 승가대, 동국대 출신스님 환영

■ 소재지 및 규모

-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1052-23
- 5층건물 (지하1층, 지상4층)
- 연건평500평,부지면적 520평

051)782-0033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www.chorokwon.com 박현숙 원장

영남범패 학인모집

영남범패불음원 진주 및 울산교육원에서는 영남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 9기 신입생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아 래 -

■ 입교일시 : 진주교육원 2010년 9월 27일 〈월요일〉 오후 3시
울산교육원 2010년 9월 29일 〈수요일〉 오후 3시

■ 교육장소 : 진주교육원 - 경남 진주시 이현동 이현상가 406호
울산교육원 - 울산시 동구 방어동 990-2 〈화봉사〉

■ 문의전화 : 진주 055) 747 - 8419 울산 052) 201 - 1468

■ 수 강 일 : 진주 - 매주 월 · 목요일 오후 3시~6시
울산 - 매주 수 · 목요일 오후 3시~6시

■ 교육기간 : 6개월 과정

■ 교육내용 : 1. 각단 불공 및 재의식
2. 사물다루는 법
3. 바라 및 승무작법

■ 수강자격 : 삭발염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 수 강 료 : 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 준 비 물 : 필기도구 및 녹음기

■ 카페안내 : Daum에서 영남범패불음원을 쳐 보세요

영남범패불음원장 원명 합장

테이프로 공부하는 **四柱 특강**

타고난 운명을 비롯해서 인간만사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감정의 원리와 요령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터득하도록 설명함으로서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날 것이다. 비록 테이프로 공부하지만 선생의 강의를 직접 생생하게 듣는 것과 같다. 初步에서 最高과정까지 철저히 이해시키는 독특한 강의는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날 것이다 더욱이 有名人士들의 四柱를 실제로 풀이하였으므로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테이프 13개와 교재대 포함 15만원)
녹음 테이프로 하루 한시간씩 2개월이면 완성할 수 있다.

易理作名法

당신도 作名大家가 될 수 있다.

이름을 한번 잘 못 지으면 평생 후회하게 되고 다시 개명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시중(市中)에 나와 있는 작명서들이 한결같이 수리와 오행에 맞추어 이름을 짓고 있는데 만약 두 사람의 이름이 똑같은 수리와 오행이라면 똑같은 이름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좋은 이름은 수리와 오행뿐만 아니라 주역(周易)에 맞추어 지어야 한다. 주역을 몰라도 누구나 알기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382쪽, 정가 : 30,000원)

- ◆아래 계좌로 입금하시면 속달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
- ◆著者 : 孫中山 (75세) 韓國陰陽學會 中央會 會長
- ◆계좌번호 : 농협 100080-56-022361 (손선영)

學術團體 韓國陰陽學會 中央會

053)324-2468 / 010-9391-5699

한국근본불교조계종

공 경남교구 본산 주지 공개모집 고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제 14교구 경남 종무원
청정사 주지를 공개 모집합니다.

◆ 자격 : 법당 10년이상 비구, 비구니로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종도로써 활동하며
청정사 중창불사에 전념할 수 있는 스님

◆ 대우 : 종신 주지 및 사자상승보장
(종단에 소정의 후원금 지급 요)

◆ 자산 : 법당 30평, 요사 20평,
선방 50평, 산신각,
석불, 석탑 등
대지 630평, 임야 7400평 등

총무원장 의륜 합장

■ 주 소 : 경남 합천군 청덕면
초곡리 820번지

■ 문의전화 : 011-352-7751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02)2004-8215
- **원고접수 :** jabi82@naver.com
  FAX 02)737-0696

※ 매주 수요일 마감. 다음주 수요일 게재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종로구
- 법당 , 요사 : 70평
- 부지 : 40평
- 가액 : 3억 8천 5백 (융자 및 전세금 제외) 주차 여러대 가능

- 위치 : 충북 충주
- 법당 : 50평 외 15평
- 요사 : 80평
- 부지 : 220평
- 가액 : 3억 8천

- 위치 : 경기도
- 법당 : 20평
- 요사 : 60평
- 부지 : 500평
- 가액 : 8억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 송 기 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해운대 송정 바다근처 토굴

- 대지 : 56평
- 법당 및 요사, 방3칸
- 해운대 10분거리, 송정바닷가5분거리
- 정남향, 뒤편 산세 최고
- 주차장 확보
- 총금액 : 1억 5천만원

부산 근교 아름다운 대사찰

- 총 대지 : 약 6000평
- 전통형 목조 법당 : 35평, 지장전 25평
- 요사채, 산신각, 기타 전각
- 청룡, 백호, 현무, 주작 산세완벽
- 터밭 1500평, 주차장 300평(버스진입 가)
- 총금액 : 15억 (감정 40억)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범일동 암자 : 8천 5백만원,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강남대로, 논현역 7호선, 신논현역 9호선 중간 영동시장 대로변 유동인구 많음
- 위치 : A급 ●법당시설완비
- 상담실1개, 방 1개
- 보증금 1천 5백만원 합 3600만원 (조절가능)

010-4031-6643

포교원 안내

- 위치 : 평택시 소재
- 아파트 및 상가지역 6층건물
- 평수 4층 70평(법당)
- 6층 70평(요사채) 각층 전체
- 삼존불 (동불) 및 후불탱화, 지장, 신중탱화, 관음지장호신불 108위
-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30만원 시설비 3000만원
- 꼭 하실분만 전화상담

031)672-3353
017-390-335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양
- 대지 : 약 300평
- 법당 : 23평 (90%완성)
- 요사채 : 31평(완공)
- 산신각, 창고
- 가액: 8천만원(절충불가)
- (총공사비는 1억 5천만원소요) 50년이상된 사찰임

010-9215-4769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 대지 : 106평, 법당 : 40평
- 요사채(1,2층) : 60평
- 포교활동 최적지
- 가액: 4억 3천만원 (1금융권에서 1억 2천까지 융자즉시 가능)

011-790-9171
010-5628-8404

기도처안내

- 위치 : 포항 월포
- 바닷가, 전망 좋은 기도처, 도로접
- 대지 65평
- 1층 슬라브
- 가액: 8천 8백만원

010-6474-5903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기장군
- 평수: 2층 건물 중 2층, 35평
- 주차장 완비, 모든 시설 A급
- 몸만 오시면 됨
- 전세 2천만원 월 35만원 전세, 월세 조정가능
- 시설비 7백만원(조절가능)

010-4870-8359

명당터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북안면 마을 인근
- 뒤에는 산 지고 앞에는 큰 저수지 바로 접해 있는 독립된 터
- 고속도로 4차선에서 10분거리
- 면적 609평
- 가액: 평당 20만원(주인직)

010-5014-145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남양주시 별내면 수락산 아래
- 평수 : 67평(7층중 3층 전체)
- 법당 : 34평 (방4개, 종무소1, 시설 A급)
- 보증금3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몸만 오시면 됨 ●즉시 법회

011-329-6606

사찰(급)안내

- 위치 : 김해시요지 4차선 도로 접
- 대지 315평, 건물 3층 180평
- 3층 60평 법당
- 1층 2층 120평 요사
- 12억짜리 8억에 급양도
- 연등 1000개, 인등 500개
- 대출 가능

011-869-8608
큰스님 직

사찰터안내

- 위치 : 대구 달성군 가창면 상원리
- 터 약 3000평(대지 200평)
- 계곡도 있고 산세가 수려하여 사찰터로써는 명당으로 보임
- 평당 가액 25만원 (약 7억 5천만원)

017-536-2222

한 국 불 사

- 서울근교(APT밀집지역, 재래시장근접, 교통주차 편하고 산세수려함
- 대지 약 160평, 2층 목조법당
- 가액: 10억

※전국 사찰 부지등 양도 운영 하실분 전화 상담해드립니다

02)6674-3535
010-3154-3535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허심청후문 온천시장
- 평수 50평, 방2, 주방1, 화장실
- 최고시설, 최고위치, 위치 좋음
- 가액: 전화 상담 후 결정

010-9247-0180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달동
- 평수 약 70평, 3층
- 옥상같이 사용
- 시설완비 주차장 有
- 보증금 전세 20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방문 후 결정

010-2972-9194

사 찰 안 내

- 위치: 제천에서 20분거리 서울에서 2시간
- 부지: 1650평중 , 종교용지 300평,건평 100평
- 법당, 산신각, 용신, 연못공사중
- 요사채 2동 중 1동은 선방및 요양시설용도, 산세수려하고 명당터
- 가액: 3억 5천만원

010-5114-017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안산시내 상업지역
- 상가 5층 건물의 2층 (옥상 텃밭 30평 단독사용)
- 평수 50평
- 기본 법당시설 A급 완비
- 소임관계로 급하게안내 하오니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0-4180-382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이동저수지
- 대지 300평, 건평 60평
- 삼성각 7평, 호신불 108불
- 주차 30대 가능
- 보증금 3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0-6215-9749
011-508-1467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강릉
- 부지 500평 임법당 30평
- 요사 40평, 산신각
- 좌청룡 우백호 뚜렷한 포란형(남향)
- 가액 : 2억 5천만원

011-452-8374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시내
- 대지 66평, 사용평수 120평
- 1층 37평, 2층법당 20평
- 법당뒤 밭. 대나무밭. 바다가 보임
- 교통편리, 주차가능,
- 도시가스, 화장실 4개
- 가액 : 2억 7천만원
- 주인직

010-3133-0018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동구
- 평수 2층 40평, ●방2, 공양간 별도
- 법당, 삼존불, 칠성, 산신, 용왕 모셔져 있음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큰도로 접합, 지하철 5분거리 바로 앞 , 체육공원 및 버스정류장
- 보증금 500만원 월 45만원
- 시설비 1500만원, 시설최고,

010-6236-5557
053)961-0501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야촌리
- 대지 125평, 조경완벽
- 법당20평, 산신각5평, 요사채 10평,공양실15평
- 연못, 식물, 5층탑, 해태(2마리)
- 가액 : 9,500만원

011-9004-1492

사 찰 터 안 내

- 위치: 울산 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 대지: 526평. 바로 뒤 산
- 1급 주거지역
- 가액: 평당 90만원 (절충가능) 사찰터, 전원주택지도 좋음

017-855-6717
017-856-2344
052)247-7344

사찰(급)안내

- 위치: 충북 오창면에서 천안시 사이
- 부지 : 2,000여평
- 법당, 관음전 2동 55평 목조, 단청
- 요사채: 3동 2층건물 1동
- (방 많음), 깔끔하게 잘 지었음
- 가액: 13억

011-412-246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시 안강읍
- 대지 87평, 2층건물
- 1층 요사채 34평 ●2층 법당 24평
- 특징: 안강읍 시장, 대형마트 각각 5분거리
- 1,2층 모두 도시가스 설치
- 가액 : 2억 3천만원 은행융자 6천가능

054)763-665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화명동 롯데마트 옆
- 평수 : 140평
- 전세 1억, 월 170만원 시설비 있음
- 모든 시설 완벽하며,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010-8766-0377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시 산외면
- 대구 부산 IC에서 2분거리 밀양시내 10분거리
- 전답, 임야 388평, 텃밭 200평
- 법당: 30평(원불: 200불, 부처님 11불)
- 요사채 30평, 산신각 용왕당 10평
- 가액: 2억 2천 5백만원

011-824-5939
010-9418-5938

사 찰 안 내

- 위치 : 홍천군 모곡리
- 평수 3000평
- 법당 30평, 산신각 10평
- 요사채 60평, 조립식 40평
- 연못 있음
- 가액: 15억 (답사 후 절충)

011-737-9626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 평수 2층 40평, ●방2, 공양간 별도
- 법당, 삼존불, 칠성, 산신, 용왕 모셔져 있음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큰도로 접합, 지하철 5분거리 바로 앞 , 체육공원 및 버스정류장
- 보증금 500만원 월 45만원
- 시설비 1500만원, 시설최고,

010-6236-5557
053)961-0501

사찰터안내

- 위치 : 산청군 단성면 관정리
- 평수 : 약 2만평
- 현재 조립식 2채
- 전기시설 완비, 단독 진입로
- 평수에 관계 없이 허가가능
- 진주 진양호가 보이는 운치 있는 위치
- 가액: 4억(절충가능)

017-547-1120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기장읍 아파트 빌라주택밀집지역
- 4층건물 중 2층
- 법당30평, 삼존불 외 소불500불
- 방2칸, 주방1, 화장실 주차장완비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800만원(절충가능)

011-544-9777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감만1동 재래시장 앞
- 4층건물에 3층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천만원(주인인정)

010-8108-010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
- 총 800평, 법당20평, 요사채 3 방4, 큰 창고, 관상용 양어장
- 주차시설 완비
- 비구니스님 기도처로 최고 명당
- 가액 : 2억 3천만원

010-3138-489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남양주 진접 장현리
- 법당30평 ●요사30평(심야보일러)
- 방3, 주방거실, 화장실3
- 공양실(콘테이너) 3m×9m
- 대지 264평(시유지: 50평)
- 가액: 5억(융자 2억포함)
- 전세 1억 5천만원(부동산 사절)

010-8710-7898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중랑구 면목동 (지하철 7호선 용마산역 5분)
- 4층건물의 4층, 40평
- 냉난방 등 모든시설 완벽
- 아파트 밀집지역
- 보증금 1천만원에 월 70만원 시설비 별도

010-2640-8133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문현동
- 대지 약 160평
- 건평 80평(1,2층)
- 방 6개, 목욕탕 2개, 주차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내방 절충

010-3302-1821
055)638-182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충주시 신리면 마소리
- 평수 : 법당50평, 산신각 약15평, 대지 224평
- 법당 마당앞 연못 있고, 산밑에 위치
- 도로포장완료. 주차장有
- 가액 : 3억~2억 5천만원

043)852-0533

암자 · 토굴 안내

- 위치 : 경남 거제시
- 대지 344㎡, 104평
- 아궁이, 황토방 ●단독주택 2채
- 방3, 공양간 1, 인법당
- 가액: 1억 4천만원(절충가능)
- 거창 토굴터 . 1017평

055)632-384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김해시 어방동 531-5
- 태양빌딩 5층 중 4층
- 평수 45평 육합
- 삼존불, 탱화, 후불, 신중, 지장, 칠성
- 가전제품 등 일체 완비
- 인등 100등, 연등 165등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2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200만원

011-742-8458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중심지
- 건물 4층건물에 4층 옥상 넓게 사용 가능
- 보증금 5백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2천5백만원(절충)

010-3131-109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체, 칠천도 섬
- 법당 20평, 요사 70평
- 기타 부속 건물
- 대지+산 7천평
- 가액: 8억원

010-8750-9092
055)633-9091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도봉구 쌍문동
- 앞도로, 우이천 뒤 냇물 흐름 공기 최상
- 방1, 법당, 부엌 겸 거실, 마루
- 보증금 1800만원, 월 20만원

010-5470-1892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여수 시내
- 개인사정으로 급 양도
- 38년된 조그마한 절 (비구니 암자)
- 가액 : 9000만원

010-4623-5495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양산시 원동면 내포리 1643번지
- 대지 약 100평, 법당 30평
- 요사채 20평, 다용도실겸 주방
- 연못, 지하수구비
- 약간의 사유지 텃밭 사용중
- 가액: 1억 7천만원(절충가능)
- 임대가능

019-245-8929

사찰터안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대 가람터
- 가액: 파격
- 전기, 수도 사찰 부지 허가 필

010-4512-0813

사 찰 안 내

- 위치: 제주도
- 조용하고 아담한 사찰
- 가액: 상담후 절충

010-8815-7479

전원주택 토굴안내

속리산 자락 조용한 수양 및 기도처겸 양택 최고의 명당

- 위치: 충북 보은군 보은IC 10분 거리
- 대지 200평, 조립식 법당 25평, 전답 1,600평, 임야 13,000평, 요사채 10평 1동, 창고 1,
- 2010년도 고속도로 10분 거리 개통
- 평당 1만 4천원 ●꼭 필요 하신 분만 연락바람

010-9967-9832

전원주택 인법당 안내

- 충남 예산군 광시면 서초정리 530-1
- 면적 380평, 주거용 주택 38평 (방 3, 거실1, 주방1, 다용도실1, 화장실 2)
- 컨테이너1, 전 60평, ●업무용 주택(법당용) 22평(탕비실1, 화장실2, 주차장완비)
- 인근 대한민국 최대의 예당호와 임존성
- 가액: 3억 8천만원, 전화상담후 가격절충 가능

011-425-6054
041)333-6054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김천혁 신도시(김천시내에서 7~8분거리)
- 대지 171평(법당 1,2층 1동, 요사채 1,2층 1동, 합 건물 2동)
- 법당 2층 : 20평, 건물 단청되어 있음, 수미단 조성, 영단, LED인등
- 종무소 1층 : 20평, 방3개 ●요사채 : 1층 30평, 방3개, 2층 30평, 방3개 (귀뚜라미화목 보일러와 린라이가스 보일러겸용)
- 140여가구 마을 옆 산자락 아래 자리하고 법당옆으로 골짜기 물이 졸졸 흐르는 깨끗한 도량, 주차공간이 넓으며, 텃밭도 있음
- 근린시설, 종교집회부지로 등록되어 있음
- 가액 : 2억 3천 5백만원 (은행융자 1억 포함)
- 실질적인 가액이므로 금액절충은 불가하오니 꼭! 필요로 하신분만 연락바랍니다

010-7133-2266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부여군 만수산 자락 보령 20분, 청양 20분, 부여 30분 서해고속도로 20분거리
- 부지: 약 1,200평 (사찰 뒤 도유림, 주차장 완비)
- 건물 : 법당 20평, 요사채 50평 (신축건물, 방 4, 주방, 거실) , 산신각 3평, 창고 20평
- 사찰주변 경관 및 전망이 수려한 기도사찰
- 가액: 2억 8천만원(시설집기포함)
- 거래하실분만 연락바람(부동산사절)

010-3857-3366

도심 포교원

- 위치 : 서울 강동구 5호선 도보 2분거리, 아파트 상가밀집지역
- 4층건물중 2층, 45평
- 삼존불, 고급무늬목 상단
- 접견실 1, 방3, 실내화장실1, (대형)복도화장실 1
- 보증금 1천만원 ,월1백만원, 시설비 1천 5백만원
- 집기일체, 도시가스
- 도심속 최고자리, 주차장 완비

011-716-3811

포교원 안내

- 위치 : 전남 목포 산정동 아파트 1,200세대 입주 예정지, 사거리 대로변
- 총 43평 , 4층 건물에 3층
- 삼존불, 후불탱화, 지장탱화, 신중탱화
- 시설완벽
- 보증금 1,000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 상담 후 결정
- 즉시법회 가능

010-3535-2469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사찰소유토지 약 3만 3천평(등기됨)
- 임대토지 약 800여평
- 현황: 큰법당 35평(목조 외 3포, 단청필) 외 12동 (7동 등기), 경내지 대불 등 불상 다수, 주차장 대 2, 소1
- 용도: 대사찰, 복지시설, 템플스테이 등 적지
- 주변조건 : 명산 및 관광코스, 바닷가와 시내 차량 10분이며 3분 거리 시청있음. 행정신도시 조성중임
- 관공서 및 아파트 입주로 인구 증가 됨, 포교 최적지
- 가액: 협의(집기류 포함, 종무 전산화 됨)

011-583-0479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창녕군에서 7~8분거리)화왕산 군립관광지
- 평수 대지 (종교부지 600평) 심야보일러, 도량내 주차장완비
- 법당 30평, 삼존불, 칠성각, 산신각, CCTV설치, IC에서 10분
- 요사채 (60평, 방 4, 화장실 2개)석탑, 용궁 창고(20평) 텃밭 경작
- 특징: 산밑에 경관및 전망이 화려한 기도사찰, 부곡온천 10분
- 가액: 3억 8천만원(융자 5천포함) 유동가격, 대지 40~50만원
- 스님 건강문제로 급 양도,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주세요

010-6252-3225



Dr.황의 바른 자세 바른 생활 33 평발

후천적 변형도 많이 발생

평발은 선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후천적으로 생긴 경우도 많습니다. 후천적 평발의 경우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일어서서 몸무게가 실리면 내측종아치(loagitudinal arch)가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평발이 됩니다.

이를 기능성 평발이라 하는데, 대부분 본인이 평발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평발은 남들보다 쉽게 발이 피곤해서 오래 걷지 못하고 발바닥이 화끈거리기도 하지만, 전혀 그러한 현상이 없고 단지 체형을 변화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평발의 관찰은 서 있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앉아서 자신의 발을 관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발바닥 안쪽에서 움푹 패인 아치라고 하는 곳에 체중을 실어서 섰을 때 높이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경우, 즉 발바닥의 면이 바닥에 거의 다 닿는 경우를 평발이라고 합니다. 이 때 발바닥 모양을 잉크로 찍거나 스캔해 보면 발 중간 부위가 과도하게 넓어져 있고, 아치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한 평발인 경우는 뒤꿈치를 뒤에서 볼 때 바깥쪽으로 기울어지고 앞쪽 발부분도 바깥쪽으로 휘어져 있어 발의 안쪽이 튀어나온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후천적인 평발인 경우 평발로의 변형이 매우 빨라서 지속적인 관찰이 없다면 쉽게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부모님들의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부모들은 아이가 발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발견하게 되며 이 시기는 이미 평발의 진행이 거의 끝나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발의 원인은 뼈 자체의 정렬에 이상이 있거나 인대가 과도하게 유연한 경우, 근육의 균형이 맞지 않거나 힘줄을 다친 경우 등 여러 원인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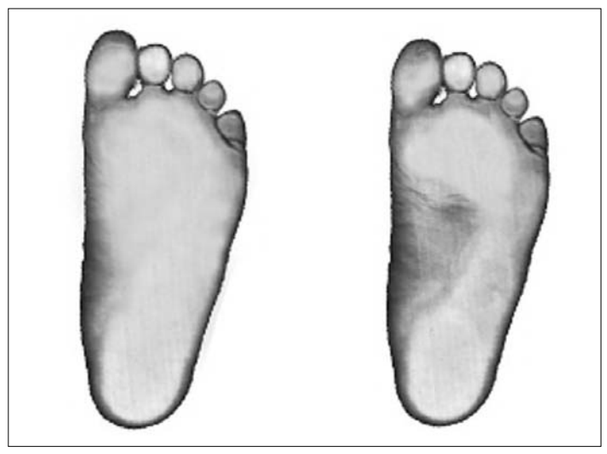
선천적인 평발이 아닌 후천적인 평발은 발의 변형으로 봅니다. 우리나라처럼 딱딱한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거나 어릴 때부터 많이 업혀서 지내는 경우 다리가 O자형으로 변형이 돼 걸음걸이 이상 등으로 발이 변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로 안짱걸음으로 걷는 아이들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바닥이 딱딱한 신발 등은 평발을 더욱 빨리 진행 시키는데, 예전과는 달리 요즘은 흙을 밟을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딱딱한 지면으로부터의 충격이 그대로 발로 전달됩니다. 또한 과체중은 발에 지나치게 무리를 주기 때문에 발에 변형을 가져오며, 잘못된 운동습관 등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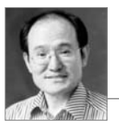
평발은 전신체형의 변화를 일으키는 한 원인이 됩니다. 첫째로 다리가 안쪽으로 휘어서 휜 다리가 되는데, 발이 안쪽으로 무너져 발목이 안쪽으로 돌아가면서 다리 전체가 안쪽으로 돌고 무릎이 안쪽으로 향하면서 다리 사이가 벌어져 휜 다리(일명 O자형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골반을 앞쪽으로 기울게 만드는데, 이때 배가 튀어나오게 되고 힘이 아래로 쳐지게 됩니다. 셋째로 무게중심이 앞뒤로 흔들리므로 오래 서 있으면 허리가 아프고 피로를 쉽게 느끼게 됩니다. 또한 평발이 한쪽만 있는 경우는 다리길이의 차이가 생겨 골반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기울어진 골반불균형은 허리에 영향을 주어 기능적인 측만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후천적인 평발에 대한 교정은 5~16세까지 발이 자라나는 기간 동안 교정용 인솔(깔창)을 제작해 착용하면 평균 70%정도 교정이 가능하다고 미국 정형외과 학회에서 보고돼 있습니다. 교정확률은 나이가 어릴수록 높고 나이가 많을수록 조금 떨어집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평발을 교정할 수 있는 시기는 겨우 10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교정을 시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포스츄어앤파트너스 교정센터
황상보 원장 T : 1544-9697



평발(왼쪽)과 정상적인 아치 형태를 가진 발.



김경현 원장의 몸 · 마음 이야기 21 뇌졸중(腦卒中)

평형감각 이상 · 구토… 전문의 찾아야

뇌세포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급격히 퇴화한다. 이렇게 뇌혈관에 갑자기 생긴 장애를 '뇌졸중(腦卒中)'이라고 한다. 뇌졸중은 뇌혈관장애로 인한 질환 및 사고의 총칭이다. 뇌혈관에 순환장애가 일어나 의식이 없어지고 몸의 반신이 마비되는 현상이다. 원인은 크게 뇌혈관이 퇴화돼 막히면서 발생하는 뇌경색(腦梗塞)과 뇌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뇌출혈(腦出血)로 크게 나뉜다.

일반적으로 '풍(風)을 맞았다' 하여 중풍(中風)이라고 불러왔다. 급격한 혈관수축으로 인한 혈관장애가 갑작스런 체온변화를 유발시키는 증상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다.

뇌경색에는 뇌혈관이 막히는 경우 뇌혈관 자체가 오랜 시간에 걸쳐 변하면서 막히는 뇌혈전(腦血栓), 다른 혈관에서 작은 덩어리가 뇌로 흘러 들어와 뇌혈관을 막아버리는 뇌전색(腦栓塞)이 있다.

뇌출혈은 뇌의 혈압이 갑자기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고혈압성 뇌증과 심장이 나쁘거나 동맥경화 등으로 뇌혈관이 좁아져 일시적으로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해서 일어나는 허혈발작 등으로 인한 것이 있다.

근래에 뇌졸중의 주원인이 뇌출혈에서 뇌경색으로 바뀌게 된 것은 혈압조절제의 보급으로 뇌출혈 요인이 많이 줄어든 반면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동맥경화 고지혈증 등 성인병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카페인 과다섭취 비만 과식 과음 과로 스트레스 만성신부전 당뇨병 등 순환계에 이상이 있는 경우 뇌졸중의 확률은 높아진다.

뇌졸중은 막힌 혈관이나 출혈부위에 따라 조금씩은 다른 증상들을 나타내므로 일반인이 감별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두통과 함께 평형감각의 이상이 오고 구토증이 수반될 경우 지체 없이 전문의를 찾아야 한다. 주의사항으로는 아주 찬물로 하는 세수, 갑작스런 실외운동, 아주 더운 목욕, 심한 스트레스 등을 피해야 한다.

과거부터 중풍과 관련된 비방이라 하여 다양한 약방문이 퍼져 왔다. 뇌졸중에 특별한 비방은 없다. 뇌졸중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리라는 믿음과 거기에 편승한 상인들의 잇속만이 있을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을 사전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뇌졸중의 한방치료의 원칙은 조기순기(調氣順氣)이다. 몸속의 기운을 고르게 조절하며 기혈의 흐름을 순조롭게 하는 것이다. 응급처치도 이 원칙에 따른다. 갑자기 마비가 온 경우 양쪽 귓바퀴 뒤의 핏줄이 엉켜 있는 곳을 바늘이나 침으로 찔러 일시적으로 피를 빼 주거나, 손가락과 발가락 끝을 따는 방법은 뇌압을 낮추고 막힌 기운을 순환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나 과도한 자극과 출혈은 오히려 뇌압을 높일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중풍하면 우황청심원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청심원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는 쓰지 말아야 한다.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는 청심원이 기도를 막아서 호흡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청심원을 풀어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조금씩 삼키도록 해야 한다. 사향 웅담 등이 뇌졸중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므로 우황청심원 공진단 등이 대표적인 치료제가 된다. 웅담은 구하기 어려우므로 근래에는 곰의 쓸개의 즙을 채취하여 말린 웅담즙을 쓰면 된다.

중풍전조증이란 것이 있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이미 몸의 반신이 마비되었거나 언어장애등이 일어나면서 의식장애는 심하지 않은 경우, 발병 전부터 가끔 팔 다리 손가락 등이 저리거나 힘이 없고 말이 둔해지거나 눈이 흐려지거나 얼굴에 가벼운 마비 등이 보이는 경우이다. 이런 증세들이 잠시 후에 사라지기도 하고 며칠간 계속되기도 하는 경우를 중풍전조증이라고 불러왔다. 이는 뇌 속 가느다란 혈관이 잠시 막혔다가 자연히 녹아 없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적절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거나 회복이 안 되면 중풍이 된다.

뇌혈관질환은 초기의 처치가 매우 중요하다. 마비나 평형감각이상 두통 구토가 수반될 때 지체 없이 병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선재한의원 (02)518-0845



황현수의 불교와 무술이야기 33 철사장2

손끝을 철퇴같이 만드는 단련

무술을 단체로 배우게 되면 서로의 경쟁심 때문에 그 성취도가 더욱 높습니다. 혼자서 수련을 하게 되면 지루하고 나태해지기 쉬우며, 자기를 지적해 주는 사람도 없어 그 성취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수련을 해낸 다면 그 정신력은 여럿이 한 것을 뛰어넘습니다.

철사장 단련법에서 손끝이 아닌 장을 연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자루에 쇠를 넣고 찌르는 것이 아니라, 포대에 탄탄하게 쇠를 채워 위에서 내리치며 장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이때 타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어깨에 힘을 빼는 이유는 주먹을 블랙잭처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장권뿐 아니라 손등, 수도도 같이 병행해 연마합니다.

블랙잭은 2차 대전 때, 연합군 특수부대원들이 가지고 다니던 무기입니다. 소의 남근을 말린 무기인데, 이로 머리를 내려치면 적병들은 내상을 입어 비명도 못 지르고 죽었다 합니다. 철사 타법도 이와 같이 손을 블랙잭의 끝 부분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즉 손에 철퇴를 매달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철사대 역시 처음에는 콩, 2단계는 콩과 쇠구슬, 3단계는 쇠구슬로 진행해 나갑니다. 철사대를 3년간 단련시키면 일반인이 상상할 수도 없는 스피드가 나오며, 이것이 단련이 돼야 촌경이라고 하는 근접수 공격이 가능해 집니다. 남들은 주먹을 쓸 때 어느 정도의 회전반경이나 거리가 필요한데, 철사장을 단련하면 1~2cm의 거리만 있어도 상대에게 일반 공격의 수십 배에 달하는 상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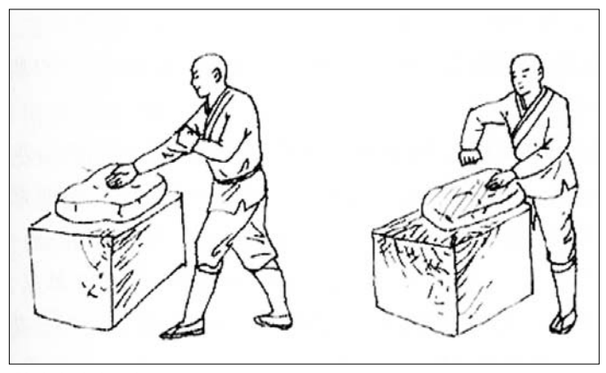
필자는 비록 손끝 단련을 3단계에서 멈췄지만, 철사대는 비교적 하기가 쉬어 3년간 무사히 단련을 마쳤습니다. 이 수련을 끝내고 촌경이 가능해지니 무술의 전체적인 동작이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굳이 많은 물리학적 공간이 필요 없게 되니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타법이 몸에 익자 대부분이 근접수 위주로 나가게 되며, 방어 역시 근접수 위주로 몸에 익으니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무술 동작이 간결하고 그 폭이 좁게 됐던 것입니다.

중국 무술 시연회에서 노사부들이 시범을 보이면 많은 사람들이 '저게 무술이냐? 저래서 누가 맞겠냐?' 등의 혹평을 합니다. 하지만 고수는 고수만이 알아보는 것입니다. 무술에는 화려한 동작이 필요 없고, 적을 제압하는 기술만 필요할 뿐입니다.

요즘 철사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자 각 무술단체에서 손끝(관수) 단련은 못하더라도 철사대를 만들어 주먹과 장권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에 맞게 벽에 걸어 놓고 정권 단련을 하듯 내리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철사장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큰 원리인, 어깨에 힘을 빼는 기술을 익힐 수가 없습니다. 옛것은 일시에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오랜 기간 경험을 거쳐 인정 받고 굳어진 방법들입니다.

근본불교학자/ 다음카페 : 37수도장



철사장 단련 모습.

불자정보 800호

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

도심포교원안내
- 위치 :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 IC부근
- 평수 70평 단층건물
- 보증금 +시설비 : 1억 2천만원 월 155만원
- 시설완벽 A급
- 몸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주차장완비
- 즉시법회가능

017-202-5126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북 영주시 순흥면 (소수선원 및 선비촌 인근)
- 부지 992평, 산세 및 전망 좋음
- 소백산 최고의 대명당, 대길지
- 토목공사완료, 전기 및 수도 인입완료, 건축가능 (허가유)
- 계곡물흐름, 교통편리 풍기 IC 15분거리
- 가액: 2억 8천만원

011-383-9863

포교원 안내
- 위치: 대구 반월당
- 대지 100평 ●단독 3층 건물 전체
- 주차장, 옥상 베란다 사용
- 최고시설환경, 소임관계로 전체 양도
- 즉시법회
- 보증금 2,500만원, 월 85만원
- 시설비 4000만원(절충가)

010-6780-6271

고사찰 안내
- 위치: 경북
- 대웅전, 삼성각
- 구법당, 요사 3동, 불사완료
- 땅 약 2,000여평
- 가액 : 8억
- 상담후 절충가능

010-4457-6888

포교원 안내
- 위치: 경북 구미시 도량동
- 2층 상가건물(슬라브건물)
- 아직 포교당은 못하였으나 큰 대로변옆에 있어, 포교원으로 적합
- 가액: 1억 1천 3백만원 사정상 시세 이하로 양도함

010-5054-6782

전원주택 및 토굴안내
- 위치 : 경남 고성 해하면 당항리 국민 관광지 옆
- 평수 : 1필지 59평 (슬라브주택으로 사용중) 1필지 60평(창고)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1-855-4959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 대지 220평, 법당 15평, 요사채
- 가액: 보증금 900만원, 월 50만원
- 재개발지역
- 가액 : 답사 후 절충

010-6233-1954

포교원(급)안내
- 위치: 일산 서구 대화동, 대화역6번 출구 옆
- 평수: 55평(7층)
- 시설: A급 모든 시설완비(법회중)
- 동삼존불, 원불 500불
- 몸만 오시면 됨
- 가액: 보증금 1500만원, 월 11만원
- 시설비 4000만원
- 스님 공찰관계로 급 양도

010-3579-9352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이 재 진	051)632-0064 / 011-488-7745
대구지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충청지사	혜철스님	043)732-5560 / 010-9522-8453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0-2629-1508
전북지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주지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❹ 돈황에서 찾은 불교신앙 3

중국인 닮은 불상 나타나기 시작

중국의 초입에 위치한 돈황은 중국과 서역 사이에 걸쳐진 매우 재미있는 도시다. 이러한 중국과 서역의 사이에서 동아시아로의 불교신앙 유입의 형태를 찾을 수 있다.

돈황 막고굴 초기 모습은 규모는 작지만 역동적이다. 막고굴에서 보이듯 새로운 문화에 대한 수용은 거대한 변화를 불러일으키며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져 갔다.

이러한 변화는 동양왕(東陽王)이라는 인물과 관계가 깊다. 무주성력원년비(武周聖歷元年碑)에는 돈황 석굴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낙준과 법양이 불교를 포교하기 시작하였으며, 건평 동양공이 유적을 조성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장경동에서 발견된 두루마리 문서에도 동양왕과 관련된 기록이 보인다. 동양왕의 이름은 원영(元榮, 북위시대 황실의 성)으로 북위시대 효창연간(525년)에 과주자사(瓜州刺史)로 봉해져 약 20여 년 간 돈황 지방을 지배했다. 이 시기에 동양왕은 서역 본토에서 승려들을 불러들여 석굴을 많이 개착한다. 그 이후 북위가 멸망한 뒤에도 그의 자손들이 석굴을 지속적으로 개착해 천불동(千佛洞)을 이루게 된다.

이 시기의 돈황 막고굴은 이전 시기의 초기 석굴 양식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형태의 중국화와 함께 안에 위치한 불상들이 중국인의 옷을 입게 되는 시기다.

중국 북위 황족들은 그들이 가진 이민족이라는 굴레를 벗고자 노력했다. 그래서 본인들의 성을 중국식으로 바꾸고 옷도 중국식으로 바꿔 입었다. 그들은 불상에도 중국식의 복장을 입힌다. 소위 말하는 화화양식(華化樣式)이다.

실크로드를 통해 들어온 서방풍의 불상이 아닌 중국인을 닮은 불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막고굴의 중국화는 돈황이 중국화의 시발점이 아니라 중국에서의 변화가 돈황에 영향을 미쳤다는데 그 의미가 깊다.

이 시기에는 불상의 종류가 매우 단순하다. 거의 석가모니불이 주를 이루며 무량수불과 미륵보살상들이 가끔 등장할 뿐이다. 하지만 이 시기 돈황 석굴의 벽화에는 보다 많은 인물들이 등장한다. 부처님 전생담이 대형 벽화를 통해 표현되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중국 고대신화인 복희와 여와씨를 비롯해 도철(머리만 있는 괴수) 등이 불교적 색채를 띄고 등장한다. 일각에서는 복희와 여와가 불교 안에서 새로운 보살로 자리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중국으로 들어온 불교가 중국화돼 가는 과정이다.

중국화의 과정은 비천상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불교가 인도로부터 중국에 전해질 때 비천상도 함께 전해졌다. 원래 인도의 비천상은 무서운 나찰의 모습을 띄고 있는데 반해 중국에 오며 중국 고유의 신선사상과 결부되며 선녀처럼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 돈황 막고굴의 비천상은 이런 선녀와 신선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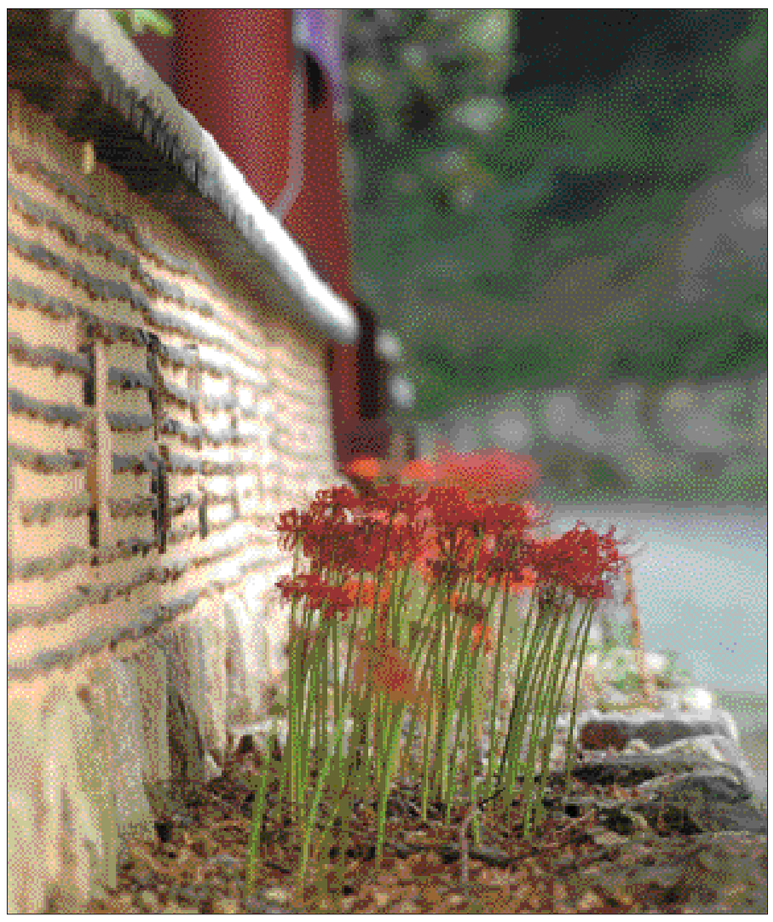
불교의 중국화는 동아시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천상계와 신선 등 우주관이 불교 안에서 다시금 재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또 단순한 평면적인 벽화가 아니라 연속된 이야기를 화폭에 담아내 중국벽화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문무왕 (사)한국미술사연구소 선임연구원



돈황 막고굴 285번 굴은 승려들이 수행과 생활을 병행한 승원굴인 비하라형 석굴로 널리 알려졌다. 285번 굴은 인도풍의 비하라형 석굴이지만 내부 천장에는 중국 설화가 가득하다. <중국대륙의 문화> 3권, 한언출판사 p.97에서 전재.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❹⑨ 불갑사 꽃무릇

미완성인 꽃 창살에는 슬픈 얘기 남아있고, 창살 너머엔 옆으로 앉은 부처님이 계신다. 불갑산 불갑사. 꽃무릇 가득 피어있는 줄도 모르고 갔다가 가을바람 들어 왔던 작년 여름. 동구부터 붉게 물든 불갑사 길엔 벌써 가을이 와있었다.

잎이 지고 나야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나야 잎이 난다고 한다. 꽃은 잎을 보지 못하고, 잎은 꽃을 볼 수 없어서 상사화(相思花)라 부른다.

우리는 저마다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꽃무릇이 그렇게 피는 것도 그렇고, 죽는 날까지 부처님 전에 앉아 묻고 또 묻는 일도 그렇다. 작년엔 가을이 빨리도 왔었다.



그림으로 본 극락세계

제11도
불광명조무량국성문등계장엄

이 삽화는 아미타불에 대한 설명으로 제13도까지 이어진다. 그림을 살펴보면 높은 대좌에 앉아 합장하고 있는 아미타불과 그 왼쪽에 5명의 성문중과 오른쪽에 2인의 천인이 시립하고 있다. 본존 주위에는 여러 가닥의 많은 빛이 사방으로 펴져나가고 있는데, 이는 본문 중에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은 무량하여 시방세계를 비추어도 걸림이 없기 때문에 아미타불이라고 부른다' 는 내용을 표현한 것이다. 이 도상은 7번째의 목판 원판 전반부의 일부와 후반부의 2/3까지 이어져 있다.

"사리불아, 네 뜻에는 어떠하냐? 저 부처님을 어떤 까닭에 아미타라고 이름하셨는지 아는가? 사리불아, 저 부처의 광명이 한량없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춤에 조금도 걸림이 없기 때문에 이름이 아미타이시니라. 또 사리불아, 저 부처의 목숨과 그 곳의 사람의 수명이 무량(無量: 헤아릴 수 없이 많거나 끝이 없는 수), 무변(無邊: 끝이 없고 가이 없음), 아승지겁(阿僧祇劫: 셀 수 없이 많은 수)이므로, 이름이 아미타이시느니라." (舍利佛 於汝意云何 彼佛號阿彌陀 舍利佛 彼佛光明 無量 照十方國 無所障礙 是故 號爲阿彌陀 又舍利佛 彼佛壽命 及其人民 無量無邊阿僧祇劫 故名阿彌陀)

이 본문을 간추려보면 극락세계에 계신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과 수명이 한량이 없기 때문에 아미타불이라 한다는 것이다. 아미타불은 무량수불 혹은 무량광불이라고도 부른다. 그 이유를 <무량수경>에서도 설하고 있는데, <무량수경>에서 처음으로 법장보살이 성불한 후의 명칭으로 '무량수불' 이라는 명호가 나온다. 아미타불은 광명이 모든 부처님 가운데 최고이고, '무량광불' 이라는 명호를 위시해서 '무변광불' '무애광불' 등 12광의 별칭이 있으며, 그 무량한 광명으로 일체 중생을 구제하여 해탈의 길로 이끈다. 또한 아미타불은 수명이 무량하며 극락정토에 있는 성중들도 마찬가지로 수명이 무량함을 설한다.

이것은 법장보살 구의 48원 가운데 제 12원인 '광명무량의 원' 과 제13원인 '수명무량의 원' 을 성취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아미타부처님이 제12원인 '광명무량의 원' 을 서원한 것은 시방세계 모든 불국토의 중생들을 다 구제하기 위함이다. 제13원인 '수명무량의 원' 을 서원한 것은 시방세계 현재의 무수한 중생은 물론 미래의 중생들까지 모두 구제하기 위해서다. 이 두 가지의 원으로 인해 아미타불은 산스크리트어로 '아미타유스 Amitayus(무량수)' '아미타바 Amitabha(무량광)' 라는 두 개의 이름으로 불린다.

아미타불의 수명이 무량하다는 것은 시간적인 영원성을 상징한 것이고, 광명이 무량하다는 것은 공간적인 제한을 초월함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 불자들도 이제 아미타부처님의 서원을 믿고 아미타부처님이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는 구제의 손길을 아낌없이 받아 들여 이 사바세계가 불국정토가 될 때까지 그 손길을 놓지 않아야 할 것이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고판화박물관 소장 <불설아미타경> 중 제11도 불광명조무량국성문등계장엄(佛光明照無量國聲聞等界莊嚴). 덕주사판, 1572년 간행, 반곽(半郭) 28.2×21.0㎝.

정성들여 만든 불교달력 주문하시면 최저할인가격으로 보답합니다.

동진기획 상호는 출판사등록 제11-67호입니다. 붓다쇼핑 사이트에서 회사소개를 클릭하시면 출판사 등록증, 인쇄소 등록증, 통신판매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불서보급 37년 전통과 제품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 불교달력과 불교용품을 직접 생산·판매합니다. 달력 1~40호 {국6절 · 12절 · 미니 · 다이어리 · 한지 · 탁상}

www.buddhashopping.com

12절 1,100원 (200부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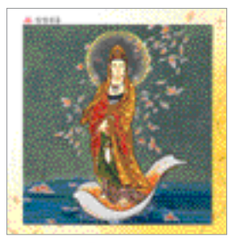
3호 붓다의 메아리



4호 산사로 가는 길



11호 들꽃의 향기가 머무는 산사



8호 관음도



16호 부처님의 꽃



38호 행복달마도 (한지)



30호 나를 다스리는 말 (다이어리)



17호 복 많이 받으세요



15호 반야심경



14호 반야동자



20호 홀로있는 시간



29호 들에도 꽃이피네 (미니)



25호 동승일기 (미니)

달력 할인가격표

국6절(大)	~~1,900원~~	1,400원(200부이상)
4*6 12절	~~1,600원~~	1,100원(200부이상)
차 걸 이	~~650원~~	450원(200부이상)
미 니	~~800원~~	450원(200부이상)
다이어리	~~1,000원~~	650원(200부이상)
한 지	~~2,200원~~	1,700원(100부이상)
탁 상	~~2,700원~~	2,200원(100부이상)

• 대량주문시 사전 전화 문의 바랍니다~
• 달력·용품카다로그가 필요하신분은 (051)515-8888로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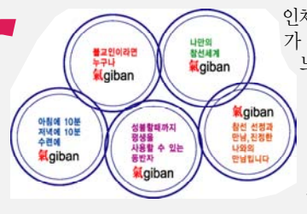
동진기획 · 붓다쇼핑 검색창에 [붓다쇼핑]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번지
대표번호 : (051)515-8888 H·P : 011-554-2988, 011-879-0889
Tel : (051)515-2988, 555-1087, 508-9377~8, 070-7425-0518
Fax : (051)508-0101 E-mail : dongjin8888@naver.com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6㎝]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대행 스님

무엇 하나도 착을 두지 말고 그냥 무심으로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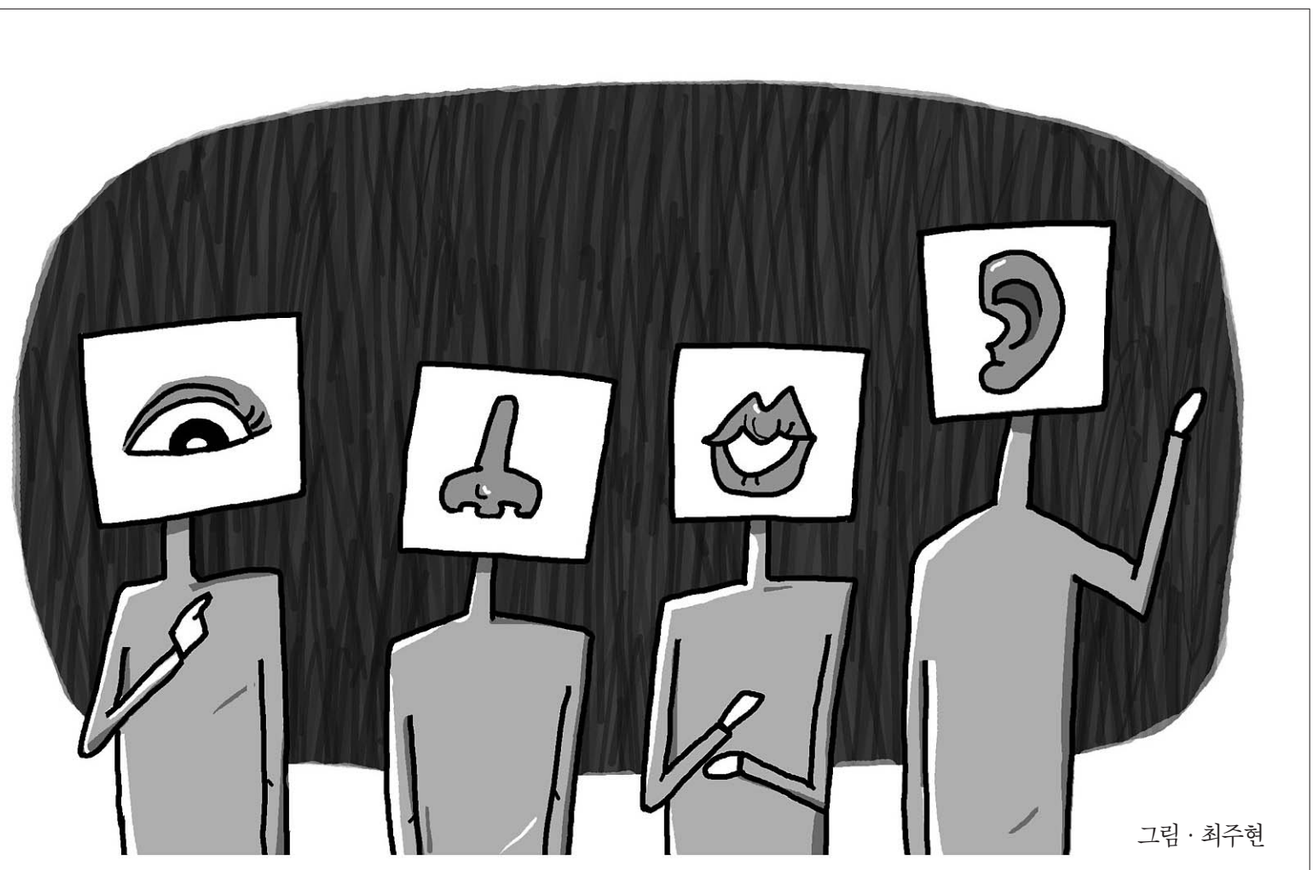
지혜와 마음에 대해서

문) 이번 8월달 선원 달력에 "지혜 있는 데 마음이 있고 마음 있는 데 지혜가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왠지 내용이 좋은 것 같아 마음으로 계속 새겨 보지만 사실 뜻으로는 정확하게 와 닿지 않습니다. 저의 인생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도록 스님께서 그 뜻을 좀 일러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답) 지금 젊은 분들도 그렇거니와 애들서부터 어른까지 다 알아야 할 인생관, 인생이 어떻게 해서 자기한테 주어졌고 어떻게 조화가 돼서 돌아가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화원의 꽃이 저렇게 한데 합쳐져서 조화가 이루어지듯이, 또는 산의 고목이나 벌레 먹은 나무들, 짧고 긴 나무들, 풀 등도 각기 모습이 다 다른 것들이 같이 모여 있기에 조화를 이룬다는 것, 산골마다 물도 좋고 돌도 있고, 그 여러 모습들이 조화된 아름다움으로 우리들 눈에 비춰진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대한 것도 역시 그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둠이로 생각해서 물 위에 산이 가고, 산 위에 물이 간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지혜 있는 데 마음이 있고 마음 있는 데 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곧바로 자기한테 있다는 얘깁니다. 지혜 따로 있고 마음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지혜는 물로 비유했고 마음내는 이 자체는 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모습 모습이 다른 여러 종류들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 산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살아나가는 모습들이 다르고 이름들이 다르고 또는 병든 사람 건강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키가 작은 사람 큰 사람, 모두 다 같이 사는 것처럼 산에도 그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와 같이 들이나 산이나 물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우리 한번 그것을 생각해 봅시다. 물이라는 것은 지혜로 비유하니 우리가 시각적으로나 촉각적으로나 또는 감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나 온갖 지각이 한데 합쳐진 것을 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귀로 듣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는 눈으로 보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 코로 냄새 맡는 것을 받아들이고, 혀로 맛을 아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는 부닥치는 것을 받아들여서 그 모두를 지혜롭게 돌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림 · 최주현

우리가 귀로 들어서 화가 불끈 나는 것도 있지만 아주 감미롭고 친근하고, 어떤 땐 웃음이 날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어떤 때는 상을 찌푸리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이랬을 때에 그 듣는 순간에 마음이 달라진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혜는 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것은 여러 가지로 듣기 때문에 산으로도 비유한 겁니다.

듣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도 역시 아름답게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아주 속상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가지 아니겠습니까? 냄새를 맡아서 구린내가 나는 것도 있고 향기로운 냄새도 있는 것입니다. 또 맛을 봐서 아주 맛이 없는 것을 느끼고 맛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또는 우리가 손으로 쥐어서 촉감이 좋은 것이 있고 아주 거친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알게 하는 그 자기의 모든, 한데 합쳐진 지혜라고 할까요? 달라지는 이 마음 자체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 있는 데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각이 뚜렷하고 시각적으로나 감각적으로나 모든 게 융합돼서 돌아가는 것을 발현하고 서로 상응하게 하는 그 자체의 지혜가 넓어야 된다는 얘기죠. 바다와 같아야 된다, 좁아서는 허공에 바늘구멍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귀로 듣고 혀로 맛을 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하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중생이다 부처다 하는 것은, 중생들은 보고 듣고 생각 일어나는 것, 모두가 자기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중생이요, 부처님의 뜻은 자기가 고정돼 있지 않으니까 마음조차도 배꼽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처음 명상을 할 때 배꼽 밑에다 중심을 두라고 하지만 그 배꼽까지도 송두리째 빠졌다 이 소립니다. 송두리째 빠지니까 나라고 내세울 게 없는 것이 공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고정되게 돌아가지 않고 공했으니 내가 하는 모든 일도 전부 공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착(着)을 두지 말고 그냥 무심, 무심으로 해라 했던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남의 위에 있으려는 마음에 대해서

문) 저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십 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은 전혀 가르치지 못하고 항상 자기 자신에게만 관대한 마음을 갖게 되고, 남에게는 저 자신도 모르게 상대보다 위에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서 대하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스님, 제가 정말 함이 없이, 내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답) 예, 좋습니다. 그 생각을 하셨으니 앞으로는 잘되실 겁니다. 그 생각이 바로 여러 가지를 빚어 낼 수 있는 동기가 되니까요. 그 정성스런 마음, 바로 나를 내가 낮추는 그런 마음이 말입니다. 자기가 남을 가르치고 그런다 해서 자만과 오만 이런 걸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되죠. 그건 금물입니다. 지렁이 생명이나 벌레 생명이나 우리의 생명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고, 날아다니는 새, 다람쥐, 이런 것들도 하나도 우리 생명과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과 사람이 서로 업신여기고 한대서야 말이 됩니까?

이건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업신여기면 업신여기는 대로 벌써 내 앞에 딱 다가옵니다. 그 사람한테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해 가지고 자기가 그 음파를 집어먹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자기한테 돌아오지요. 딴 사람한테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한생각으로 때로는 신장이 되시고 때로는 약사가 되시고 관세음이 되시고 아촉이 되시고, 문수가 되고 보현이 되고 칠성이 되고 지장이 되고 아미타가 되고 용신 지신까지 이렇게 되시는데, 한마음으로서 왜 그렇게 여러 가지를 다 하시게 됐느냐. 이거를 한번 따져 보세요. 자기가 마음을 잘못 먹으면 그 음파가 가다가도 벌써 자기한테로 파고들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응신이 나쁘게 나갔기 때문에 그 응신이 신장으로서 다가오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 좀더 활발하고 좀 의기양양하게 사실 의향이 있다면, 그리고 몸들도 건강하게, 안팎을 건강하게 가지고 사시려면 '내가 권

☞26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www.hyunbulshop.com

일단 주인공 용광로에다 나오는 대로 집어넣어보세요

☞25면에서 계속

세가 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는 이런 거는 아예 집어내 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나라는 존재, 오만과 자만, 아상 이런 거를 항상 자기 마음속에서 살필 수 있어야 그것이 나를 밝히는 수행입니다.

기도하면 인과응보를 면할 수 있나요?

문) 불교에서는 인과응보라는 게 있어서 꼭 지은 대로 받는다는데 기도를 하면 인과응보를 면할 수도 있는 건지요?

답) 나는 항상 그럽니다. 다른 이름을 믿고 빌고 기도하고, 또는 형상을 믿고 기도하고 그러지 말고 어느 법당엘 가든지, 강당엘 가든지 형상은 네 형상과 똑같이 둘 아니게 봐라. 그 마음이 둘 아니다. 내 형상과 둘 아니고 마음도 둘 아니고 법 또한 둘 아니다. 그러니 둥글게, 내 마음과 모든 걸 한데 합쳐서 일 배를 올리더라도 둥글게 일 배를 지극하게 올리고, 나올 때 다시 주인공에다 맡기고 나오너라.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몸뚱이 속에도 헤아릴 수 없는 생명들이 있죠?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죠? 모두가 초월해서 돌아가는데 어떻게 그것을 '님'으로다가 하나로 붙이겠습니까? 그래서 주인공(主人空)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주인공입니다. 각자.

그래서 자기 님을, 즉 말하자면 과거에 수없이 살아오고 형성시킨 자기 자랑스러운 임을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본래는. 그런 건데 기독교에서나 가톨릭교에서나 모두, 나도 가톨릭교에 좀 있어 봤습니다마는 내가 기껏 잘못해 놓고 고해 성사 할 때는 신부님한테 가서 다 옮기고 돌아서죠. 그러곤 편안하다고 돌아서는 거예요. 나도 그래 봤으니깐요. 그게 말이나 될 법한 일입니까? 에누리가 없는 게 세상살이에요. 삶이에요, 모두가. 우연히도 없어요. 부부가 만나도 우연이 없어요. 이 세상에 나가 보세요. 전부 끼리끼리 놓여 있죠? 상점에도 끼리끼리 놓여 있지 뒤섞여서 있습디까?

그러니까 끼리끼리 차원대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도 따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할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깐 내가 망해도 '네가 잘못해서, 앙앙거려서 재수가 없어서 안됐다.' 이런 소린 아예 하지 마라 이 소리죠. 모두가 자기 차원에 따라서 자기 탓이니까 자기가 아무리 잘했어도, 자기가 돈을 벌었어도, 또 망했다 하더라도 자기 탓이에요. 자기가 없다면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 탓이죠. 안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법당엘 가거나 강당에 가면 기도하면서 그냥 '하느님 아버지시여!' 또 불당에 가면 '아이고, 부처님이시여! 관세음보살이여! 지장보살이시여!' 뭐 온갖 이름을 다 찾죠. 그러나 그게 없는 이름은 아닙니다. 다 있어요. 우리가 아파서 주인공에다 맡기면 약사가 되거든요, 약사보살. 진짜 자기가 약사보살이 돼요. 또 자기가 가난하고 어떠한 법칙에 의해서 문제가 생겨서 너무 답답할 때에 거기다 맡기면 관세음이 되죠, 관세음보살이. 명이 짧아서 어쩌나 그러고 걱정될 때는 칠성부처님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내 주인공한테 맡기면 내 주인공으로 하여금 통신이 돼서 그 칠성부처가 책임을 맡죠. 참 묘합니다. 그러니까 칠성부처가 그 명을 다루죠.

그리고 또 누구나가 차원대로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죽으면 자기가 산 대로, 행동한 대로, 말한 대로 그대로 모습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개로 나왔다면 개 대접밖엔 못 받죠. 우리가 살아 보지 않아요? 개 새끼는 개 새끼지 뭐 사람의 새끼냐 이러죠. 뱀이라면은 뱀의 대접밖엔 못 받죠.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대접을 받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한 대로 조금도 어김없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공부는 모든 걸 무효로 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잘되고 잘못되는 거를 다 그냥 무효를 시키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거를 새로이 개척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이 공부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빌어서, 빌어먹는다는 말이 있죠, 왜? 빌어서 뭐를 조금 얻어서 쓴다 하더라도 고거 없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데 그럴 땐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떤 때는 사람들이 그래요. "아, 나한테 좀더 마음을 크게 내 주셔서 해 주시오." 이러죠. 그러나 나는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본인을 가르치는 데는 그렇게 "그러세요." 이래서는 절대 안 되죠. 본인이, 본인이 직접 하게 만들면서 해 줘야죠, 재주를 가졌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더러 "관하시면, 그대의 주인공에 관하시면 되죠. 열심히 해 보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또 마음이 편안해야 되겠으니까. 지금 집안에서 콩 튀듯 팥 튀듯 하는데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면 나라도 말 한마디라도 편안하게 해 줘야죠.

어떤 사람이 뭐가 잘못돼서 모든 걸 은행으로 뺏기고 인제는 집까지 뺏기게 돼서 거리로 애들하고 나서게 된다고 하면서 그냥 땅바닥에, 내가 길에 나왔는데 그 땅바닥에다가 절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리석어서 그랬을까요? 보잘것도 없는 고깃덩어리, 중한테 뭐 볼 게 있다고 거기다가, 길바닥에서 절을 하겠습니까? 남의 말은 들었지만 자신은 그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라는 거를 다 버린 겁니다, 아주. 아시겠습니까? 자기라는 거, 자기 위신이라는 거, 양심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다 몽땅 몸째 그냥 다 버린 거예요. 죽어 버린 거예요.

나라는 아상, 오만과 자만 이런 거를 항상 자기 마음속에서 살필 수 있어야 그것이 나를 밝히는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나는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이 '잘 죽었다, 잘 죽었어. 어차피 죽으려면 그렇게 죽어야지.' 그러고선 왜 땅에서 이럭하시느냐고 일어나시라고 이렇게 해 놓고는 열심히 관하시라고, 그래도 관하시면 좋은 일이 있지 않겠느냐고, 그저 관하시면서 부지런히 뛰시라고 이랬어요. 그랬는데 얼마 있더니 "아이, 집은 건지게 됐습니다." 또 얼마 있더니 "아유, 그 공장 하던 것도 되찾게 됐습니다." 그래요. 나는 어떻게 찾게 됐느냐 이런 것도 묻고 싶지 않아요. 죽게 되는 식구를 건지기만 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뭘 물어요? 그렇게 좋다면 나도 좋은 거죠. 이유를 물을 필요도 없죠. 그 이유를 묻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는 이 정신계의 무의 법이 그렇게 귀중하고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문제들이죠. 그런 법이 바로 50%에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할 줄 아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권리를 가지고 다 지니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죄가 없다는 사실, 도둑질을 하고 사기질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죄가 없다. 모르니까 그런 거지, 알면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신기한 건, 보시면 보는 대로 그냥 있는 게 없죠? 강도질을 했다 하더라도 그냥 돌아서서 벌써 과거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인과응보라는 게 있어서 그 강도질을 했다면 되와야 하죠? 그런데 되오기 전에 입력을 없애 버리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요. 되오기 전에 입력이 되니까. 다른 입력으로 들어가니깐. 그래서 이것을 묘법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서 비는 게 아니라 자기 주인공한테 맡겨 놓는다면 인과응보도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언니와 자주 다투게 됩니다

문)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을 통하여 스님 법문과 인연이 되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청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언니에게 바라는 게 많은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언니와 자주 다투게 되고 그래서 또 속상해하고 하는 일상이 반복됩니다.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답)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변소에 갈 때 아무 생각 없이 가지, 지금 대변이 마려워 죽겠는데 대변 마려운 생각뿐이지 거기에 무슨, 간접적으로 뭐가 들어갑니까? 그 순간에 말입니다. 들어가서 똥을 콱 싸 놓고 봐야 그때 인제 뭐가 다른 것도 생각나고 그러지, 그 외에는 아예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와 같이 아무 생각 없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주인공을 진짜로 믿는다면 아무 생각이 없을 것입니다. 왜? 주인공에서 모든 것을 다, 어떠한 거든지 자가발전소에다 대기만 하면 다 그냥 타 버리니까. 나쁜 것도 타 버리고 좋은 것은 승화되고. 보세요. 용광로에다가 모든 것을 집어넣으니까 자동적으로 쇠가 생산돼서 나가죠? 넣는 작업만 잘한다면 생산돼서 나가는 거는 저절로 자동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왜 걱정을 합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 나올 것이고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 나올 것인데 구태여 왜 걱정을 하고 지냅니까?

이 세상에 한번 나서 캠핑을 왔다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질 것을 알면 남을 원망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아니, 한 철 나러 왔다가 웬 싸움입니까, 부질없이. 또 다 놀면 소꿉장난하다가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와 같은 건데 그거 왜들 그럽니까?

그러니까 부부라도, 자식과 부모라도, 형제간이라도,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괴로운 것은 거기다 맡기고, 서로서로를 위해서 부드럽게 말해 주고 부드러운 행동을 해 준다면 마음과 마음이 서로 상통해서 서로 한 방에 불이 들어오듯, 그렇게 에너지의 불이 당겨진단 말입니다. 그러니 마음 편안하니 좋고 화목하니 좋고, 일이 성립이 잘되니 좋고 애고가 없어지니 좋고, 유전성이 없어지니 좋고, 이거는 모든 일거일동이 다 좋아지는 겁니다.

하여튼 그저 다스리지 않고 속상하는 대로 탁탁 내뱉으면 뱉는 대로 그대로 속에서도 그대로 내뱉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속의 그 의식들이 그대로 따르니까요. 털구멍을 통해서 나고 들면서 말입니다. 이거는 내 안에 들어 있으니까 내 안에만 들어 있다고 생각 마세요. 세균성도 오염시키는 것이 바로, 나가서 끌고 들어오는 데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집을 비워 놔두면 자손들이 친구들하고 막 들어와서 그냥 분쟁을 일으키고 그러는 거와 같이 말입니다. 이 집안에 주인이 없다면 그렇단 얘깁니다. 집안에 주인이 없다고 그냥 뭇 의식들을 끌고 들어와서 막 난장을 벌이고 나가면 그 집안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 집도 주인이 없이 아마 일 년이고 이태고 십 년이고 그냥 놔둬 보십시오. 거미줄이 슬고 썩어들어 갑니다.

그와 마찬가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장자인 주인이 엄연히 있습니다. 그러니 주인의 그 기둥을 달리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형상을 믿을 수도 없고, 중들의 고깃덩어리를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름을 믿을 것도 못 되고 허공을 믿을 것도 못 됩니다.

혼자 왔다가 혼자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는 세상을 살아나가기에 너무 역겹지 않습니까? 쳇바퀴에서 좀 훨훨 벗어나고 싶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단 주인공 용광로에다 나오는 대로 집어넣어 보세요. 무조건 그렇게 해 보신다면 그런 의식들이 녹아지면서 알 바가 생길 것입니다.

*불교서적총판 운주사는 양질의 불서를 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가득한 공간
불교서적총판
(주) 운주사
불교서적 · 음반 도매
불교서점 개설
도서관 납품
불교도서전 개최
운주사 www.unjusa.com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5가 120번지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전화 (02) 3672-7181 | 팩스 (02) 3672-7186

초기불교에 대한 개론서이자 본격적인 해설서



초기 불교 이해
각묵 스님 저/신국판/535쪽/
23,000원/초기불전연구원

이 책은,
① 한역 경전이 아닌, 빠알리 『삼장』을 토대로 한 초기불교 개론서이다.
② 빠알리 『경장』에서도 4부 니까야를 토대로 하였다. 부처님의 원음과 직계 제자들의 육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③ 특히 초기불교의 교학과 수행체계를 심도 깊게 다룬 경들을 모은 『상윳따 니까야』를 중심에 두었다.
④ 초기불교에 대한 단순한 입문서가 아니라 초기불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본격적인 초기불교 교리서 혹은 초기불교 해설서이다.
⑤ 철저하게 『청정도론』과 『아비달마 길라잡이』와 주석서 문헌들을 의지하여 필자의 주관에만 빠지지 않도록 하였다.

하버드대 출신의 눈푸른 수행자 현각 스님을 백척간두의 세계로 이끈 스승, 봉철 노선사의 생동감있고 심심미묘한 법문

수개월, 수년이 지나는 동안 나는 스승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소백산 작은 암자에서 매일 아침 몇 시간씩 집중적으로 참선을 하였습니다. 봉철 큰스님은 정말이지 수행을 위해 나를 절벽 끝까지 몰아붙이셨습니다. 큰스님께선 '좋다, 나쁘다' '성스럽다, 속되다' '맞다, 틀리다', 그리고 '옳다, 그르다' 라는 나의 차별심에 대해 참구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봉철 큰스님의 가르침과 신행信行, 그리고 본분사本分事에 대해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현각 스님)

노선사가 들려주는 불법의 정수와 대자유인의 삶

극락도 불태워 버려라
김상백 엮고 씀/사륙판양장
252쪽/9,500원/운주사





불자 세상보기

김재영
불교학박사 · 청보리회법사

'오계' 로서 표준 삼아라
<五戒>

독일의 저명한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불교를 '비(非)정치적인 반(反)정치적인 종교(un-political and anti-political religion)'로 규정했다. 이는 불교가 철저하게 비(非)사회적인 종교로서 개인의 구원만을 추구하고 불교의 고립 은둔적 행태가 사회발전 정치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것을 비판한 말이다. 이러한 베버 류(類)의 비판은 자료부족에서 오는 오해이거나 출가중(出家衆)의 상가(sangha)를 불교도공동체의 표준으로 인식하는 편견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불교도공동체, 곧 빠리사(parisa, 大衆)는 역사적으로 정치인 · 지식인 · 기업가 등 다양한 시민그룹들로 형성돼 있다. 출가중(사마나; samana, 沙門)도 이러한 시민그룹의 하나이다. 이것은 불교도가 사회적 정치적 조건들과 깊이 연계되어 있고, 불교가 정치사상 및 정치적 행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고따마 부처님을 비롯한 초기 빠리사의 많은 리더들이 정치인(카띠야, 크샤뜨리아) 출신이란 사실에 의해서도 입증된다. 석가족 전체가 카띠야(khattiya), 곧 정치적 군사적 종족이었다.

따라서 불교도는 정치현실에 대해 매우 민감하고 적극적인 정치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불교는 다양한 형태의 정치사상을 발전시켜 왔다. 약소국의 왕자로서 직면하는 정치적 현실에 대한 좌절감이 고따마의 출가고행과정에서 중요한 동기의 하나로서 작용했다. 고따마의 이러한 정치의식, 곧 카띠야의식(khattiya意識)은 성도 후 그의 생애를 통해서도 줄기차게 작동하고 있다. 법의 바퀴(法輪, dhamma-cakka)를 굴리며 험한 벌판과 폭류를 넘어 황무지를 개척하고 담마를 전파하는 부처님과 초기 빠리사의 전도운동에서도 이러한 카띠야적 정치 · 사회의식은 기본적 동력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구원하소서. 일어나소서. 그대 영웅이시여. 전쟁의 승리자시여…." (율장대품-마하박가) 초전법륜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전쟁영웅으로서 찬탄되는 것도 불교도의 치열한 정치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불교도의 이러한 정치의식은 '전륜성왕(轉輪聖王, Cakkavati)'에 이르러 절정을 이룬다. 전륜성왕은 '담마 라자(Dhamma-Raja)'로 '법의 왕'을 뜻한다.

청문회 바람이 또 한 바탕 거칠게 휩쓸고 갔다. 정의도 없고 표준도 없다. 오로지 대통령 한 사람의 정치적 계산만이 탐욕스럽게 지배하는 비극적 상황이 국민들의 가슴에 또 한번 큰 상처를 남겼다. "청문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하고 물으면, 들려오는 답은 대부분 "관심 없어요." 이제 국민들은 냉소적이다. 비판하고 욕할 기력도 흥미도 잃고 말았다.

그러나 불교도들은 이래서 안된다. 세상이 다 외면하고 무관심하더라도 불교도는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비판하고 요구하고 나서야 한다. 치열한 정치의식 즉, 엄중한 정치비판 이것이 불교의 본질이다. 이것이 불교도의 본분이다.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정의로운 국가, 전륜성왕의 나라를 이뤄내는 것이 우리 불교도들의 오랜 이상이고 사명이다. 이것이 '성취 정토원(成就淨土願)'이다. 이것 없이, 눈감고 앉아 천년 만년 마음살피고 기도하고 교리연구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제 꿈깨야 한다. 그만하면 꿈 깰 때도 되었는데….

우리는 여기서 오계(五戒)로서 청문회의 표준을 삼을 것을 요구한다. <전륜성왕사자후경>에 따르면, 전륜성왕이 표준으로 삼는 정의는 곧 오계이다. "생명을 해치지 말라. 훔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지나치게] 술 마시지 말라." 이것이 전륜성왕이 요구하는 정의의 표준이다. 폭력전과자, 부동산투기 탈세 과도한 보수 등 부정한 수단으로 재물을 늘린 자, 성폭행 성희롱자, 위장전입 논문표절 위증 자료부실 제출 및 허위기재 증인불출석 등으로 거짓말 하는 자와 막말 욕설로 남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이런 자들은 마땅히 원천적으로 청문회에 나서지 못하도록 엄중한 청문회의 표준을 확립해야 한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가 표준이 되는 사회, 정치인들의 정략이 표준이 되는 어리서고 탐욕스런 사회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부대중 칼럼



박지숙
카루나 마인드힐링 연구소장

불교와 뇌과학

부처님 가르침에 입문하게 되면 우리들이 가장 많이 듣는 소리 중 하나는 "마음을 잘 다스려라"라는 말이다. 우울하고 짜증이 나도 "한 마음 잘 다스리면 된다", 죽을 듯이 괴로워도 "다 너의 한 생각 차이니 잘 돌려보도록 해라." 임상에서 직접환자들과 대면하다 보면 이 말처럼 막연하고 더 스트레스 받는 말도 없다. 누가 모르는가? 분노로 힘들어하고 고통으로 들끓는 나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 행복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걸. 대체 어떻게 참고 다스리며, 받아들이라는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다. 무작정 참는다고, 무작정 잘 다스려봐야지 한다고 될 것이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은 배움과 훈련의 과정이 동반돼야만 하고, 이 배움과 훈련의 과정에 있어 핵심이 되는 주체는 바로 '뇌'이다.

현대의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건강을 회복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뇌 기능에 주목하고 있다. 사람의 몸은 전인적 방식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21세기의 건강문제의 화두는 모든 종류의 치료법을 통합하여 몸 전체를 고려하는 것이다. 그것은 동양철학과 서양기술의 만남이자, 정통 과학 의학과 대체의학을 통합한 치료 기준이다. 또한 이 새로운 형태의 치유에 있어 중심은 뇌-몸-마음을 하나로 치료하는 것이다. 2500여 년 전 부처님은 인류건강의 핵심으로 심리학적 마음 즉 뇌를 주목하고 계셨다.

우리의 한 생각은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고 이것은 다시 육체의 신진대사와 생리기능의 많은 변화로 이어진다. 뇌를 알면 인간을 알 수 있다. 뇌가 하는 일은 참으로 많다. 모든 근육을 강화시키고, 교감신경을 통제하며, 통증도 뇌에서 조절하고, 희로애락 또한 모두 뇌에서 콘트롤된다. 예를 들어 뇌기능이 떨어지면 민감해지고, 통증을 더 크게 느낀다. 뇌신경이 약해지면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흥분해 문제를 일으킨다.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오르며, 입이 마르고, 손발이 차가워지면서 땀이 나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소변을 자주 본다. 즉 뇌는 감정 조절뿐만 아니라, 균형감각, 정보의 전달 등 우리 몸과 마음, 사고와 행동의 핵심 소프트웨어이다. 한 생각을 일으키는 가장 주체적인 필드인 뇌는 우리 몸과 마음의 사령탑으로 무한한 능력을 가진 불가사의한 존재라 할 수 있다.

<화엄경>에서는 마음은 화가와 같아서 모든 세간을 그려낸다고 하면서 일찍이 "모든 것이 마음으로 짓고 있음[一切唯心造]"을 밝혔다. 일체는 마음으로 짓고 마음으로 지은 이 한 생각은 뇌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는 육체적 정신적 우리 삶의 질에 그대로 직결되는 문제이다. 스트레스나 잘못된 식습관, 생활습관 등으로 인한 뇌의 불균형이 일어나 자율신경계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불안, 초조, 산만, 주의력결핍, 육체피로, 통증과다 느낌, 우울증, 화병, 감정기복이 심해지는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아이의 경우 쉽게 짜증을 내고 지루해하며 정서가 불안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뇌의 가장 큰 기능은 바로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다. 인간의 감정 상태는 인간의 행불행을 결정 짓는다. 즉 똑같은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받아 들이냐에 따라 뇌기능이 떨어져 육체적, 심리적 고통을 겪다가 평생을 불행하게 보낼 수도 있고, 그 반대로 행복해질 수도 있다. 이를 현대의학에서는 '뇌기능' 즉 마음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뇌의 기능이 향상되어 뇌의 균형과 발달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행불행을 결정짓는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연합영역의 기능이 향상되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 뇌의 건강과 균형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냄새와 소리 시각을 통한 뇌신경 자극 운동으로 뇌의 균형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설탕과 밀가루 등의 섭취를 줄인다. 그리고 비타민C는 뇌를 젊게 해주며, 뇌기능을 증진시키는 셀레늄이 부족하면 우울해진다. 오메가 3, 6의 균형 있는 섭취는 기분을 향상시켜주고 공격성을 줄어 들게 하며, 집중력과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무엇보다도 유산소 운동은 두뇌의 혈류량을 증가시키는데, 이는 노화를 방지하고 두뇌를 일깨우는 역할을 한다. 명상은 뇌세포 생성을 돕고 머리가 가장 좋아지는 치료제이자 약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뇌의 활성화가 조화를 이루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건강해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사 설

불사심의기구 구성 서둘러야 한다

자연공원 용도지구에 '문화유산지구'를 신설하고, 문화유산지구 내 사찰의 건축불사를 가능케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과 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1일 개원한 정기국회 회기 내에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은 그동안 자연공원법 개정을 정부와 정당에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정부가 개정에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자 경내지를 자연공원 구역에서 제외하라는 주장까지 펴는 등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며 정부와 각을 세우기도 했다.

조계종의 자연공원법 개정 주장은 상당한 타당성을 지녔다. 현행 자연공원법은 환경 · 생태에 주목했던 만큼 사찰이 지닌 문화유산의 가치와 그 활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또 사찰이 수행 · 신앙의 공간이라는 점도 고려되지 못했다. 특히 교통의 발달과 수행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자연공원 내 전통사찰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늘었고, 이들의 욕구를 수용할 공간이 늘 부족했다. 자연공원법이 사찰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니 불교활동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지목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데는 이런 배경이 있다.

이번에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 공간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다. 이 점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건축불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눈살을 찌푸리는 건축불사에 대한 비판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다. 건축불사심의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자연공원법 개정을 소리 높여 외쳐온 조계종은 스스로를 규제할 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고 있다. 자연공원 내 사찰의 건축불사를 가능케 하는 자연공원법 개정과 함께 가칭 건축불사심의위원회 구성이 시급해졌다.

백양사 스님들의 자리다툼 민망하다

유서 깊은 수행도량 백양사가 요즘 시끌시끌하다. 갈등의 당사자들이 내놓는 입장이 너무 달라 소란을 피우는 연유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방장인 수산스님과 전 주지 지선 스님 등의 법명이 거론되어 듣기에 민망스럽다.

총림을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들린다. 총림의 최고 어른인 방장스님이 주지를 임명하니 참정권을 침해받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다른 사찰에서는 총림이 되고 싶어도 사격이 뒷받침되지 못해 못하는데 무슨 소리냐고 맞받아친다. 지선 스님이 주석했던 작은 산방에서 초파일에 연등을 접수했느니, 그렇지 않다느니 하는 데 이르러서는 귀를 의심케 한다. 우리는 이런 사안이라면 마땅히 산중에서 풀어야 할 일이라고 본다. 산중에 여러 어른들이 계시고, 법도가 있지 않은가. 그저 평범한 사찰이 아니고 총림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가진 사찰에서 법규위원회와 중앙종회에 가부를 판단해달라고 맡길 일인가.

최근 백양사의 갈등을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자리다툼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렇다면 더더욱 허망한 일이다. 지금 백양사는 총림의 격에 맞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당사자들은 사중으로 돌아가 자중하는 가운데 화합의 지혜를 찾아야 한다. 화합은 비움과 버림에 있다고 가르치지 않았는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무료 수강생 모집

"아는 것이 힘이요, 기술이 능력이다. 이것이 재력이다"

이 기술은 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통증관리사 등 건강과 관련한 직종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 기술이다.

이 기술은 우리 인체의 외과적인 모든 통증을 즉석에서 제거할 수 있는 신비한 기술이다.
(각종 두통, 목이나 허리 디스크, 척추 전만 후만 측만증, 척추 협착증, 오십견 각종 어깨의 통증, 팔을 들지 못하는 증, 팔의 회전이 어려운증 등 골반이 변위되어 각종 통증이 발생한 경우, 몸이 한편으로 기우는 경우, 장단족, 무릎이나 발목의 변위로 발생하는 각종 통증 등 1000여종이 넘는 수많은 외과적인 질병들이 즉석에서 회복하는 것을 직접 실기로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하여 드림)

- 효과는 마약이나 진통제보다 빠르게 즉석에서 효력을 알 수 있음.
- 부작용은 단 1%로도 없음.
- 도구가 필요하지 않음.
- 이 기술은 경락의 이름이나, 근육의 명칭이나, 골격의 명칭이나, 병명을 몰라도 치료되는 기술이라 배우기가 너무나 쉬워 배우면 즉석에서 활용하는 기술임.
- 시술 시에 힘이 들지 않아 하루 수십명도 시술이 가능함.
- 이 기술을 배운 후 취업이나 창업도 지원함.

원심한의원 051)802-0661
원심수기 보존회장 원공 019-305-9138

주지 직인 공고

● 사찰명 :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상기사찰은 불기2554년(2010)년 8월 31일부터 주지 직인을 공고하오니, 이전 직인은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2
031)470-3100 / FAX 031)470-3116

삶과 蔘 그리고 세월의 기다림 雲住宗蔘

운주종삼은 예부터 500년 넘게 전해 내려온 산삼 재배법을 그대로 재현한 산양산삼 브랜드이다. 운주종삼이란 雲住山의 기운을 받은 蔘 중의 삼, 宗 으뜸되는 蔘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운주종삼 밭

운주산(雲住山)은 구름이 드리워 있는 산이라는 명칭과 어울리게, 맑고 강한 기운이 모여 있기로 유명한 곳이다. 이곳은 예부터 가파른 경사와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산세로 백제 멸망 후에는 도피처로, 조선시대에는 의병활동의 근거지로도 유명한 곳이다. 운주산의 청렴함과 민족의식은 지금까지도 이어져오고 있다. 이러한 정기 어린 산자락에서 부처님을 시봉하면서 정성들여 삼을 키우는 운주가(雲住家)가 자리하고 있다. 운주가에서는 고려말기부터 이어온 500년 넘은 전통 산양삼 재배법을 그대로 재현하여 "운주종삼"이라는 독특한 브랜드로 최고의 산양삼을 키우고있다.

운주종삼은 雲住山 운주산의 기운을 받은 蔘중의 삼, 宗 으뜸되는 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운주산양삼의 효능은 널리 알려져 있다. 즉, 사람이 아닌 자연의 손에서 길러지며, 운주산의 강하고 깨끗한 기운이 키워내는 자연의 마음 그대로 이기 때문이다.


(주)雲住 김원겸 대표

운주가를 이끄는 김원겸 대표의 蔘과의 인연은 너무도 힘든 인생을 통해 맺어졌다. 어렸을 적부터 독립심이 강해왔던 김대표는 다른 이들 보다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요리사로서 맨바닥 일부터 시작하여 호텔 주방장까지 올라간 후에도 또 다른 일에 도전, 부동산, 건설 등 일의 영역을확장 20여년을 쉼없이 달려가기만 했다. 그러던 중 경제위기가 다가오면서 확장하였던 사업들이 쓰러지기 시작했다. 삶의 의욕을 잃어가던 김 대표에게 닥친 마지막 시련은 부인과의 사별이었다. 절망에 빠진 그는 이곳 저곳을 떠돌며 방황하다 조치원에 인연이 닿아 가깝게 지내던 형님의 농장에서 지내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형님이 삼을 기르시던 산에 아침 저녁으로 오르며 몸을 추스리기 시작했다.

어느날 김 대표는 악몽과 스트레스로 인해 무너진 심신을 달래기 위해 산에 오르던 중 우연히 가슴이 탁 트이며 편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운주산의 기운이 모여있다는 산신터였다.

김 대표는 부처님께서 수행할 수 있는 인연터를 주신것에 감사하며 이후 그터의 앞뜰에 작은 집을 짓고 외부와의 접촉을 일체 단절하고 수행생활을 하기 시작하였다. 지나간 과거를 하나하나 씻어내듯 매일 부처님, 산신께 기도드리며 산의 蔘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간혹 기도하기 위해 올라오는 사람들을 만나 좋은 말씀을 나누는 것이 일상의 즐거움이었다.

이처럼 기도 생활을 한지 3년 정도 지나자 각종 신비스러운 일들이 일어 나기 시작했다. 어느날 새벽 기도를 드리던 중 옆을 스치

부처님께 기도후 각종 신비한 일이 일어나…

는 기척을 느끼고 살펴보니 어떤 나이 지극히 드신 노인이 스윽 어디론가 가는 모습이 보였다.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기 시작했는데 한참을 산을 타는 것이었다. 노인을 소리쳐 불러보았지만 노인은 대답 대신 힐끔 쳐다보고는 다시 산을 올랐다. 쫓아간 곳에서 그 노인은 땅에 무언인가 희미하게 빛나는 것을 뿌리고 있었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부르는 순간 고개를 돌렸는데 노인이 아닌 아버님이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손에 든 환하게 빛나는 것을 갑자기 건네주고는 홀연히 사라져 버렸다. 순간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살펴보니 삼밭이었다. 아버님을 부르다 잠에서 깨어보니 꿈이었다. 그 후 더욱 삼을 키우는데 자식을 키우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삼을 돌보기 시작했다. 또 어느날 꿈에 멧되지 여러 마리가 운주가에 들어와서 놀다가 급하게 산으로 달려갔다. 꿈이라 하기에는 너무 선명해서 무슨일이 났는가 하고 칠흙같은 밤에 멧되지가 어디가서 무얼 하는지 확인까지 하러 간적도 있었다. 물론 이후 멧되지가 산에 올라가서 홀연히 없어진 곳에 삼을 키웠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너무 힘든 사회생활로 인해 몸이 안좋아져 지금부터 17년전 삼을 복용하고 기운을 회복한 김 대표와 蔘과의 인연은 더욱 각별 했다. 삼을 키우는 것도 쉽지 않았다. 4~5년생 삼이 다 썩어 없어진 적도 있었다. 정성이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 다시 정성을 들여 삼을 키웠다. 삼을 키우던 초기에는 몸의 병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무릎이 너무 고통스러워 절고 다녔다. 신기한 일은 운주산에 들어가 삼을 심으면 어는 덧 힘이 생기고 생기가 돌아 산속에서만은 병이 씻은 듯이 낳았다. 같이 일하는 직원들은 산속에서 작업하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기분도 섬뜩해서 너무 무서워 산을 내려가는 경우가 잦았지만, 김 대표는 오히려 이러한 일들이 蔘과 山을 보호하는 보호신장들의 나툼이라 여기고 기분좋게 일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도하는 마음을 모르는 직원들 사이에는 아주 지독하신 분이라고 한때는 소문난 적도 있었다.

"산의 기운이 좋고 부처님 가피와 산신님의 도움으로 산에서 일하는 것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산에 올라가기전 항상 부처님과 산신님께 정성스럽게 기도드립니다. 그냥 편안해 지죠." 김 대표는 정성을 다하는 기도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산양삼을 자연삼과 같게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구름이 많고 울창한 숲은 산삼에 알맞은 습도와 채광을 조절해 주며, 또 북향에 위치하여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고 통풍이 잘 되어야 한다. 50년이상 그대로 방치되어 사람의 손길이 타지 않은 부엽토양과 경사가 급한 가파른 지세로 배수가 용이하여야 삼의 뿌리가 쉽

맑은 기운 그대로 담은 우리蔘 건강한 생활을 위한 건강한 재배

게 썩지 않는 등 등의 조건이다. 이러한 천혜의 조건을 충족 시키는 곳이 운주산이다. 삼이 천연적으로 자라기 위한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김 대표의 불심은 남다르다. 운주산에서 삼을 심기전 기도드리기 시작한 후 다음날 갑자기 머리를 깍고 출근하였다. 직원들이 깜짝 놀라니 "마음을 내어 머리를 깍고 생활은 속세생활이지만, 출가를 안했어도 마음속으로 수행생활을 하며 부처님을 모시면 되는 것 아니 겠습니까"라며 옷도 먹물



옷을 입고 스님 같은 생활을 시작하였다.

"염불수행하는 수행자의 마음으로 항상 삼을 키우면서 기도하고, 절에가서 부처님께 공양올리며 이후 삶은 불사에 전념할 생각입니다. 꼭 절을 지어서 회향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삼을 키우다 보니 운주가에는 끊임 없는 삼 인연들이 이어졌다.

인연 맺은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아낌없이 蔘을 보시

김 대표는 스님들께 삼 공양을 올리는 것을 즐겨하였다. 상업적으로 팔기 전에 인연 있는 스님들이 수행하다 몸이 안좋으시다는 소식을 들으면 직접 산에 올라가 삼을 캐다 드렸다. 정성스러운 마음이 통하였는지 蔘을 복용한 스님들마다 효험을 보시고는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주위에 蔘이 필요하신 분과 인연을 맺어 주셨다. 더욱더 운주가의 蔘 사업이 번창함은 물론이요 삼보님께 공양올리니 이러한 공덕은 쌓이고 쌓여만 갔다. 이처럼 운주종삼의 진가는 물흐르듯이 잔잔하게 퍼져가고 있다.

운주가의 삼 재배면적은 제1농장 2만평, 제2농장 20만평이다. 이정도의 대지에 김 대표는 처음 삼을 심기 시작했을때 직접 혼자 작업하였다. 주위 지인들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렸지만 운주산만 올라가면 펄펄 기운이나는 김 대표 자신에게는 힘만드는 일이 아니었다.

길도 없는 곳에 곡괭이와 삽을 가지고 길을 만들어서 蔘이 잘 자랄수 있는 한곳 한곳에 삼을 심었다. "부처님 가피없이는 꿈도 꾸지 못한 일 이었습니다. 그냥 산이 좋고 삼이 좋고 삼이 잘 자랄 수 있는 곳이면 좋았습니다." 김 대표는 운주산 자락 삼 역사를 다시 만들었을 것이라고 자평 하면서 현재는 이렇게 16년 하니 현재 운주종삼이 800만주 정도 될 거라고 한다. 4~5년 蔘은 500만주, 16년 蔘은 300만주로 추정하고 있다.

운주종삼은 자연에 가깝게 천삼(山蔘)처


기도터에 있는 산림청 보호수

좋은 삼들이 캐어지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蔘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인생의 물결이 다양하듯이 삼도 그렇습니다. 밟으면 삼의 싹이 안나오고 삼이 썩으면 씨를 더 많이 맺습니다. 즉 자식에 대한 삼의 애착이라고 할까요. 안좋은 땅에 심으면 더 뿌리가 깊게 자라고 잔뿌리도 많이 생깁니다."

최상의 삼은 잔뿌리가 많아야 좋다. 잔뿌리에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 되어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삼에 비하여 중국삼은 잔뿌리가 별로 없다고 한다.

"제가 남은 생 최종 목표는 삼을 잘 키워 아픈 분들이 운주삼으로 인해 고통에서 벗어나 삶을 사시는데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사찰불사를 통하여 부처님께 회향하는 것입니다.

좋은 삼을 키울수 있는 운주산 같은 대지에 인연 맺게 해주신 부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운주 산양삼 (3년)

蔘이 필요한 사람이 蔘밭에서 직접 캐어 가는 시스템 운영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라고 하는 산삼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 특히 자연에서 온 산삼은 천종 즉 '하늘이 내려준 삼' 이라 불릴 만큼 그 특별함과 가치가 매우 뛰어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없는 고가품이었다. 운주종삼은 천종에 가장 가까운 산양삼이다. 고려말기부터 이어온 500년 넘은 전통 산양삼을 재배 보급하여 모든 이들과 산삼의 건강함을 함께 나누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운주산의 맑고 청정한 기운을 받아 최고의 산양삼 만을 길러내고 있는 운주가의 행보를 주목해 본다.

雲住宗蔘 地를 가리는 산삼, 지형과 토양을 가리는 산삼은 농약, 비료 등의 인공적인 화학물에도 민감해 자칫 물러서 썩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수한 땅의 기운과 양분 만으로 자라 그 효능이 더욱 뛰어난 천종삼처럼 운주종삼은 개갑 및 파종 이외에 그 어떤 최소한의 인위적인 작업도 하지 않습니다. 자연을 이겨내며 자라는 삼만큼 좋은 것이 없으며 우리의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건강하고 깨끗한 우리삼을 길러내고자 천연 농약 조차 살포하지 않는 유기농 재배가 우리 운주종삼의 마음입니다.

제품소개

운주종삼 산양홍삼 추출액



산삼 막걸리처럼 단순 상처 등의 이유로 상품성이 떨어지는 삼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홍삼이란 원래 밭재배 작물인 수삼을 쪄서 말려 그 저장성 및 그 약효 성분을 높인 것으로 분말 보다는 달여서 먹는 것이 흡수율이 높습니다. 찌고 말리는 과정에서 진세노사이드 성분의 화학 변화로 암에 좋은 약리성분들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밝혀 졌습니다. 운주종삼의 홍삼액은 약 80ml로 5%의 장뢰 홍삼을 함유하고 있어 가볍게 차로 드시기에 적합합니다. 삼의 효능은 산삼 몇 뿌리로도 느낄 수 있지만 장기간 소량 복용도 면역력 증강에는 좋은 방법입니다.

편리하게 레토르트 용기에 담겨있어 뜨거운 물에 담가서 데우거나 그대로 시원하게 음용해도 좋도록 만든 제품입니다. 요 근래 나오는 마시기만 좋고 효능은 전혀 없는 함량 미달의 홍삼 음료와는 전혀 다른 상품으로 첨가제가 전혀 없이 순수하게 물과 장뇌 홍삼만으로 이루어진 추출액입니다.

산양삼막걸리



상처 등의 이유로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잃은 산삼 등을 모아 만든 막걸리입니다.

기존의 산삼 막걸리와 다르게 산삼의 비율이 높아 순하면서도 달콤하고, 부드럽게 입안에 감도는 산삼의 향이 여성스러우면서도 건강한 느낌으로, 다른 산삼 막걸리에 비해 더 달콤한데 이는 산삼의 사포닌 성분에 의한 것으로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목으로 넘어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산삼에는 강장 성분이 들어 있어 안주로 먹을 때는 체내 알콜 제거 속도를 2배 가량 촉진해주고 술로 담가 마시는 경우 알콜을 순화시켜 숙취가 없습니다.

운주종삼 막걸리는 비율을 낮게 하거나 중국산을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운주산양삼 만을 듬뿍담아 만듭니다.

향과 맛으로 일반 탁주의 단점인 텁텁한 뒷맛이나 특유의 냄새가 없고 곡주 음주 후 느끼는 불쾌감이 없습니다.

술을 마시며 향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마시는 자체로도 추출액 등이 아닌 삼 그대로를 넣어 약간의 건더기가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넘김이 좋으며 적당한 탄산의 청량감이 훌륭합니다.

삼의 깔끔한 산삼의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그 비율을 최상으로 맞춘 산삼 막걸리입니다.

산삼주



품질 좋은 운주 산양삼으로 만든 산삼주입니다. 산삼의 강장효과고 숙취가 없고 깨끗해 건강에도 이로운 술입니다.

기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믿고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조금씩 드시면 산삼의 장기복용 효과와 더불어 알코올의 혈액순환 효과까지 더해 건강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산삼의 기운을 다 흡수하시려면 기름진 안주보다는 깔끔하고 담백한 안주와 함께 하세요.



www.sanyangsam.net
www.woonjumall.com

(주)운주산삼랜드 雲住宗蔘
· 충청남도 연기군 전동면 청송리 262-3 번지
· 서울시 송파구 문정 2동 가든파이브 Tool동 5층 409호
TEL041)868-8003
H·P 010-4706-3147